



2

주 체 88 (1999)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8(1999)년 제 2 호

(루계 제 616 호)



◇◇◇◇◇◇◇◇◇◇◇◇◇◇◇◇

차 례

◇◇◇◇◇◇◇◇◇◇◇◇◇◇◇◇

2 월의 봄빛	4
우리의 김정일장군	4
21 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을 칭송한 세계 혁명적송가문학.....	5
영원	11
만민의 축복	21
백두산	21
빛을 뿌리는 글발.....	22
아침과 함께 오신분	25
기다림	25
두시간	25
수령님과 장군님	26
우산장사모곡.....	26
기념사진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	27
명언해설	28
전화로 불러주신 노래.....	29
높이 들리 우리의 붓.....	30
한생과 견장	33
내 마음의 해돋이.....	39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40
백두산의 불타는 새벽	51
룡문대굴	52
우사장의 밤이여	54
세계를 굽어보는 거인적감정의 열렬한 분출	55
푸른 수첩	57
먼저 찾는 병사로 내 살리라	65
밀림속의 병기창	66
지향	67
그 순간에	75
군공으로 빛나는 땅에서 (외 2 편)	76
귀향의 날	76
주소없는 편지	76
한발을 들고 글을 쓴 헤밍웨이	77
평양의 10 장사	78
신천이여, 나와 함께 가자	79
흰눈덮인 대지는 잠들었어도	80

송시

2월의 봄빛

신문경

꽃피는 계절의 그 파사로움으로
눈덮인 대지에 뜨겁게 뿌려지는
봄빛
2월의 봄빛

이해의 봄은
일찌기도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정월의 찬눈 헤치며 이어가신
장군님 령도의 자욱을 이어
가슴과 가슴에 먼저 안겨진 봄의 후더운 열기

그 뜨거움 안고 집집의 창가엔
축원의 꽃송이 아름답고
그 빛을 안고 북방에서 온 나라로
크고작은 발전소 곳곳에 일떠서
이 땅을 더웁혀주는 희망의 계절

사나운 눈보라도 얼구지 못한
억세고 뜨거운 심장들이
창조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평양의 하늘 우러러
인사드리는 이 아침

백두의 2월에 안고오신
담력과 의지로 인민을 이끌어
강성대국의 새봄을 안아오시는 장군님
그래서 더더욱 뜻깊게 맞이하는

축원의 계절, 환희의 계절입니다

그 봄빛 받아 조국의 대지우엔
새해 진군의 숨결 더욱 거세차고
그 열기 안고 공장과 거리들
최후돌격의 동음 높여가나니

2월 2월은
봄을 안고 눈속에 숨쉬는 계절
꽃이 피도 제일 아름답게
잎이 푸르고 열매 익어도
제일 무성하고 제일로 중요하게
이 땅에 안아올 희망의 계절

백두의 폭풍으로
제국주의광풍을 밀어내는
2월을 따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그 봄빛을 받아 온 세상에
자주의 21세기가 밝아오나니

오, 계절이 알고 산천이 알아
하늘이 알고 력사가 떠받드는분
다가오는 봄처럼 막을수 없는
최후승리를 이 땅에 안아오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시여, **김정일**동지이시여,
만수무강하시라
2월의 봄빛이여 온 세계를 덮으라

가사

우리의 김정일장군

리영철

백두의 붉은기 높이 들고서
력사를 이끄는 인민의 영웅
준엄한 폭풍을 헤치는 길에
승리를 떨치는 위대한 령장
아 조선의 영광 **김정일**장군
아 민족의 자랑 **김정일**장군

하늘땅 바다에 새겨진 자욱
전선길 만리에 빛나는 자욱
삼천리강산이 노래부르네

인민은 천만년 길이 전하리
아 조선의 영광 **김정일**장군
아 민족의 자랑 **김정일**장군

자주의 앞길에 봄노을 펼쳐
세계가 받드는 만민의 태양
그 빛발 따라서 지구가 돌고
정의의 새 세기 열리어지네
아 조선의 영광 **김정일**장군
아 민족의 자랑 **김정일**장군

21 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을 칭송한 세계 혁명적송가문학

박춘택

바야흐로 20세기가 저물어가고 21세기가 다가오고있다. 이 역사적전환기에 살고있는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의와 진리의 최고화신으로, 세기적업적을 수놓으시는 천출 위인으로,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 걸출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르면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을 담아 경애하는 그이께 드리는 수많은 송가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은 그 칭송의 높이와 바탕에 놓인 사상감정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그 창작의 규모와 보급의 넓이에 있어서 인류송가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문예사적사변으로 된다.

1

인류사가문학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 과정에 송가는 비범하고 걸출한 인물이나 웅장한 사건,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변들을 칭송하는 노래로서 그에 고유한 미학적특성을 담게 되었다.

송가는 현실에서 체험된 사상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의 일반적특성을 가지면서도 서정시에서처럼 생활에서 사상정서적충격을 주는 모든 대상을 다 노래하는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며 업적이 큰 대상을 노래한다.

문학의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러한 송가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그 창작이 막을 수없는 시대적요구로 제기되는것은 아니다.

송가창작이 시대적요구로 제기되자면 그 대상으로 될수 있는 걸출한 위인을 모시고 격동적인 사변으로 충만된 시대를 맞이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칭송한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이 왕성하게 창작되는것은 인류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주시대의 태양으로, 사회주의위업의 걸출한 령도자로 모시게 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가장 격동적인 새 시대를 맞이한것과 관련된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칭송한 송가들을 창작하도록 떠밀어주는 무궁무진한 원천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있다.

원래 송가의 생명을 이루고있는것은 존경과 흠모, 칭송의 서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대상의 위대성을 체험했을 때 생기는 고유한 감정이다. 위대하고 숭고한 대상은 그 자체가 지니고있는 미학

적 속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경모의 정과 환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칭송의 감정이 나래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모와 환희, 칭송의 감정의 열도와 깊이, 그 미학적감화력은 대상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대상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에 대한 흠모의 감정, 시적감흥은 그만큼 깊어지게 되며 시에 반영된 사상감정은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매혹, 바로 이것이 오늘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노래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지구상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게 하고있다.

인간이 인간에게 매혹된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 온갖 벌과 나비가 찾아들듯 만인의 매혹을 자아내는 인간에게는 국경도 민족도 정치체제도 풍습도 초월하여 풍기는 독특한 위인적향기가 있는 법이다. 그 향기는 바로 위인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 고매한 품모에서 흘러나오는 위대함과 아름다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위인상에 매혹된 세계 진보적인류의 불타는 심장은 그이를 우리러 펜을 들게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의탁하고 마음속깊이 우러르며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량심과 숭고한 사상감정이 5대륙 방방곡곡에서 21세기 태양만세의 환호성으로 열화같이 분출하고있는것이다.

로씨야의 저명한 시인인 와실리 그리샤예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삼가 드린 시 《사회주의행진곡》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추악한 변절자들은 사회주의가 망했다고 고아대고있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라. 조선은 지금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시기보다 더 엄혹한 환경에 처하여있다. 그때는 몇개 제국주의자들이 덤벼들었지만 지금 조선은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고있다.

군사적압력, 경제봉쇄, 자연피해 등 그 어려움

을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본적이 없다. 그러나 조선은 힘차게 사회주의행진을 하고있다. 사회주의 행진곡은 조선에서 들려오고있다. 그것은 인류의 노래이다.

인류는 조선의 사회주의행진곡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10월혁명이 끝난후 소련의 저명한 시인 마야콥쓰끼는 <좌익행진곡>이라는 시를 써서 인류가 로씨야 혁명의 발걸음에 왼발을 맞추어나갈것을 호소한바 있다.

지금은 유일한 사회주의나라 조선의 <사회주의행진곡>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마야콥쓰끼의 <좌익행진곡>이 한 나라의 행진곡이었다면 오늘의 조선의 <사회주의행진곡>은 전인류가 발맞추어야 할 행진곡이다.

조선-**김정일!** 그 이름만 들어도 나는 장쾌한<사회주의행진곡>을 듣는듯하다. 조선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외곡된 보도들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강력한 행진곡의 여운을 달가와하지않는자들의 비명이다.

조선의 행진곡은 장쾌한것이다.

행진을 지휘하시는분이 곧 **김정일**령도자이시다.
...》

세계여 들으라!

조선의 힘찬 발걸음소리

광야에 울리는 우뢰소리

세계여 보아라!

평양에 나뭇기는 붉은기

정다운곳에 날리는 그 기폭

에베레스트산정에 휘날리는듯

온 세계를 진감하는 신념의 웨침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구호

전진하는 행진의 나팔소리

새 세기로 부른다

사회주의 새 세기로

...

세계의 심장이며

박동을 맞추라

조선의 도도한 숨결에

세계여 전투대오를 결속하라

휘날리는 저 사회주의의 기치밑에

승리의 붉은기 더 높이 추켜들라

행진대오 발길을 드높이

용감히 앞으로

사회주의행진은 영광의 길

그것은 강력한것 무적의 행진

벗들이여 앞으로 나아가자

광명의 길 헤쳐가자

비겁한자들이 썩 나서라

우리는 사회주의신념으로 지키리라

우리의 행진의 진두엔 서계신다 그분

무적필승의 **김정일**동지

그이의 억센 손에 사회주의가 있다

평화가 있다

시 《사회주의행진곡》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사회주의의 구원자이시고 승리와 영광의기치이시며 정의의 수호자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시인이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안고 깊은 사색과 탐구, 불타는 열정을 바쳐 창작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에 매혹된 작가의 창작적량심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작가는 얼마전에 또다시 시 《그대 태양의 시선》을 창작하였다.

그는 시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의 시선은 이 세상 만민에게 참된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병사들에겐 용맹을 주며 원수들의 머리엔 번개를 친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시선이여

예지와 용맹으로 더욱 빛나라

그대는 진정 사회주의의 향도성

붉은 기폭의 찬연한 빛

그대의 억센 시선

세기의 모든 장막 가시리니

그대의 시선

신심에 차넘치고

거창한 힘을 주나니

공산주의아침노을

더욱 붉게 타오르리라

이처럼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진보적인류에게 가장 숭고하고 가장 뜨거운 시적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무궁무진한 송가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2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품모는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의 심오성과 다면성, 감화력으로 하여 거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들

에서 빛나게 발현된다.

세계 각국의 각이한 계층이 망라되어 창작하고 있는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은 바로 그 다양한 측면들을 주제로 설정하고 정서적으로 파고들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시화하는데 사색과 탐구와 열정을 바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창작한 송가작품들에서 주도적인 내용은 력사의 력사의 중심에 높이 서시여 만경대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 위대한 태양으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의 걸출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시대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며 력사의 그 어느 명망높은 위인도 따를수 없는 영원불멸할 빛나는 업적을 쌓으시고 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하신 만고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시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최근에만하여도 서정시들인 《**김정일** 21세기를 밝히신는 태양》(에쥘트시인 나빌 아브마드 무수타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꾸바시인 까르멜로 가르시아 페르난데스), 《그이를 축복하노라》(네팔시인 피. 씨 샤르마), 서사시들인 《백두산의 별》(로씨야시인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 《**김정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인디아시인 푸라브쵸도 카우루) 등 이 주제의 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작품들은 그이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함모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만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인디아의 저명한 녀류시인이 쓴 서사시《**김정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은 일찍부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실 필승의 신념을 지니시고 성장하신 그이의 혁명활동로정은 시작사색으로 더듬어보면서 칭송의 서정을 뜨겁게 분출시키고있다.

동방에 거연히 솟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의 나라
부강하고 문명한 새 조선이어

인디아의 저명한 시인
타고르는 너를 노래했노라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커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조선은 주체의 나라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엄과 더불어 열광떨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의 향도의 손길아래
번영하고있어라

시는 해쑈는 룡남산마루에 몸소 오르시여 조선 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여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오리라고 장엄하게 선언하신 숭고한 그 모습을 우러르면서 사색의 나래를 펼쳐가고있다.

이러한 시적사색을 더듬어나가는 시인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드림없는 결심을 다지시고 정력적인 사색과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른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정치철학, 정치적신조를 지니신 인민의 령도자로 칭송하고 21세기를 령도하실분은 바로 **김정일**동지이시라고 격조높은 주정을 터뜨리고있다.

내 여기 적노라

인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령도자로

이미 추대하였음을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류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여라

그이는

세계 사회주의의 최고사령관

그이는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앞길을 밝혀줄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여라

시에에는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로정우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의 불멸성, 그이를 사회주의위업의 탁월한 령도자,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라는 작가의 뜨거운 격정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있다.

중국 연변직공려행사 사장은 시 《가을의 봄날》에서 20세기를 가장 빛나게 장식하는 인류사적경사가 주체조선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서 장구한 인류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고 맞이해본적이 없는 회세의 위인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력사적사변은 조선과 온 행성을 끝없는 환희와 걱정 속에 휩싸이게 하고있다고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만민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은 우주를 진감시키고있으며 세인은 자신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게 되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 절세의 위인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조높은 주정을 터뜨리고있다.

...
김정일시대로 찬란할 21세기
 우리 향해 손저어 인사드리나니
 천지는 그로 하여 감격에 설레이고
 우주는 그로 하여 영원히 봄이여라

20세기 우리 민족과 전인류가 높이 받들어 칭송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기쁨과 감격을 이시에서는 그이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모신 새세기의 휘황한 미래를 그려보면서 그이께 삼가 송가를 올리게 되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가 진실하게 노래되고있다.

마다가스까르혁명적문화예술성 과장 랄라이나리부노엘 하르베이는 시 《태양찬가》에서 시대와 력사,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이 세상 존귀한 말 고르고골라도, 천만시인 목소리 합쳐도, 아름다운 선물 고르고골라도 다 담을수 없다고 하면서 흠모의 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일 그이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령도자
 세계혁명의 령수
 인류의 영원한 봄
 자주화원을 가꾸어나가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우러를수록 새 힘 솟고
 부를수록 걱정 넘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절세의 위인
 그이는 사상리론의 천재
 창조와 건설의 영재
 그이는 인류의 자랑
 인류의 평화와 행복
 그이는 만민의 아버지
 위대한 스승

이처럼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안고 깊은 사색과 탐구, 불타는 열정을 바쳐 21세기의 태양을 노래하는 칭송의 시들을 수많은 창작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창작하고있는 송가작품들에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레찬하는 주제의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인류사상의 최고정수를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 풍부화시키시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념과 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뛰어난 철학적사색과 탐구심, 철학적조예를 천품으로 지니신 세계 철학계, 사상계의 으뜸가는 정치철학자, 사상리론가 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은 철학가형의 정치대가이시며 사상리론가형의 령도의 거장이시다.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시대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인류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힘을 안겨주신 그런 위인의 전설적인 업적을 알지못하고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세계사회주의 위업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으로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도록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회주의운명을 구원해주신 만고의 은인으로 칭송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시 《진보의 길로》(또고, 꼬조 키크보), 《**김정일** 그이는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베닌, 알리후두), 《**김정일**동지께 경의를》(베루시인 길레르모 알가짜르 리베라), 《우리의 태양》(가나시인 아이자이아 콰오 모리손)을 비롯한 이 주체의 여러 시편들에서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빛나는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의 새로운 리정표를 제시하시여 세계 사회주의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재생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심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 《인류의 진정한 향도자》(마다가스까르 푸랑쑤아)는 지난 세일 투쟁과 생활의 진리, 혁명의 방도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들이 오늘은 찬란한 향도의 그 빛발아래 삶의 앞길 찾고 광명만 미래를 확신한다고 주체위 해빛을 받아안은 인민들의 감격을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송가작품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함께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노래한 송가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압력과 경제봉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우리 나라의 장엄한 현실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와 끝없는 동경의 감정이 뜨겁게 울리고 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광범히 창작하고있는 송가작품들에는 21세기의 태양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만이 아니라 그이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 절절할 사상감정이 반영되어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계 싸워갈 굳은 결의가 토로되고 있다.

우리 비록 당신의 따뜻한 품 멀리 떨어졌어도
그 품을 그리는 마음 심장에 차넘칩니다
어느때 어디서나 당신을 우러르는
깊고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속에
당신의 그 영상 안고 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빛내여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 어떤 설한풍 몰아쳐도
대를 이어 당신께 충성할것을
우리는 심장으로 맹세합니다

이것은 잠비아의 제이 은그위라가 창작한 시 《그 영상 우러르며》의 한 구절이다.

시에 굽이치는 흠모의 정과 충성의 결의,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려는 이러한 사상감정은 그 어떤 논리적귀결이나 의무감에서 흘러나오는것이 아니라 그이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모를 심장으로 체험한데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흠모의 열정이 사람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서 끓어번질 때 그것은 곧 노래로 되고 시로 되는것이다.

이밖에 시 《최대의 경사》(구바, 쏘피아고 에레라), 《끝없는 충성과 사랑》(일본, 히로자와 마스미)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전인류적인 환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이를 자주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자주화위업에 헌신하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불타는 결의가 진실하게 토로되고 있다.

인류시가문학의 력사는 수많은 송가들을 기록하고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송가들처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충성의 결의, 만수무강 축원의 감정과 결합되어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그들을 위훈으로 불러일으킨 송가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

3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창작하고있는 송가작품들은 비할바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을 그에 맞는 숭엄한 감정과 풍부한 정서, 아름다운 시어로 노래함으로써 그의 사상예술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송가창작가들은 우리 시대의 풍부한 생활내용과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송가적양상을 기본으로 하는 시문학의 다양한 형태와 양식을 개척하고 흠모의 감정을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할수 있도록 감정조직을 하고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는 숭엄한 감정을 무한히 밝고 약동하는 정서에 담아 노래하려는 지향이 높아가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의 중요한 미학적성과의 하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들을 개척한것이다.

세기적변혁과 격동적사변으로 충만된 시대,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가 전례없이 양양된 시대는 그러한 생활내용을 담을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가들을 요구한다.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에서는 이러한 시대작요구를 담기 위해 서사시, 서정서사시, 서정시, 장시, 담시, 련시, 가사 등이 널리 활용되게 되었다.

형태와 양식의 다양성과 그 범위의 확대는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다함없는 충성의 감정이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있으며 세계 송가문학의 서정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징표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은 감정조직에서도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다양한 색채의 생활감정을 주되는 감정선에 조화롭게 결합시키면서 정연한 감정론리를 보장하고있는데서와 서정의 전개방식과 송가적 감정을 부각하고 심화시키는 수법들이 다양하게 리용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송가작품들은 감정조직의 일반적공통성을 가지고있으나 정서를 느끼는 서정적성격의 개성적특징과 서정의 전개형식의 차이에 따라 작품마다 각이한 양상을 띠고있다.

서정의 전개방식에서 보면 철학적사색의 세계를 개방하고있는 지성적인 요소가 강한 시가 있는가하면 객관적정황이나 생동한 생활화목을 제시하면서 필자의 주정을 개방하고있는 시도 있고 업적이나 혁명활동의 내용을 개괄하면서 자유분방한 감정을 토로하고있는 시도 있으며 주정토로를 기본으로 정서를 조직해나가고있는 시도 있다.

송가문학에서는 서정의 전개방식에서뿐만아니라 송가적 감정을 부각하고 심화시키는데서 다양한 수법들이 활용되고있다.

송가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숭고한 품모를 세상에서 가장 높고 짙은 자연적대상, 예로부터 칭송하여마지 않은 숭엄한 대상, 시공간적으로 무한대한 대상에 비유하여 감정을 승화시켜나가고있으며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기 위하여 우아하고 정중한 어휘들로 최상의 높이에서 플라쓰고있다.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의 예술적특성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양상을 잘 살리고있는 문제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의 양상적특성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을 최대의 높이에서 정중히 노래하려는 사상주제적목적으로부터 양상에서 숭고하고 숭엄한 정서적색채를 띠고있는데 있다.

송가적양상은 노래하고 칭송하는 대상의 위대성과 영원성, 무한대성이 환기하는 감정, 정서의 특별한 색채이다. 숭고하고 숭엄한 정서적색채는 송가적양상의 기본특징이다.

결출한 대상을 노래하는 송가작품들에서 대상에 대한 찬양과 레찬, 존경의 사상감정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날수 있다. 그가운데서 숭고하고 숭엄한 감정은 가장 정중하고 존엄성있는 태도의 정서적표현으로 된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우러르는 세계인민들의 사상정서는 언제나 숭고하고 숭엄한 감정으로 충만되어있다. 이러한 숭고하고 숭엄한 감정은 그 어떤 논리적귀결이나 의무감에서 흘러나오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품모로부터 환기된 사상감정의 집중적표현이다.

세계 혁명적송가문학의 양상적특성은 그것이 숭고하고 숭엄하게 형상되고있을뿐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공감된 사상을 촉박하고 친근한 정서로 노래함으로써 형상의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송가들은 가슴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흠모의 사상감정을 가식없이 소박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노래함으로써 형상의 진실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송가들에서 형상의 진실성은 창작가들의 체험의 진실성과 그 열도와 관련되고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칭

송하여 창작한 송가들은 필자들이 높은 사상정신적체험을 통하여 승화된 주도적감정을 밝히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이것은 시형상의 정서적공감력과 생활적진실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창작하고있는 송가들에서의 형상의 진실성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칭송과 흠모심을 진정이 넘쳐흐르게 소박하고 친근한 정서로 노래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가식이 없는 진심, 진정을 노래하는것이 시의 참된 세계이다. 위대한 대상에 대한 느낌이 깨끗한 랑심과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안받침되면서 소박하고 친근하게 노래되어야 시형상이 진실하고 감명깊게 안겨올수 있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앞에서 인민들이 체험하는 감정은 무엇보다먼저 그이에 대한 무한한 친근감이다. 이러한 감정은 인민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생활적으로 공고화된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송가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이러한 사상감정이 꾸밈없이 소박하고 친근하게 노래되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정견과 신앙, 국적과,피부색, 언어와 풍습을 초월하여 뜨거운 심장들을 하나로 합쳐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송가들을 창작하게 된것은 인류사가발전에서 하나의 경이적인 사변으로 된다.

21세기를 향도하실 위대한 태양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주옥같은 시어를 플라 지은 송가문학은 그것이 체현하고있는 고상한 내용과 숭고한 사상감정 그리고 그 창작과 보급의 전례없는 대중적성격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을 촉진하며 인류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자주시대가 낳은 세계 혁명적송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절대적 리념, 필승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승리와 영광이 있고 광명한 미래가 있다는 생활의 고귀한 진리를 확증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온 누리에 더욱 세차게, 더 높이, 더 멀리 울려퍼질것이다.

영원

김영근

1

이른봄의 상징인 양 산과 들, 길가와 담장들에 만발하였던 나리꽃과 살구꽃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빨간 복숭아꽃이 한창이다. 봄이 무르익는 계절이다. 보통강기슭에는 벌써 파란 잔디가 주단처럼 펼쳐지고 공원과 유원지에 우거진 수목들에는 연두색으로부터 녹색으로 질어가는 나무잎들이 제법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4월의 마감 일요일이 27일날 아침에도 전순일은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일찌기 집을 떠나 자기의 일터-만수대창작사로 발길을 다그치었다.

원칙한 키에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한 오십대 중엽의 책임일꾼인 그에게는 언제나 많은 일들이 겹쌓여있어서 어느새 한주일이 지나고 새 주일이 오는지 가늠할새도 없는듯싶었다.

연한 밤색의 잠바웃차림에 삼면차크가방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빠른 걸음을 다그쳐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탁상우에 가방을 놓고 팔걸이등받이의자에 앉으며 사업일지를 펴놓았다. 그때 《따르릉 따르릉》 전화종이 울리었다.

전순일은 일요일의 이른아침에 누가 벌써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가 하는 생각으로 천천히 송수화기를 들어 귀가에 가져다 대려는데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먼저 울려왔다.

《내 김정일입니다.》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장군님의 그 음성에서 전순일은 그만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움쭉 일어나서며 격동된 어조로 말씀울리었다.

《장군님, 만수대창작사 전순일 전화받습니다.》

《오, 전동무요. 일요일인데도 빨리 출근한걸 보니 일이 바쁜 모양이구만?》

《장군님, 제가 일을 잘 할줄 모르다보니 늘...》

《무얼 그렇게소... 그래 돌올타리제작사업을 계속 내밀고있소?》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제작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본격적인 단계라... 애로되는 문제가 많겠는데...》

《애로보다도 우리가 일을 잘하지 못해서 빨리 진척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왜 애로가 없겠소. 한번 나가본다면서도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오후 어느 시간에 좀 나가볼가 하오.》

《장군님,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돌조각공예사들도 나와서 일하오?》

《일요일이지만 오전 한것은 대체로 일합니다.》

《공예사 강형범동무도 나오겠지요?》

《그 동무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을 돌조각제작단에서 보내고있습니다.》

《나이기도 많은 동무인데 무리하지 않도록 책임일꾼들이 보살펴줘야겠소.》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형범동무도 만났으면 하오.》

《장군님, 알았습니다.》

《...》

장군님께서 말씀을 끊으시었다.

전순일은 송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고서도 의연히 감격의 파도가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드디어 장군님께서 나오시는구나! 그 돌올타리를 두고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으면 그리도 관심을 자주 돌리시고 오늘은 여기에까지 나오시는 것인가!)

등반이결상에 조용히 앉은 전순일은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의 울타리문제를 두고 관심해오신 수많은 사실들중에서 자기가 직접 당하였던 일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것이였다.

2

주체85(1996)년 4월 15일, 이날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두번째로 맞는 수령님 탄생일이였다. 이날아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마다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시던 그 심정

그대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였다. 그때 장군님을 모시고 동행한 일꾼들속에 끼였던 전순일은 장군님의 모습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이의 사색세계를 력력히 감수하며 뒤따랐다.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립상앞에 정중히 인사를 드린 다음 한 일꾼이 승강기로 안내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승강기를 마다하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백수십개의 대리석계단을 한단 두단 돌아오르시여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로 들어서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신 다음 오래도록 수령님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무거운 생각을 이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머나먼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여 피곤을 푸시려고 방금 깊은 잠에 드신것만 같으시였다. 지금도 심장이 고동치는것만 같고 맥박도 순조로운것만 같았다. 장군님께서 《수령님》 하고 부르기만

하시면 수령님께서는 《아, 또 왔소?》하고 그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반겨하실것만 같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4월 15일, 이날 아침까지 장군님께서 여기에 오시기를 수십번도 넘지만 매번마다 수령님과 귀중한 말씀을 나누신것으로 생각되시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명절날이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실 때나 현지도도를 떠나실 때면 정해진 일과처럼 의례히 수령님께 오시여 무언의 대화를 오래도록 나누곤하시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수령님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언의 대화를 나누시었다. 그러시고나서 다시한번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신 다음 홀에서 나오시었다.

궁전밖에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근 2년사이에 새롭게 꾸려지고 다듬어지고 보강된 모든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살펴시며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러시던 장군님께서는 궁전둘레를 빙 둘러싸고있는 쇠울타리와 경간들을 오래도록 굽어보시며 머리를 몇번 좌우로 저으시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이 울타리가 어땠습니까?》 하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물으시었다.

《궁전의 안팎이 눈에 띄게 잘 꾸려지니 울타리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인민들의 반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자기네가 울타리를 맡겠다면서 벌써

들을 만들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말씀올리었다.

《그렇습니까. 전순일동무?》

장군님께서는 동행하는 일군들의 맨 뒤에 서있는 전순일을 앞으로 부르시며 물으시었다. 이때야 전순일은 자기를 이자리에 불러주신 장군님의 의도를 가늠하며 그이앞으로 다가갔다.

《저, 군중의 희망도 그렇고 우리들의 심정도 그래서...그러나 아직 도안을 다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순일은 벌써 새 울타리를 두르지 못한것이 자기의 책임인듯 자책감에 잠겨 송구스레 대답올리었다.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확실히 울타리가 새로 꾸린 궁전과 조화롭지 못합니다. 원래 이런 쇠울타리는 우리 식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식 울타리로 잘 해봅시다.》

다. 새 울타리도안을 빨리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긴요한 새 부락을 비로소 하시는듯 전순일에게 말씀하시었다.

《머칠내로 완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순일은 새 명령을 받은 병사의 자세로 대답

올리었다.

《다른 단위들에서 만들고있다는 도안들도 다 종합해주면 좋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당중앙위원회 일군에게 말씀하시었다.

《알았습니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도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의 전모와 주변일대를 다시한번 오래도록 굽어보시며 깊은 생각을 이으시다가 동행한 일군들과 마주서시여 좀 갈린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이렇게 잘 꾸렸습니다. 이제 울타리까지만 잘 둘러세우면 세계만방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훌륭한 궁전으로 될것입니다. 울타리를 잘 도안해서 훌륭하게 만들어봅시다.》

장군님의 시선이 전순일에게 쏠리시었다.

《!!!》

전순일은 눈굽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새 울타리에 대한 무겁고도 가슴 벅찬 책임감을 안고 창작사로 돌아왔다.

다음날부터 울타리도안을 완성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져서 며칠내로 두가지 도안이 준비되였다.

한가지 도안은 천연화강석을 몇십톤씩의 통돌규격으로 다듬어서 안팎에 소나무와 학을 부각하여, 궁전을 빙 둘러막는 《부각안》이고 다른 한가지는 천연화강석을 다듬어 안팎에 날아가는 학을 세마리 또는 네마리씩 조각하고 학이외의 부분을 모조리 깎아내려 공간을 이룩함으로써 밖에서는 안을, 안에서는 밖을 다 볼수 있게 된 《투각안》이였다.

두가지 도안중 어느 안을 1안으로, 어느 안을 2안으로 보고드리는가 하는 문제때문에 논의가 격렬했다. 그중에서도 돌조각제작단의 공예사 강형범은 기어이 《투각안》을 1안으로 보고드리라고 주장했다. 강형범으로 말하면 한평생을 돌조각으로 살아온 유능한 공예사이고 나이도 예순이 지난 백발머리의 인민예술가인데다가 굵직한 주름살이 내천자를 그린 이마밑에서 언제나 매눈처럼 반짝이는 그 시선으로 하여 누구도 소홀히 대할수 없는 기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각안》을 1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들 나름으로 논거가 강경하였다. 이러한 때 책임일군의 립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것인데 전순일이 《부각안》을 1안으로 동의함으로써 《투각안》은 2안으로 보고드리였다. 다른 기관들에서도 여러가지 울타리도안들이 보고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때로부터 한달이지나도록 장군님의 결론이 나

오지 않았다. 혹시 두가지안이 다 보류된것이나 아닌가 하는 실망감과 불안속에서 다시 한달이 지난 어느날 전순일은 장군님으로부터 인민예술가인 공예사 강형범과 함께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전순일과, 강형범은 들먹이는 가슴을 억제할수 없었다. 여러 단위들에서 수많은 율타리도안들이 보고되었다는것을 알고있는 그들로서는 한나라의 명예를 걸머쥐고 국제경기에 나서는 선수와도 같은 그런 흥분, 그런 긴장에 휩싸여지는것이였다. 두가지 도안이 다 부결되지만 않겠는지... 어느 한 안이 통과되는 경우라면 1안이겠는지 2안이겠는지...

키가 흰칠하고 주름살이 있는듯없는듯한 넓직한 얼굴에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전순일과 작은키에 박달방망이처럼 단단한 몸집과 류달리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있으나 이미 굵은 주름살이 잡힌 얼굴에 술많은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얀 강형범은 똑같이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장군님의 연갈색 탁상 원천에는 수십종에 달하는 율타리도안과 그에 대한 설명서들이 큰더미로 쌓여있고 탁상 오른쪽에는 《우리 나라의 명승고적도감》과 《세계명승고적도감》을 비롯한 각종 도감들과 고적유물화첩들이 두무지나 쌓여있었다. 그것만으로써도 장군님께서 율타리도안을 여태까지 결론하시지 못한 상징이 직감적으로 느껴졌고 금수산기념궁전의 율타리 하나를 위해서만도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력력히 가슴할수 있었다.

《!!》

전순일은 스스로 솟구쳐오르는 감동으로 하여 눈시울이 저절로 후터워지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전순일과 강형범을 탁상 가까이 오라고 손길로 부르시고는 도안무지에 시선을 보내시며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여러 단위들에서 기안한 율타리도안들을 몇번씩 보았는데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더 잘 모시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력력히 반영되어있습니다. 그중 동무네가 제기한 두가지 도안에 대해서 좀 의논하자고 불렀습니다.》

장군님께서 도안무지 맨우에서 만수대창작사가 작성한 두가지 도안을 따로 갈라내여 탁상가운데서 펼쳐놓으시며 물으시였다.

《동무들이 <부각안>을 1안으로, <투각안>을 2안으로 제기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문제구나.)

순간 전순일은 저오기 긴장해져서 장군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시였을 도감무지들을 다시 한번 일별하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자책감에 잠겨 확신성없는 어조로 피염피염 말쑤

올리였다.

《장군님, 저희들속에서도 강형범동무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은 <투각안>을 1안으로 주장했고 또 다른 동무들은 <부각안>을 1안으로 주장했었습니다. 책임일군인 저로서는 두 안을 다 좋다고 보면서도 <부각안>이 중량감도 더 있어보이고 특히는 제작기일이 훨씬 빠를수 있다고 생각해서 1안으로 정했습니다.》

전순일은 장군님의 안색을 살피였다.

장군님께서 조금도 안색을 달리하심이 없이 한동안이나 깊은 생각을 이으시다 강형범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며 말씀하시였다.

《형범동무가 <투각안>을 1안으로 주장한 의도를 말해보시오.》

강형범이 장군님의 탁상에 펼쳐져있는 두가지 도안중 《투각안》에 손길을 보내며 설명했다.

《널직널직한 공간들이 형성되어있는 투각으로 율타리를 세워야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궁전을 들여다볼수도 있고 또 수령님께서도 율타리밖에서 오고가는 인민들과 풍경들을 내다보실것만 같은 생각이어서 1안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여러 나라 명승고적을 많이 돌아본 저의 소견으로서는 우리 수령님의 궁전은 들여다볼수 없는 막힌 율타리로 할것이 아니라 잘 들여다볼수 있는 트인 율타리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설명을 끝낸 강형범은 두손으로 술많은 은빛머리를 한번 쓸어넘기고는 자세를 곧바로 가지며 장군님의 고견만을 기다린다는듯 그이의 안색을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 비로소 반면에 미소를 지으시며 전순일과 강형범에게 믿음어린 시선을 보내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제기한 두가지 안이 다 천연화강석 재료에 기초한것이 좋았습니다. 우리 나라 천연화강석은 그 질감이 아주 좋고 원천도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명승고적들을 개진확장할 때마다 이 화강석을 많이 쓰도록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좋아하시던 돌로 율타리를 기안한것이 좋았습니다. 나는 이 두가지 도안중에서 2안으로 제기된 <투각안>을 비준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강형범동무가 옳게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탁상우에 펼쳐졌던 두가지 도안중에서 《부각안》을 무드기 쌓여있는 도안무지에 다시 올려놓으시고 《투각안》을 탁상 가운데에 활짝 펴놓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이 제기한 1안대로 통돌에 소나무와 학을 부각해서 4메터반이나 되는 높이로 궁전을 둘러막아놓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궁전도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안으로 제기한 이 도안대로 투각을 해서 안팎이 서로 보이게 해야 좋습니다.

동무들이 제기한 이 도안에 대한 설명서에 의하면 울타리를 이루게 될 한쪽한쪽의 돌면에 안팎으로 세마리 또는 네마리씩의 날고있는 학을 조각하고 학이외의 부분을 모두 깎아내는 방법으로 공간을 이루게 되어있는데 그 조각공정이 높은 공예기술과 함께 많은 로력과 시일을 요구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야 학의 형상이 뚜렷해지고 좀 먼데서 보아도 학의 모습을 알수 있을것이고 궁전의 안팎이 서로 잘 보여서 탁 트인감을 줄것입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영원히 잘 모시기 위해 만년대계의 세계적인 궁전을 꾸리고 있는만큼 반드시 이 안으로 하자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꼭 움켜쥔 주먹을 흔들어보이시며 예지로 빛나는 시선으로 전순일과 강형범을 정깊이 마주보시였다. 장군님의 그 억양, 그 손놀림, 그 시선에는 전순일, 강형범을 비롯한 만수대 창작사 일군들과 공예사들에 대한 다함없는 믿음과 기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이 순간 전순일은 공예사 강형범에 비하여 책임일군인 자기의 존재가 어느 정도 뒤전으로 밀리우는것 같은 부끄러운 감정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한찰나일뿐이고 강형범과 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생각할줄 아는 그런 용예사가 있음으로 하여 자기네 창작사가 울타리도안을 비준도 받고 제작도 맡게 되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그만큼 백발의 인민예술가 강형범이 보옥처럼 귀중히 여겨지고 포옹하고싶도록 고마왔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비준해주신 2안으로 곧 울타리제작에 착수하겠습니다.》

전순일은 저으기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올리고는 《투각각》이 비준되는 경우를 녀두에 두고 협의해놓은 사업조직을 상세히 말씀드리였다.

《음, 좋은 방도들도 많이 생각해가자구있구만.》

이렇게 수공의 뜻을 표시하신 장군님께서서는 긴요히 하고싶으셨던 긴 말씀을 하시려는듯 자신께서 먼저 탁상앞의 팔걸이 등받이의자에 앉으시여 담배 한대를 피워드시고는 전순일과 강형범이도 앉으라고 쏘파를 가리키시였다.

전순일과 강형범은 이제 장군님께서 울타리제작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것이라는 예감을 가지며 쏘파에 앉았다.

《울타리제작은 높은 공예기술과 방대한 로력을 요하는 일인만큼 시작부터 잡도리를 잘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피워드시였던 담배가치를 재털이전에 놓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울타리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늘이 낸 우리 수령님의 궁전을 꾸린다는 높은 충성심과 지성을 다 기울이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에 대한 잊을수 없는 회억

을 더듬으시는듯 또 한동안 혼자생각을 이으시다가 절실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정말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십니다. 력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기적같은 사실들이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습니다.》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 신화로만 전해오던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우리 수령님시대에 와서 실재한 인물로 그 유골이 립증되고 단군릉이 크게 건설되었습니다. 동방의 강성대국이었던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도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 고려국의 시조 왕건도 모두 수령님시대에 과학적으로 립증되고 왕릉이 확장 재건되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을 정말로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우리 민족이 살아온 력대 조상국들의 국장(나라의 도장)이 모두 수령님 손에 들어온것만 보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동무들도 다 알고있지만 조선봉건왕조 500년의 력사는 수도를 서울로 정하고 흘러왔고 거기서 왜놈들의 강도적압력을 받아 나라의 이름조차 빼앗기고 식민지노예로 되었습니다.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강탈하다보니 국장을 넘겨받을수 없었으며 그래서 그 국장을 찾아내려고 갖은 발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장은 애국적인 후대들의 손에 감추어져있었는데 해방후 서울의 어느 《대통령》의 손에 들어간것이 아니라 평양에 계시는 수령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918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운 통일국가-고려국의 국장과 시조왕 왕건의 족보도 1천여년만에 우리 수령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력사학자들은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도 우리 수령님은 새 조선의 임금으로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감탄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존경과 애국애족의 덕망에 왕씨가문의 후손들도 감동의 눈물을 지으며 1천여년의 력사를 가진 고려왕조의 족보와 국장을 내놓았으니 수령님은 한순간에 천여년전의 보물을 찾아내시는 축지법과 축지법을 다 지니신, 그야말로 하늘이 낸분이시라는것이 분명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실례는 또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해외에 나간 독립운동자들이 다른 나라 조계지에 상해림시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의 명의로 가지고있던 국장도 수령님 손에 들어왔습니다. 상해로불 이국의 여러 곳을 거쳐 해방후 서울에 이르기까지 곡절많은 행로를 겪어오면서도 그 국장만은 자기 품에서 한시도 떼놓지 않던 김구가 1948년 남북련석회의때 들어와서 우리 수령님의 진정한 애국애족상과 한없이 높으신 덕망에 감심한 나머지 그 국

장을 우리 수령님앞에 내놓았던것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그런 국장이 우리에게 필요없으 그냥 가지고 나가라고 권고하시였으나 김구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민족사에 이런 인장도 있어했다고 보관이라도 해주실분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기에 이렇게 맡깁니다.>하고 기어이 내놓았습니다. 수십년간 반일애국운동을 하면서 팔나곡절 많은 인생체험을 쌓은 김구도 우리 수령님만은 하늘이 낸 애국애족의 화신이라 는것을 절감했던것 같습니다.

이렇듯 500년간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있었던 조선봉건왕조국가의 국장도, 천여년전에 개성을 수도로정하고 세워졌던 고려국의 국장과 왕의 족보도, 지어 해외에 세워졌던 립시정부의 국장까지도 평양에 계시는 수령님 손에 다 들어왔으니 우리 수령님을 새 조선의 수령으로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 확신에 넘치신 시선으로 전순일과 강형범을 번갈아보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

전순일과 강형범은 뜨거운 공감으로 하여 눈굽을 적시며 쓰파에서 일어섰다.

《이처럼 위대한신 수령님의 궁전에 두를 돌올타리인것만큼 확대경으로 원석에 자그마한 실금이라도 없는가를 검토하는 일로부터 마감조각공정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지성을 다 바쳐 만들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크나큰 믿음과기대가 실린 손으로 전순일과 강형범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였다.

(아!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은 영생하신다!)

전순일과 강형범은 저절로 솟구치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안고 창작사로 돌아왔다.

그날로부터 돌올타리제작사업은 만수대창작사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진행되였다.

어느덧 한겨울이 지나고 금년 2월말에 이르러 돌올타리는 여섯짝이 만들어져서 두 경간의 견본이 세워졌고 그 사실이 장군님께도 보고되였다.

지난 3월의 어느 금요일로동일에 전순일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나가 식수사업을 하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그들의 작업장곁에 차를 세우시고 전순일을 부르시였다. 너무도 예상외의 장소에서 너무도 뜻밖에 당한 일이여서 전순일은 흠뻑은 손에 봄내의바람으로 장군님앞에 달려갔다.

《동무네가 돌올타리 두 경간을 견본으로 만들었다는데 어디에 세워놓았소?》

장군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신채 전순일에게 물으시였다.

《장군님, 우리 창작사 돌조각제작단 마당가에 세워놓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거기로 나오는 속심이구만?》

장군님께서 전순일이네의 엉뚱하다는듯 시늉을 해보이시며 그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시였다.

《장군님,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알겠소, 오늘은 바빠서...》

하고 장군님께서 차문을 닫으시더니 운전대를 조종하시며 떠나가시였다.

그날 창작사로 돌아온 전순일은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책임일군들에게 먼저 전달하면서 바쁘신 장군님께서 나오실 때를 기다리기만 할것이 아니라 돌올타리제작안을 앞당겨 완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결의를 보고드리자고 협의했다. 그리하여 금년말까지 완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의서를 올리였다. 그런데 할달이 가까와오는 오늘까지도 그 제의서는 비준되지 않았다. 전순일은 금년말까지라는 그 기한이 장군님의 기대와 맞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일가 래일일가 장군님께서 나와주시기를 간절한 기대와 흥분속에 기다려왔다. 그날이 바로 오늘로 된것이다. ...

3

전순일은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우선 돌조각제작단에 전화를 걸어 강형범을 빨리 보내달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장군님을 맞이하는 첫순간에 올릴 인사말로부터 여러가지 경우에 대답해야 할 일들을 예상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단어들을 생각해보았다. 전당, 전국, 전군의 모든 사업을 한몸에 안으신 그이께서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여기로 나오시는데는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세뉘이 되는 7일 8일전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의 새 울타리까지 완성하고싶으시여시길이라고 전순일은 생각하였다. 그리고보면 장군님께서 애로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시던 말씀과 공예사 강형범을 꼭 만나시겠다고 하시던 말씀도 새로운 의미로 인식되였다. 그래서 전순일은 돌올타리제작을 최대한 앞당기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며 수첩에 적어넣었다. 장군님께 다 말씀드리여 보장받을수 있는것 보장받고 그에 따라 7월 8일전으로 완성하겠다는 결의도 다짐으로써 장군님께서 시름을 놓으시도록 하자는 생각이였다. 그가 한가지 두가지 수첩에 적어나가는데 때마침 공예사 강형범이 작업복차림으로 들어섰다. 한손에 보안경과 마스크를 쥔채 눈썹이며마에 돌가루가 묻어있는것으로 보아 이른아침부터 조각작업을 시작했던 모양이다.

《장동무, 기쁜 소식 전하자고 불렀습니다.》

전순일은 긴상을 사이하고 맞은편 걸상에 강형범을 앉으라고 이르고는 장군님으로부터 전화받은 내용을 전달했다.

《장군님께서요?!》

강형범은 솟구치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앉았던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서며 눈곱에 물기가 어리는 것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강동무의 이름을 두번이나 부르시고 오후에 나오시여 꼭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순일이 이미 전한 말을 다시 반복했다.

《아, 장군님의 믿음은 것처럼 크고 뜨거우신데 우리가 세워놓은 울타리건본이 장군님께 만족을 드리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형범이 전순일의 맞은편 의자에 다시 앉으며 진실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 장군님의 지도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면 7월 8일전으로 울타리를 완성하겠다고 말씀드려야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까?》

전순일은 자기나름으로 생각한바를 보다 상세히 말하고나서 형범의 의견을 듣고싶다는듯 수첩에 적은것들을 내보였다.

강형범은 술많은 은발머리나 이마의 굽직한 주름살과는 대조적으로 류달리 반짝이는 눈으로 수첩에 적혀진 항목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여러가지 계산까지 하여보더니 《이런 조건이 다 보장되고 온 창작사가 다 달라붙으면 지금보다 몇배의 속도가 날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건본품의 예술적질에 대한 장군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만큼 기일문제는 서둘러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조언을 주는 것이었다.

《그럼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면서 기일문제는 생각해보기로 하고 강동무도 장군님 맞이할 준비로서 옷도 갈아입고 면도도 하고 점심식사도 빨리 하고 내 방으로 다시 와주시오.》

《알겠습니다.》

강형범이 나기자 전순일도 사무실의 한쪽 구석켠에 세워져있는 말코지에서 제친형진곤색양복이며 와이샤쓰며 넥타이들을 벗겨내리여 갈아입고 드문드문 흰오리가 섞인 머리로 단정히 빗어넘기었다.

4

《그새 건강들했소?》

연한 밤색 긴소매 잠바옷을 입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자 며칠만에 다시 만나는 자별한 친구를 대하시듯 먼저 이렇게 물으시며 전순일과 강형범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시었다. 그바람에 전순일은 준비했던 인사말은 전혀 올릴수 없게 되고 장군님의 물으심에 대답부터 해야했다.

《장군님, 우리는 모두 건강합니다. 오늘같은 일

요일에도 쉬지 못하시구...》

《됐소 됐소. 동무들이 건강하면 됐소.》

장군님께서서는 전순일의 뒤말은 필요없고 건강들하다는 그 말만이 귀중하다는듯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수정처럼 맑게 정화시켜주는 그 부드럽고 매혹적인 웃음을 날리시었다.

《장군님, 돌올타리건본이 세워져있는데까지는 좀 멀기때문에 차로 가셔야 합니다.》

전순일은 장군님의 시간을 아껴드려야 한다는데에 몰두한 나머지 장군님께서 다시 차에 오르시기를 권고했다.

《그렇게 먼데부터 먼저 갈 필요가 있소? 그새 동무들이 새로 창작한 그림도 보면서 거기까지 갑시다.》

장군님의 어조에는 마치 오늘 하루를 여기서 보내기라도 하실듯한 여유가 풍기었다.

《알았습니다.》

전순일은 장군님을 따라걸으며 그이의 말씀 한마디, 손길 하나라도 놓칠세라 모두 포착하려고 애썼다.

장군님께서 조선화창작단을 비롯한 여러 창작단들을 거쳐 미술작품종합전시장에 대한 지도까지 마치시었을 때는 웅근 세시간이 지나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고있었다.

여기서부터 돌조각제작단까지는 거리가 있으므로 장군님께서 차로 가시도록 권고했으나 그이께서는 《이 좋은 봄날에 일부러라도 걸어볼판인데 구내에서까지 차를 타고 다니겠소.》 하고 가벼운 미소로 만류하시고는 돌조각제작단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진록색으로 물들어가는 감나무잎들을 가벼이 흔들어주는 구내길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돌조각제작단의 입구에서 발길을 멈추시고 좌우 넓은 구내를 빙 둘러보시었다.

록음이 질여가기 시작하는 보통강쪽에 치우쳐있는 작업장에는 련이어 만들고있는 돌올타리의 원석들이 받침대우에 놓여있고 그앞의 마당가에 두경간의 돌올타리건본이 세워져있었다. 돌올타리한쪽의 넓이는 5.3미터, 높이는 4.4미터 두터이는 60센치미터 무게는 25톤으로서 세짝을 무어 한경간씩 여섯짝을 무어 두 경간을 세워놓은 것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화색을 지으시며 돌올타리앞으로 다기서시었다.

한경간을 이루고있는 세짝의 돌조각중에서 좌우두짝에는 세마리씩의 날아가는 학을, 가운데 한짝에는 네마리의 날아가는 학을 안팎으로 조각하고 학 이외의 부분을 모조리 깎아냄으로써 안을 들여다볼수도 있고 밖을 내다볼수도 있는 공간이 이루어져있고 그로 하여 학들도 더욱 두드러져보이었다. 얼핏 보면 그저 흰돌올타리인것 같지만 자세히보면 볼수록 우아하고 신비한 색소

가 뿔겨져나오는것의였다. 화강석의 천연색갈에서 환기되는 기상이었다. 기본은 흰색이면서도 아주 연한 푸른색광채가 발산되는것 같기도 하고 두터운 얼음덩어리에 해빛이 얼비칠 때 무지개빛이 발산되는것 같은 그러한 신비로운 감을 안겨 주기도 했다. 화강석을 확대경으로 보면 감실감실한 알갱이들이 무수히 섞여있는데 그것이 흰알갱이들과 천연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듯 신비로운 빛과 중량감을 더해주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돌올타리로 주체의 최고성지금수산기념궁전을 빙 둘러세운 광경을 상상해보시였다. 만민의 지성에 의하여 최근 3년간에 잘 꾸려진 궁전이 이 돌올타리로 하여 그 품위와 위용이 한층 두드러질것이였다.

《아주 좋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순일과 강형범에게 시선을 보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이 제기한 도안을 보면서 상상했던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도안으로 본 색은 어디까지나 색감으로 칠해진것이였다면 이 돌들은 자연그대로의 천연색이니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습니다. 무게도 있고 품위도 있고 고상합니다. 만년대계의 궁전에 어울립니다. 올타리라기보다 거창한 조형예술작품입니다. 이런올타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을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돌조각의 여러 부분들을 손바닥으로 끌고루 만져보시였다. 학의 부리와 눈, 다리와 날개부위들을 이리 쓸어만져보시고 저리 쓸어만져 보시기를 몇번이나 거듭하시였다.

《학들을 아주 우아하고 부드럽게 잘 형상하였습니다. 이 학들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한평생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면서 인민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너그럽고 인자하신 성품을 상징하는것 같아서 더욱 좋습니다. 돌조각으로 이렇듯 우아하고 부드러운 학의 모습을 형상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형범동무, 이리 좀 오시오.》

장군님께서서는 강형범을 가까이 부르시더니 그의 투박하고 거치른 손을 쥐어서 펴보시였다. 형범의 두손바닥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차돌같이 굳은 족살이 박혀있었다.

《이 손이 참으로 보배손입니다. 일반상식으로서는 인민예술가의 손이라면 붓끝같이 매칠하고 부드러울것으로 상상할수 있지만 공예사의 손은 한생을 망치, 정, 돌가루와 함께 부대껴왔기때문에 이렇게 투박하고 거칠고 족살로 차있습니다. 이런손으로 돌우에 이처럼 우아하고 부드러운 학의 모습을 형상해놓았습니다. 돌조각공예사들은 아주 힘든 육체적로동을 하는 로동계급인동시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들입니다. 공예사동무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해 주시오.》

장군님께서서는 강형범의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을 다시한번 힘있게 잡아주시였다.

《장군님!》

뜨거운 격정에 넘쳐 장군님을 우러러보는 강형범의 빛나는 두눈에 눈물이 찰랑찰랑 고여올랐는데 석양빛에 반사되어 금강석처럼 반짝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돌올타리건본본품의 전모를 다시한번 둘러보시고나서 전순일에게 물으시였다.

《이런 돌조각올타리 한짝을 완성하는데 로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처음에는 착암기, 망치, 정으로만 하다보니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강석톱전기정, 불칼 등을 쓰기때문에 몇십배의 능률이 납니다.》

《올타리제작과 관련해서 애로되는 문제가 있으면 말하시요.》

장군님께서 전순일과 강형범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시였다.

《저, 불칼을 만가동하려니까 고급휘발유가 더 요구됩니다.》

전순일이 수첩에 적어두었던 문제들을 말씀드리였다.

《고급휘발유? 그리고 또 무엇이 요구됩니다?》

《모든 돌고공기계설비들을 24시간 만부하로 돌릴수 있게 전기를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또 무엇이 요구됩니다?》

《올타리의 제작속도를 높이면 원석이 딸릴수 있는데 이 문제도 지장없이 보장받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무엇이 더 요구됩니다?》

《그외에는 더 없습니다.》

《왜 없겠소. 공예사들이 쓰고있는 보안경과 마스크는 좋은것이요?》

《괜찮은것입니다.》

《형범동무! 동무가 사용하는 보안경과 마스크를 좀 가져오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빨리 가져오라고 오른손을 가슴앞으로 몇번이나 당겨보이시였다.

강형범이 다급히 달려가서 자기가 쓰는 보안경과 마스크를 가져다 장군님께 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보안경과 마스크를 몸소 써보기도 하시며 여러모로 살피시더니 《비오는 날 보안경안에 안개가 서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

강형범은 그만 경탄의 웨침이 나갈번하였다. 비오는날 눈앞에 안개같은것이 끼여 몇번씩 닦아서 쓰곤했던 일이 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짐작이 가신다는듯 보안경과 마스크를 형범에게 돌려주시고는 전순일에게 시선을 보내시며 《돌조각공예사들에게 영양제는 공급합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전량을 다 공급하지 못하는 때는 좀 있지만 대체로 공급하고있습니다.》

《대체로라... <고난의 행군>시기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제기된 문제를 다시 한번 음미하시는듯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전순일과 강형범을 번갈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선 고급휘발유부터 보내주겠소. 비행기용휘발유로... 전기문제는 옆집처럼 어깨걸고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받아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안경과 마스크는 최상급으로 마련해서 보내주고 펄펄뛰는 송어도 몇천마리 보내주겠습니다.》

《장군님, 그정계만 해주시면 울타리제작속도를 몇배로 높여서 아버지수령님 서거 세뉘이 되는 7월 8일전으로 울타리를 다 완성해보겠습니다.》

전순일은 장군님의 사심없는 배려에 감격한 나머지 큰 결의를 말씀드리고싶었고 울타리의 질에 대한 장군님의 평가가 좋았으니 기일문제를 제기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말씀올리었다. 그리고는 장군님께서 매우 기뻐하실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이의 안색을 우러러보았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매우 신중한 안색으로 한동안 깊은 생각을 이으시더니《7월 8일은 이제 두달밖에 없는셈인데 그렇게 쉽게 결심하고 서두를일이 아닙니다.》하고 고개를 좌우로 저으시었다.

《은 창작사가 달라붙어 총돌격을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전순일은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리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오. 그러지 않아도 동무들이 울타리제작문제를 두고 지내

서두른다는을 내가 느꼈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을 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나와보니 더욱 그렇게 생각되오.》

《?》

전순일은 그만 놀라움에 잠겨 장군님을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돌조각제작단의 좌우 풍경과 울타리건본을 다시한번 자세히 둘러보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들도 알고있지만 수십톤씩 되는 돌을 다루어 투각으로 학을 세마, 네마리씩 안팎에 형상하는 조각과정이란 흙을 파제끼는 일처럼 로력만 많이 투자하면 폭폭 자리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높은 공예기술을 가지고 알심들여 해야 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최상의 지성과 심혈이 바쳐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우자는 울타리는 시간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 낸 우리 수령님을 영원히 더 잘 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기간문제에 지내 신경을 쓰면서 금년말까지 완성하겠다는 제의서도 제출하였기에 내가 보류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두달남짓한 기간에 완성하겠다는 말이 되게 않습니다. 돌조

각이란 조금이라도 서두르다가는 다 완성되었던 것을 아예 못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급성은 금물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돌울타리의 건본을 다시한번 손으로 쓰다듬어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나에게 보이기 위한 건본품은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이제부터 대량제작에 들어가서 기간목표까지 정해놓고 돌격식으로 하다보면 본의아니게타가 생길수 있는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원들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서시며 조용하나 절절하게 울리는 음성으로 다음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제작기일을 앞당기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바늘끝만한 티도 없이 잘하는것입니다. 아버지수령님을 천세만세 더욱 빛나게 모시기 위한 만년대계의 일인데 제작기일을 한달이나 두달, 반년이나 1년쯤 앞당기고 늦추는것이 무슨 큰 의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최상의 질, 최상의 예술적수준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회억하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가 다시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내가 이 울타리도안을 비준하던 날에도 만났지만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하늘이 낸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서 우리 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하신 수많은 기적적인 사실들과 그 거창한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의 수천만 인민이 찬탄하고있으니 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수령님 탄생일을 태양절로 길이 받들고 빛내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세계 최고의 성지로 잘 꾸림으로써 아버지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충효심을 대를 이어가며 파시할뿐아니라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세계만방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수산기념궁전의 옷이라고 할수 있는 이 돌울타리를 티 하나, 흠집 하나 없이 최상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바라시는 마음이 력력히 어린 시선으로 전순일을 지켜보시며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었다.

장군님의 최상의 믿음이 실린 그 시선과 손길을 받는 순간 전순일은 솟구쳐오르는 격정과 함께 장군님 뜻에 다 이르지 못한 자책감을 강렬히 느끼며 웅근 목소리로 대답올리었다.

《장군님, 장군님 뜻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순일의 그 대답이 비로소 마음이 드신다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다시 올라리건본앞으로 바싹 다가서시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돌올타리를 두고도 생각되는바가 더 있는데 전문가인 동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하고 전순일과 강형범을 손길로 가까이 부르시었다.

《?》

전순일과 강형범은 모든 문제가 다 선명한데 무슨 문제가 또 있을가싶은 의혹을 가지며 장군님앞에 가까이 다가섰다.

《전문가인 동무들이 좀 말해보시오. 이 우아하고 무게있는 돌올타리가 5천년이나 만년후에도 이모습 이대로의 면모를 보존하겠는가?》

장군님의 그 물으심은 순간적인 느낌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자료를 연구하시고 우리기 시작한 돌올타리를 두고도 많이 생각하신 문제라는것이 력력히 알리었다.

(5천년이나 만년후에도?)

전순일과 강형범만 아니라 수원들모두가 놀라운 시선으로 장군님을 우러러볼뿐 누구도 선뜻 대답올리지 못했다. 가슴설레이는 침묵속에 모두의 눈곱에 물기가 어리었다. 전순일도 강형범도 수원들중의 그 누구도 5천년이나 1만년후라는 실재적인 기한을 두고 이 올라리면모를 생각해본 사람은 없었던것이다. 설사 그 누가 그렇게 상상해보았다하더라도 이자리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답올릴만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오래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침묵을 깨치시며 다시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자료들에 의하면 명승고적에서의 세계적인 7대기적이라고 하는 건축물들도 수천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균열이 가거나 부식작용이 일어나고있으며 그 7대기적들중에서 첫손가락에 꼽힌다는 에짚트 피라미트만 보아도 금이 가고 돌이 길라지거나 부스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령님을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의 이 돌올타리도 5천년이나 만년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겠는가 걱정되어서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순일과 강형범 그리고 동행한 수원들의 생각은 어떤가고 물으시는 시선으로 일군들을 빙 둘러보시었다. 장군님의 그 말씀과 시선에 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한번 걱정예 휩싸였다.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잘모시자고 하시는 말씀에는 그 어떤 상징적인것이거나 념원적인것은 조금도 없고 완전한 의미에서 실재적인것이라는 강한 인식이 안겨왔기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도 여러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돌올타리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다는, 즉 5천년이나 만년후에도 변모되지 않을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어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싶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전순일과 강형범에게로 시선을 보내시었다. 그 시선은 오직 동무들이 대답하라고 하시는것 같았다.

그 시선이 이끌리듯 강형범이 장군님앞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그로서도 그 어떤 확신성있는 대답이 미리 준비되어있어서가 아니라 이자리에서는 그래도 자기만이 대답올려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스스로의 떠밀림에서였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께서 하시는 만년대계라는 말씀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돌올타리를 조각해온 사람이지만 이 올라리가 무한정 오래도록 변모되지 말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실지로 5천년이나 만년후에도 이처럼 무게있고 우아한 형식으로 서있을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있지 못했던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군님의 물으심을 받고 머리에 떠오르는 조건으로서는 우리가 제작하는 돌올타리는 5천년이나 1만년후에도 이 모습 이대로 서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로써입니까?!》

장군님의 안녕에 크나큰 희망의 광채가 번뜩이였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명승고적에서의 세계적인 7대기적이라고 하는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콜로세움, 알렉산드리아와의 등대, 영국의 스톤헌지, 이팔리아 배사의 사탑,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야쑤피야사원 등을 다 돌아본 사람이고 방금 장군님께서 폐중하신 에짚트의 피라미트도 두번이나 가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도 동무가 생각하는바를 듣고싶어서 오늘아침 전화로도 찾았댔소. 어서 계속하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이제야 이야기 나눌만하 상대를 만나시였다는듯 흥미있어하시며 그를 여겨보시였다.

《저의 소견에 의하면 세계적인 7대기적중의 첫손가락에 꼽힌다는 피라미트가 근 5천년이 되어오면서 부식작용이 일어나는데는 현세의 우리들로서는 얼마든지 피할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강형범은 술많은 백발머리와 주름진 이마밑에서 류달리 반짝이는 그 눈으로 장군님을 바라보며 투박한 두손으로 시늉을 하며 설명했다.

《웁소. 우리로서는 피할수 있는 약점을 바로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생각하셨던바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대비해보시려는듯 형범의 어조와 손놀림이 신경을 모으시였다.

《우선 그 피라미트는 최고 16톤으로부터 최하 2.5톤까지의 각돌로 250만개나 쌓아놓고 그 겉을 미장한것입니다. 아무리 돌가루로 미장했다해도

어디까지나 미장인것만큼 수천년의 풍운속에서 금이 가고 부스러지고 벗겨지는것입니다.》

《웁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장놀음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또 다른 약점은?》

《철기가 없고 마르까 높은 세멘트도 없던 5천년전이었으므로 16톤으로부터 2.5톤의 각돌 250만개의 무게를 변함없이 떠받들고있을만한 기초지반이 보장되지 못했을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일 큰 첫번째 피라미트의 원래 높이는 146메터가 넘었었는데 지금의 높이는 137메터인것으로 보아 9메터는 밑으로 내려앉았거나 사막의 흙모래가 날려와서 묻어버렸다는것을 의미하는데 그 파정에 250만개의 돌들의 균형이 차이나면서 버그러지는것으로 보았습니다. 》

《각돌들의 사이가 버그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게 추측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통돌자체가 짹짹 갈라지기도 하고 부스러지기도 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약점으로 볼수 있습니까?》

《장군님. 그것은 그 피라미트를 쌓는데 리용한 돌들이 우리의 천연화강석과는 대비할수도 없게 무른 회바위나 누런색모래바위이기때문이라고 봅니다. 회바위나 모래바위는 자르고 깎고 다듬기는 펍 쉽지만 그 굳기에서는 우리의 돌과 대비도 할수 없이 약합니다. 때문에 반만년의 풍화작용에 못견디여 갈라지기도 하고 부스러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형범의 이러한 설명에 장군님께서는 의연 호감을 가지고 들으시었는데 더욱 놀란것은 전순일이였다. 전순일은 강형범의 한마디한마디 말이 마치 전순일 자기를 대신해서 해드리는 말처럼 고맙게 여겨지고 강형범이 없었더라면 오늘같은 날 장군님앞에 누가 저런 설명을 올릴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만큼 강형범이라는 작달막한 백발머리의 공예사가 전에없이 돋우 보이고 존경이 갔다. 지금 이시각에 돌이켜 생각하니 아침에 사무실에서 마주앉았을 때 돌울타리의 왕성기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던 강형범의 말도 새로운 의미로 되새겨지는것이였다. 전순일의 이러한 심리를 간파하신듯 장군님께서 전순일에게 시선을 돌리시며 물으시였다.

《전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형범동무의 말이?》

《장군님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돌울타리는 만년이 가도 수만년이 가도 변함없으리라는 신심으로 하여 더욱 힘이 납니다.》

《음 그런데 형범동무, 피라미트의 통돌이 갈라지거나 부스러지는데는 돌자체가 무른 약점에도 기인되지만 다른 원인도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레하면 확대경이나 현미경이 발전되지 못했던 5천년전 사람들이 육안으로만 돌을 보고 깎아서 쌓다나니 눈에 안보이는 실금이 가있는 돌도 더러 쌓았기때문에 그런 돌이 먼저 갈라지거나 부스러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장군님, 정말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겠습시다!》

강형범이 탄성을 질렀다.

《내가 돌울타리 도안을 비준하던 날 원석을 확대경으로 잘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실금이 있는건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가봐서였습니다. 동무들이 앞으로도 확대경에 의한 원석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전순일이 대답올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강형범에게 몸을 돌리시며 재차 물으시였다.

《그러니까 형범동무, 우리가 제작하는 천연화강석울타리는 5천년이나 만년이 아니라 수만년이 지나도 변모없다고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장군님, 그렇습니다.》

《형범동무, 고맙습니다. 힘이 되는 조언을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활짝 웃음을 지으시였다. 한껏 무르익는 봄향기속에 무한대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가닥의 시름도 없으신듯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서계시는 장군님의 그 모습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이 그대로 겹쳐오는것만 같았다.

(아, 수령님 계시여 장군님 계시고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은 천세만세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나게 영생하신다!)

전순일과 강형범은 가슴속 깊은곳에서 솟구쳐오르는 탄성을 속으로 뇌이며 감격의 눈물이 고여오르는 눈으로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만민의 축복

무함마드 알리 아브 짜리리

사나운 눈보라와 비바람도
폭풍도 소리를 멈추라
비단결같은 잔잔한 물결도
파도쳐설레이는 황금이삭들도
정원의 아름다운 화초들도 춤을 추자

태양을 따르는 행성계의 만물이여
기쁨에 넘쳐 가장 아름다움을 노래하자
절망과 암흑을 물리치고 서광을 맞는
남녀로소 모두 기쁨에 넘쳐
수놓은 고은 옷 떨쳐입고 어절싸 좋아 춤을 추자
존귀하고 젊으신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기념일을 노래하자
그 기쁜 노래하며 춤을 추자

그이의 탄생
그것은 어둠의 장막을 가시며

봄언덕으로 달려가는
세계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네
그이의 사상과 리론이 담긴 저서들과 출판물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로선을 주네
그이의 정력적인 활동과 탐구는
세인의 희망과 포부로 꽃피여
그들의 찬양과 사랑을 받네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성은
굳게 닫긴 천만개의 대문을 열어
만민을 락원으로 인도하네

만민은 모든것을 그이께 의탁하고
그이께 모든것 맡기네
그이르 따르고 존경하는 만민의 념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만수무강
그이의 만수무강을 간절히 축원하네
(필자는 수다시인동맹 부위원장임)

백두산

차영도

삼천리를 뻗어내린 산줄기를
내 거인마냥
한손에 들어올린다면
온 지구가 뿌리처럼 잇달아
통채로 들릴듯만싶은 산

너는 그렇듯
그 지심깊은 혈맥이
너의 그 붉은 녀
온 세상을 굽어보고있다

자부하나니
이 나라 인민은 너를 우러르며
백두의 밀림처럼 억세게 자라고
아이들은 너를 거울처럼 마주서서
붉은 넥타이를 단정히 매는
내 나라 내 조국-

그래서 오르면오를수록
가슴속 생각이

매부리를 쌓는 산
내리면 걸음걸음
가다듬는 신념의 산악을 이루는 산

산이여, 산이여
선렬들의 더운피 식지 않는 산이여
해쫂는 정일봉마루에서
혁명의 붉은기인양
영원히 불노을을 걸지 않는 산이여

나는 지금
불타는 해돋이를 장엄히 떠인
너의 거룩한 매부리앞에서
우리 혁명의 리정표를 읽는다
우리의 최후승리의 그날이 언제인가를
마음속깊이에 선명히 읽는다

하여 내 항시 마음 오르는 산
그러면 언제나 내 조국의 앞날이 내다보이는 산
백두산, 백두산, 내 나라의 운명의 산아

빛을 뿌리는 글발

묘향산 상원동굴안의 거의 막바지에 오르면 룡연폭포우에 하늘에서 물기둥이 내리쏟치는듯한 천신폭포가 있다.

이 천신폭포의 절벽에는 《일심단결》이란 글발이 새겨져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쓰신 이 글발은 새겨진지 얼마되지 않지만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그 전설은 언젠가 아메리카에서 온 해외동포목사가 묘향산을 돌아보고나서 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교장사람들속에서 즐겨전해지고있다.

그 목사의 고향은 평안북도 녕변군 복신현면 하향동이다. 그러니 오늘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바로 향산군 향산읍이 그의 고향인것이다.

일찍 량친을 잃고 의지가지랄데 없는 교아가 된 그는 어린 나이에 묘향산 보현사의 불목하니(절간에서 여러가지 잡일을 하는 아이)로 있었다고 한다.

그 시절 묘향산의 곳곳에 수백개가 넘는 암자들에 심부름을 다니노라고 안가본데가 없는 그에게 있어서 이 산은 고향과 조국에 대한 표상의 전부였다.

그러니 묘향산에 대해서 그만큼 아는 사람도 그리 쉽지 않을터인즉 그는 발걸음을 선뜻 떼지 못하였고 걸음마다 남다르게 감회가 깊었다.

더우기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몇수십번 변한다 한들 이렇게 변할수 있으랴 하는 놀라움이 더 컸던것이다.

풀짜기마다에서 들려오는 등산객들의 노래소리며 티없이 맑은 웃음소리 또한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것이니 분명할사 저이들은 모두 선남선녀들이요 여기는 선경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내 한생 갖은 고행을 다 겪어 저도모르게 불교에서 말하듯 도를 닦아서 극락세계에라도 온것이 아닐가?

아서라. 극락이면 어떻고 선경이면 어떠랴. 내 천당에 간다 한들 이처럼 마음이 흥떠워지고 기쁠것 같지 않은즉 삼천고행 만사성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상원동에 오른 목사는 룡연, 산주 폭포를 올려다보며 지평이를 짚고선 채 점도록 깊은 생각해 잠겨있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전 묘향산은 찍어넘긴 나무와 그루터기로 하여 어수선했었다. 게다가 산

자유국에서 들리는 목탁소리와 야삼경의 접동새 소리는 사람들의 심경을 한껏 더 구슬프게 하였다.

이런 묘향산을 보고 이국으로 떠나간 목사이니 그가 놀라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깊은 감회에 잠겨 좀처럼 걸음을 떼지 못하던 그는 늘어놓은 쇠바줄을 부여잡고 한걸음 한걸음 인호대에 올랐다.

한굽이를 돌아서자 그는 웬일인지 바위를 올려다보며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바위우에 새긴 글을 떠듬떠듬 읽어내려갔다.

거기에는 조선로동당을 노래한 시가 새겨져있었다.

원래 이 벼랑턱에는 《나무아미타불》이란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그 글은 그가 불목하니로 있던 그이전시기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 글이 언제 새겨졌는지는 모르나 퍼그나 오래전에 새겨진것만은 사실이었다.

그의 머리엔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이 글발에 대한 전설이 떠올랐다.

옛날 칠보극락세계를 보살피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묘향산 상원등을 자기네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고 한다.

칠보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억국토(대단히 멀다는 뜻)를 넘어가면 있는데 거기엔 집도 금과 은, 유리, 진주 등 일곱가지 보석으로 되어있고 물도금모래우에서 솟아나 일곱가지 맛이 난다고 하였다. 누구나 다 평등하고 즐거움만 있다는 이 극락세계는 사람이 죽은 다음 령혼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살핀다는 부처가 상원동 인호대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여 그곳을 부처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는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는 상원동 룡연, 산주 폭포우에 상원암이라는 절을 지어놓고 이 절을 칠보단장한 《금방천궁》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안에는 관세음보살을 놓고 인호대 오름길에는 극락세계인 여기서 자기에게 운명을 맡기라는 뜻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을 주렴처럼 크게 새겨드리워놓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바위에 새겨진 이 글은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간판과도 같은것이였다.

한편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백옥경에서 땅세

상을 굽어보다가 묘향산의 상원동을 보고 그 성지가 너무도 황홀하여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고 한다.

법왕봉 남쪽 인호대에는 천신폭포가 비단필을 드리우고 그밑에는 룡연, 산주 폭포가 자매폭포를 이루어 합수되니 상원동은 명실공히 신선이 살수있는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옥황상제는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옳지, 저곳이야말로 언제나 즐거움만이 있고 고통과 질병이 없어 죽음도 없는 선경이니 우리 신선들이<선단>을 먹고 장생불로할곳이로다.》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며 편전에서 대상으로 나오다가 그만 아연해서 그자리에 툭 멈춰섰다.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아미타불세상이라는 명호를 달고 상원암 암자에 관세음보살을 보내지 않았는가.

옥황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인호대 바위절벽에 새긴 글발을 읽었다.

《나무아미타불》

옥황은 급히 선관과 신선들을 불러들였다.

《내 그대들을 부른것은 한가지 일을 의논코저 함이다. 저 속세의 묘향산 상원동이 부처의 세상이라고 거기에다 <나미아미타불>이라는 명호까지 달았은즉 어이없는 일이다. 부처세상이라면 극락세계라는것인데 어떻게 속세의 상원동이 10억 국토나 먼곳에 이는 아미타불세상으로 갑자기 변하겠느냐? 대자대비하다는 부처님이 어찌 이런 이럴수 있겠는고. 참으로 유감이로다.》

백옥경에서는 옥황상제를 중심으로 신선들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이윽고 상제는 령을 내리었다.

《저 상원동세상이 어찌 인생의 령혼이 복락하는 극락이 되였는고? 그야말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어서 서둘러 저 세상에 내려가 우리 신선들이 사는 지상선경을 꾸릴것이로다.》

그러자 그중 나이많은 백발의 신선이 옥황의 슬하에 엎드려 상주하였다.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상원동이 부처세상이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줄 아옵니다. 소신이 곧 하강하여 선경계를 꾸리겠나이다. 소문에는 저 세상에서 봉래 양사인이란 사람의 필체가 명필로 소문이 높으니 그의 재주를 빌어 선경에 명패를 큼직히 달고 우리 신서늘의 세상으로 못박아놓나이다.》

그대가 나의 근심을 덜고 선계를 기쁘게 해주기 바라노라.》

옥황은 매우 만족하여 백발신선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그를 상원동에 내려보내었다.

백발신선은 상원동에 내려와보니 그 경계 하늘에서 보기보다 몇백배 더 아름다운지라 대번에 열이 나갈 지경이었다.

세줄기 폭포수의 굽이침은 지심을 진동하고 구름안개는 끝안에 바다를 이루고 칠색무지개는 옥경으로 잇닿아있었다.

참으로 널유천지였다.

백발신선은 봉래 양사언을 찾아가 그의 꿈에 현신하였다.

꿈에 나타난 신선은 양사언에게 묘향산 상원도에 찾아가 룡연폭포위 반석에다 신선세상이라는 글을 쓰려고 일렀다. 양사언은 꿈을 기이하게 여기고 묘향산으로 유람을 떠나 상원동을 찾았다.

그는 상원동의 경치가 하도 아름답고 절묘하여 저도 모르게 붓을 들어 룡연폭포의 반석에 《신선굴택운하동천》(구름안개 피여나는 이곳은 신선이 사는 경지이다)이라는 글발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보다 곱절은 더 크게 새겨놓았다.

이렇게 되어 아미타불과 옥황은 저마다 이곳이 제 세상이라고 승벽내기를 하게 되었다.

옥황은 팔선녀들을 불러 지상을 굽어보면서

《저 인간세상, 묘향산 상원동이 누구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수 있는 지상락원이니 너희들의 세상으로 하여라.》 하고는 그들을 상원동으로 내려보내었다.

팔선녀들은 매일같이 만폭동에 내려가 팔담에서 목욕도 하고 유선폭포에서 천의를 흐느적이며 춤도 추면서 기락을 즐기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옥경으로 돌아가곤하였다. 선녀들은 오선봉에서도 즐기고 강선봉에서도 즐기고 유선동에서 놀기도 하였다.

그러자 부처는 또 부처대로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는 여러 보살들을 불러 의논하였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옥황이 그리도 무리한 행동을 할수 있겠는가? 하늘에만 있다던 선경계가 어찌 하계에도 있단말인고? 인자하고 사리에 밝으신 옥황의 마음에 무슨 병이 든게 틀림없도다. 옥황의 가벼운 행동에는 개의치말고 어서<나무아미타불>이란 명호를 더욱 뚜렷하게 새길것이로다.》

부처와 옥황상제는 상원동을 두고 오래동안 신경이를 하였다. 누구도 아름다운 상원동을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원동이 이 지상세계 사람들의 것이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수백년 흘렀으나 사람들은 《극락천국》이나 《선경계》에는 낯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 세상의 모습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산 인간세상은 아니기때문이었다.

극락도 인간세상이 아니요, 선경계도 인간세상이 아닌것이다.

더우기는 상원동이 아무리 《극락》이요, 《선경계》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달픈 생활을 하고있으니 《평등》이요, 《행복》이요 하는것이 꿈속의 말처럼 들렸었다.

목사는 불목하니시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극락》은 무어고 《선경계》는 무엇인고? 순간의 달콤한 환상은 오히려 인생의 고달픔을 더해만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를 찾아준신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지상천국에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가고 있는 교향사람들을 만나보고 묘향산을 돌아본 그는 그전설에 이런 이야기를 더 보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아주신후 묘향산은 날을 따라 아름다와지기 시작하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는 높아만갔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들을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주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묘향산은 날을 따라 더욱 빛을 뿌리었다.

선경의 신선도 옥경의 상제도 그리고 금락정도의 아미타불도 이 희한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래졌다.

《저런 세상이 언제 어디서 생겨났을가?》

저마다 제 세상이라고 자랑하던 선계와 극락의 주인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상상원동에는 언제나 파사로운 해빛이 비치고 있었다.

사람들의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그칠새없는 상원동을 내려다보며 옥경의 상제와 극락의 아미타불은 공념불만 외우던것이 부끄러웠다.

아미타불과 옥황은 저도 모르게

《아!- 진짜 극락과 선경은 저기로구나. 저기가 리상향이로구나. 위대한 령도와 사랑이 저기에 고통이 없고 누구나 평등하고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켜구나.》 하고 말하였다.

보면볼수록 희한한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초월하여 동지적으로, 의리적으로 일심단결되어있었다.

평등을 뛰어넘어 마음이 하나로 뭉친 세상, 이것은 정녕 《극락》이나 《선경계》나 《천당》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세상이었다.

묘향산의 아름다움과 거기서 올려오는 사람들의 행복의 노래소리에 현혹되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데 어느날 옥황은 상원동을 굽어보다가 《영?》 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선경계 무릉폭포우에 《묘향산은 천하제일명산 **김일성**》이라는 옥필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후에는 기이하게도 묘향산의 천만 산봉우리가 별안간 상원동일대 천신평포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우러르는것이였다.

그 순간, 천신평포 절벽에는 《일심단결》이라는 커다란 글발과 함께 그밑에 새겨진 장군님의 존함이 빛을 뿌리었다. 이상하게도 그 출발은 낮에도 밤에도 해빛과 별빛이 어리어 늘 빛을 뿌리었다.

아미타불과 옥황은 눈이 부시며 절로 어깨를 낮추었다. 그들은 수천년 인류가 념원해오던 락토의 모습앞에서 더는 제 세상 모습을 자랑할수가 없었다.

리상향에 대한 수천년 인류리념을 총화하는 천신평포를 끼고 하늘중천 푸른 절벽에 떠오른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은 참으로 조선의 모습이요 맑은 아침의 나라의 문패였다.

그 글발을 보고 아미타불은 마음이 걸려 남몰래 인호대바위에 새겼던 《나무아미타불》이란 글발을 거두었고 신선들도 부끄러워 력사의 교훈을 주려고 《신선굴택운하동천》이란 글발을 지우지는 않고 룡연폭포의 계류속에 깊이 잠그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글발들은 자세히 찾아보지 않고서는 쉬이 볼수가 없는것이다.

목사는 천하제일강산으로 빛을 뿌리는 묘향산을 돌아보고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이 여기저기에 전해져 오늘 이 전설은 묘향산사람들속에서만이 아니라 해외동포들속에서도 널리 전해지고있다고 한다.

김우경

희천의 하루 아침과 함께 오신분

정성환

굽이굽이 지나오신 산골짜기에
산새들이 잠에서 깨여날무렵
공장구내길에 벌써 들어서신분
해빛보다 먼저 찾아오신분

그이 옮기시는 걸음걸음에서
일이번지는 상쾌한 아침바람
그이의 밝은 그 미소에서
싱싱히 풍기는 아침의 청취

그이 음성 새겨지는 우리 마음속에는
눈부신 아침해가 솟아올랐다

그이 심장의 불을 안은 일터에선
피땀는 로동이 시작되었다

희천은 남먼저 이 아침을 맞이했다
이 아침은 장군님이 안겨주신 아침
대고조의 억센 나래 펼치고
만난을 짓부셔가는 승리의 새 아침

우리는 이날 동녘에서 해를 맞지 않았다
장군님이 이미 아침을 안고 오셨기에
희천은 영원히 이 아침속에 있으리라
사회주의승리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아침속에

기다림

리연희

그리움과 그리움에 해가 솟았네
기다림에 달이 뜨고 별이 솟았네
노을속에 창문들 조용히 열릴 때면
장군님 더더욱 그리던 마음

기다림에 뛰었네 가슴속 심장도
기다림에 울렸네 기대소리도
길가의 잎새들도 기다림에 설레었네
기다림에 기다림에 단풍으로 불탔네

이 아침엔 오시려나
구내길을 쓸며 뒀던 마음들의 그 기다림
한밤에도 저 멀리 기적소리 울리면
이밤에 오시려나
간절하던 마음들이 가슴태우던 그 기다림

허나 아니었구나
기다림은 우리의것만이 아니었구나
다시 오마 하시던 그 약속 못잊으시여
마음은 열번도 더 오시던 장군님
희천의 심장들에 불을 주러 오시던 장군님

집무실의 새벽장을 여실 때에도 희천생각
최전연고지를 오르시면서도 희천생각
어쩐지 희천의 로동계급이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날과 날을 그리움으로 보내신 우리 장군님

아, 참으로 기다림은 장군님것이었으니
마음 송구해지네, 가슴 뜨거워지네
장군님 늘 안고계시는 희천
장군님 늘 안고계시는 인민...

두시간

주광일

흘러온 우리의 날과 날속엔
아직 없었다 이런 시간이
수수한 로동자문화회관에서
령도자가 로동자들을 기다려주신
가슴젖는 두시간

합창단공연을 우리와 함께 보시려

불같은 병사들의 노래를 들려주시려
작업복도 갈아입으라 기다려주시고
손도 씻고 오자니 시간이 걸릴거라 기다려주시고
그런줄도 모르고 우리 보낸 두시간
장군님 기다려주신 그 두시간

오, 눈굽이 젖어드는 그 분과 초를

내 마음속에 새겨안으니
대고조의 불길 일어번질
창조의 날과 날속에

영원히 지워질듯싶지 않구나
위대한 사랑의 두시간

수령님과 장군님

김영책

오실 때에는, 장군님 오실 때에는
새로 만든 기계며 숨결높은 공장이며
그 모두 하나하나 보아주실 마음이셨건만
가시는 길 곳곳마다 그이께선 수령님생각뿐

오시여서는, 정말로 오시여서는
허물없이 잡아주신 노동자의 손에서도
수령님의 따뜻한 그 체온
오래도록 말없이 느껴도 보시고

걸음멈추고 조용히 귀기울이시면
어디선가 수령님 음성 들려오는듯
수령님 사랑하시던 그 이름으로

공장이름도 불러주신 장군님

가슴에 젖네, 가슴에 젖어오네
자그마한 선반기앞에서조차
내 나라 기계력사에 바쳐오신
수령님 한생을 새겨보신 장군님

아, 오실 때엔 혼자 오셨던 장군님
그이의 자욱을 걸음걸음 따르며
희천은 보았어라
혁명의 천만대오앞에 함께 계시는 두분의 모습
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4 행련시

우산장사모곡

김철

저더러는 예 와서 휴양하라 하시고
자신개선 먼길을 떠나시였더라
여기 호수가에는 금잔디 따스하고 단풍이 붉은데
가신곳 북변에는 찬서리 흰눈이 내리지 않았는지

×

옛그제는 희천 만포 고산진에 가신 소식
오늘은 전연부대 찾으신 보도
풍월루엔 달이 밝고 솔바람 은은해도
보이느니 험한 령 굽이굽이 야전승용차

×

걸음걸음 자욱마다 추억이 깃든 이곳
행여 스무해전 그밤처럼 오시지 않으려나
창열고 내다보니 새벽 푸르름속이
사연도 깊을사 느티나무 설레네

×

구새먹고 병들었던 저 나무 되살리신
수령님의 은정은 이 몸에도 배여있고
이 가슴 한점 그들도 씻은듯 가셔주신
장군님의 사랑은 산천도 알고있어

×

아아 이를 어찌리
주신 분부 감히 어기려 하랴마는
쉬이려도 재우려도
일쏜아 들레이는 애모쁜 가락이 여

×

저더러는 예서 더 쉬라고 이르시며
이제 또 먼길을 이어가실 장군님
휴양지 가을날에 전사는 비웁니다
장군님 부디 안녕하시옵기를!
(주체87. 11. 4)

기념사진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

이 땅에 2월이 왔다.

온 나라 강산에 승업한 흙모의 감정과 불길은
충정의 마음이 대하처럼 굽이치는 우리의 2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한 기쁨과 환희속에 이 땅우에 밝아온 2월.

2월의 명절을 앞둔 이밤.

집집의 창가마다에는 행복의 불빛이 포근하게
흐르는데 그 불빛을 타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
려오는 노래소리.

불빛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그러면 이밤도 내 마음속에

당중앙불빛이 어려오네

...

노래를 들으며 행복속에 잠겨있는 수도의 거리
를 거니느라니 이밤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
가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찌릿이 안겨
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밤을 어디서 보내고
계실가. 집무실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
을 위한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
고계실가 아니면 머나먼 현지도도의 길을 걷고계
실가.

인민들에게는 언제나 행복만을 안겨주시고 자
신은 그 행복을 위해 낮과 밤 따로없이 바치시는
로고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

이 나라의 어느 가정이나 가슴 뜨거움 없이는
들을수 없는 우리 장군님 들려주신 전설같은 사
랑의 이야기 깃들어있거늘.

지난해 11월 15일이였다.

함경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
시느라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경성군 룡현협동농장이 현대
적인 문화주택을 새로 짓고 전기난방화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그
곳을 찾으시여 박덕남농장원의 집에 들리시였다.

오신다는 기별도 없이 뜻밖에 찾아주신 경애하
는 장군님께 박덕남동무네 가족은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집이 어떤지 좀 보
자고 하시며 허물없이 방안에 들어서시였다.

새로 지은 문화주택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여
러칸의 살림방들은 전기난방화되어 어디라없이

훈훈하였고 널찍한 부엌에는 전기로 밥과 국을
끓일수있게 되어있었고 목욕탕도 깨끗하게 꾸려
져있었다.

집안의 곳곳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
님께서서는 집을 아주 잘 지었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옛날에는 지주들도 이런 집에서 살지 못했습
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을 우리 농민들이 쓰고살
게되였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이런
집에서 살게 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박덕남동무네 집식구들
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가정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였다. 이어 뜨락에 나오신 장군님께서
는 아담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가의 궁지와
주변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시다가 농촌집에는 무
엇보다 리밭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공지에 터
밭을 일구어 갖기지 신선한 남새를 심어먹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집주변에 과일나
무들을 많이 심고 울타리말에 키높이 자라는 줄
당콩 같은 곡식을 심어 옆집마당이 보이지 않게
하는것이 좋다고 집주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까지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정녕 새집들이한 자
식의 집에 찾아와 세간살이를 보살펴주는 친부모
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버이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일
군들은 전날밤에 받아안았던 감동이 다시금 되살
아나 북받치는 걱정을 누를수 없었다.

마가울의 찬 날씨에 비까지 구질구질 내려 퍼
그나 을씨년스럽던 전날저녁.

경성군에서 온포전에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
소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상온포
협동농장에 새로 건설한 전기난방화된 마을을 보
시고 김성보농장원의 가정에 들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기난방을 한 구들이
더운가 여기저기 쥘어도 보시고 텔레비존이 잘
나오는가 스위치도 넣어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
을 세심히 보살펴주신후 지난해 분배는 얼마나
받았는가, 부식물은 어떤것을 먹는가, 소금은 한
달에 얼마씩 소비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
며 가정살림살이를 차근차근 의논해주시였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밤은 깊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이 전기난방화된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살게 된 것이 더없이 기쁘시며 환히 웃으시며 마가울의 차거운 밤비를 맞으시며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그러하신 장군님께서 지난밤에 이어 오늘 또다시 새집들이한 가정을 찾으시며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한 평범한 농민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서까지 의논해주시니 인민에 대한 그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에 일군들의 가슴이 어찌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길은 매일 매 시각 이런 사랑과 은정으로 수놓아진 길이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에도 그러하였고 공장과 기업소, 도시와 농촌을 찾으실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체일가는 관심사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살림살이였다.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 속에 오늘은 우리 농촌에 전기화된 살림집건설의 새 력사가 자랑스러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간이 퍼그나 흘렀으나 한 농민가정과 나누시는 새집들이기쁨이 걸음을 놓아주지 않는듯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볼수록 집이 마음에 들고 잘 건설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이런 집을 다 지어주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장군님을 자기 집에 모신 영광의 날을 대를 이어 전하고싶어하는 한 농민의 간절

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이 기쁜 날에 우리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의의가 있다고 하시며 박덕남동무네 부부와 아들딸들을 한품에 꼭 안으신채 집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나라의 한 평범한 농민가정과 찍으신 사진.

새겨볼수록 고마움에 눈물젖게 하는 사진.

정녕 그 사진은 장군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한식솔로 사는 내 나라 대가정의 모습이 비친 가족사진이였다.

이것은 비단 박덕남동무네 가족에게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이 아니다.

이 나라의 평범한 어느 가정에 들려보나 우리 장군님 남기신 사랑의 자욱이 깃들어있거늘.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 집에 모셔진 온 나라 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장군님 품에 안겨사는 자신들의 행복복된 모습을 보는것이며 장군님께서 앞당겨오시는 밝고 희망찬 래일을 확신에 넘쳐 그 길을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곳곳이 걸어가고있는것이다.

그 마음을 담아 노래가 울린다.

이밤이 깊을수록 나는 생각해
커가는 내 행복의 끝은 어딘지
우리 당 품에서 시작된 행복
언제나 그 끝은 알수 없네
이밤이 깊을수록 나는 생각해
고마운 그 품을 영원히 따르리

명언해설

《인간은 자기를 알면 혁명가가 되고 자기를 모르면 노예가 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면 혁명가가 되지만 그것을 못가지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바로 자기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각을 가질 때만이 혁명투쟁에 펼쳐나설수 있으며 혁명가로서의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다.

지난시기 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천대와 멸시속에서 노예의 운명과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여왔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

이라는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처지와 운명을 타고난 팔자라고만 생각하였기때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각, 이것은 곧 혁명가의 참된 삶과 투쟁을 결정하는 근본 바탕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우리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우리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깊이 체득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전화로 불러주신 노래

몇해전 어느날 새벽이었다. 사업에서 파오를 범하고 처벌을 받은 어느 한 일군의 집에 이른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전화종이 울리었다. 밤새도록 피로운 자책속에서 잠못이루며 번민하던 그 일군은 얼른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송수화기에서는 뜻밖에도 **《김정일입니다.》** 라고 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친근하신 음성이 울리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당황한 그 일군은 미처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자지 않고있소? 동무가 피로와할것 같아서 전화를 했소.》

그 순간 전류를 타고 가슴속에 흘러드는 뜨거운 은정에 목이 메여 그 일군은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로 말하면 다년간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던 당일군으로서 자기 말은 사업에서 파오를 범하여 당조직의 비판을 받고 어디에 가서든 자신을 혁명화할 각오밑에 결론을 기다리며 피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 사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를 아시고 물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으시는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일군은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직이 그 가사를 한소절씩 천천히 외우시었다.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라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먼길을 왔어라**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걷는다해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그이께서는 파오를 범한 한 전사에게 마음의 기둥이 흔들릴세라 이른새벽에 친히 전화를 거시여 굳은 신념을 가슴속깊이 다져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가슴뜨겁게 느끼는 그 일군은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며 울먹이면서

서 말씀올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어디에 가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믿음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신념이란 무엇이겠소? 그것은 오직 하나만을 믿는 단결이란 말ियो. 나는 동무가 어디에 가든 이 신념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군은 끝내 뜨거운 걱정을 터뜨리고야말았다.

파오를 범한 본인보다 더 피로와하시며 이밤도 뜬눈으로 새우시고 새벽을 맞이하셨을 그이의 영상이 떠올라 세찬 오열을 터쳤던것이다.

전사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신 그이께서 나직이 외워주시던 노래의 가사 한소절한소절, 진정 담고싶으신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에 그대로 응축되어 울린 노래의 가사였다.

폭풍에도 비바람에도 세월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있는 철탑은 그것을 고이고있는 초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민과 일군들의 혁명적 신념을 억년 드눌지 않게 하는 초석인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 초석이 든든히 자리잡고있기만 하면 설사 일시 걸음을 헛디디는 일이 있고 파오를 범한 일이 있어도 그는 반드시 혁명의 길에서 한생을 가장 값있게, 빛나게 살아나갈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혁명가의 신념은 우리 당에 대한 완전무결하고 절대적인 신뢰이다.

간고한 혁명의 길은 어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래일도 있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수 있다.

...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걷는다 해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높이 들리 우리의 붓

우리 더는 알수 없으라
이 세상에
붓을 들고 살아온이 그 얼마이고
붓을 들고 사는 사람 그 몇몇인지

인류가 문자를 만든
아득한 그 세월부터
붓이 생기고 문학이생겼지만
갈지 않아라 그 붓과 우리의 붓은

얼마나 벅차고 준엄한 시대에
우리 붓을 쥐고있는것인가
병사의 총과 같이
우리 손에 억세게 틀어잡은 붓
꼭절많은 혁명의 길에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인 붓

이 아침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우리 책상앞에 마주앉았노라
붓과 함께
새날의 창작행군을 시작하는 또 하루
우리 사색의 첫문을
조용히 여노라

그러면 해빛보다 먼저
미음속에 찾아오는
그러운 영상
아,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문득 문을 열고 들어오실듯
만면에 환하신
사랑의 미소
열정의 미소
그앞에 경건히 서있는 우리 마음

어버이품으로 안기고
스승의 손길로 부여잡는
그 품 그 손길
장군님께 스스로 끌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녀이어

한생에 두번다시 없을
가장 참된 인간을 향한
그 매혹!
가장 위대한 성인을 향한
그 매혹!

그 어떤 호령과 강요로는
한치도 움직일수 없고
순간도 돌려세울수 없는 우리의 매혹
우리의 량심에 깨끗이 깃들어
넋과 마음 다 불붙어라

예로부터
글 한자를 배워도
은사로 떠받들며
한생 잊지 못한다 했거늘

우리에게 사상을 주고 녀을 주고
주체사실주의문학을 창시하신 그이
그이의 위대한 손길에는
무한한 창조의 붓이 있어라

문학이 그려야 할
인간의 참된 사랑과 행복
아름다운 생활과 투쟁
정의와 진리를 다 밝히는 그 붓

사람들이여
무심히 읽지 마시라
우리들이 쓴
한편의 시와 가사를
소설의 갈피갈피를

그이는 그 붓으로
깊은 밤 이른새벽
때로는 전선길을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때로는 휴식시간에
때로는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앞에서
손수 밀줄을 그으시며
다듬어주시였어라

오, 그 붓이 창조하는 세계는
만민이 따라오르고
인류가 닿아야 할 진리의 세계
리상의 봉우리

우리 다는 몰랐어라
그 세계우에
우리 작가들의 자리가
그리도 높이 정해져있는줄

잊지 못해라
90년대의 첫해가 다 저물어가던 그날
하늘의 별들도 깊이 잠든 그밤
우리 작가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신 장군님

당과 함께
혁명과 함께
작가들이 걸어온 길 더듬어보시고
이제 가야 할 천만리를 다 바라보시며
력사의 붓을 들어
우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쓰시었어라

...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믿음이어
그 어느 력사의 갈피
그 어느 당건설의 력사에도 볼수 없었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뜻이어
그 어느 시대의 작가들이
이렇게 높이 서본적 있었던가

영광이여라 우리는
자랑이여라 우리는
생활을 선도하고
시대를 선도하며
인민들을 정의와 진리
삶과 투쟁으로 부르는
혁명의 나팔수
당과 수령의 열렬한 지지자
참다운 협력군

진정 30여성상
그이께 향한 우리의 매혹은
그이 지니신
창조의 세계에 대한 매혹
인류문학의 참된 길을 밝히시는
대실력가에 대한 절대적매혹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는
이 세상 처음
우리들에게 자신의 심장으로 버리신
우리 당의 붓
혁명의 붓을 주신
위대한 스승

그래서 붓을 들면
가볍지 않구나
믿음우에 또 믿음이 실려오고
사랑우에 또 사람이 실려와
언제나 내 마음에 무거운 붓
언제나 내 마음에 뜨거운 붓

물어보라 머리흰 로작가들에게
창작의 첫걸음을 땀 젖은 작가들에게
그러면 그누구나
우리 장군님과 맺어진
가슴속 깊은곳의 사연 있나니

친자식을 세간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용해공출신의 젊은 시인에게
당중앙가까이에 친히 집을 정해주시고
그의 살림살이를 다 꾸려주시던
해빛밝은 여름날도 있었고
우리들의 집집마다 남방과일을 보내주시던
새해의 설날도 있어라

밤늦게 작품의 대안을 주어도
새벽이면 깨끗이 수정된 원고를 가져오던 시인들
불타는 열정으로 부피두터운 장편소설을
련이어 세상에 내놓은
로작가를 잊지 못하시여
사랑의 보약을 보내주신것은
꽃피는 그 어느 봄날이었더냐

그 사랑 그품에서
억세게 자라난 우리의 작가대오
《고난의 행군》길과 강행군길에서
변함없이 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우리의 대오

그 품에 흐르는
우리의 해와 달
그 하루하루의 생활이 흐르고흘러
우리의 한생을 이루고
그 나날의 값높은 삶이 모이고모여 .
우리들의 운명을 이루거니

그 누가 작가들의 신념을 저울질할 때도
작가들은 나의 작가들이라고
내결에서 단 한명도 빼낼수 없다고
작가들은 언제나
최고사령부와 함께 있을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신 장군님

수령님 그리도 사랑해주시던
우리 작가들을
자신의 품에 다 안으시고
가는 바람
오는바람
다 막아주시며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다 맡아나서시였거니

국보라고 금싸래기라고 아끼시던 로작가들
세상을 떠나갈 때면

그런 날은 아 그런 날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들이 남긴 작품들을 추억하시던
장군님의 그 심정을

세월이 흐른다고 잊을수 있으랴

하기에
애국렬사릉 영생의 언덕우에
돌사진으로 아로새겨
그들의 모습을 빛내주시며
그앞에
그리도 오래 서계시지 않았던가

우리의 날과 날은
사랑과 믿음의 줄기찬 흐름
그 흐름 잇고 이으면
문학전성기의 력사
주체문학의 큰 바다가 되리라

아, 어버이장군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당의 붓 혁명의 붓을 쥐여주신
위대한 은인이시여!

이 붓은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은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와 환희로 펄럭이는
그 붉은기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 이 하늘아래 일떠서는
강성대국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와 함께
우주시대에 들어선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며 떨치며

그렇다
이 붓은
부강조국을 건설할
새로운 대오를 짜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천만의 심장을 불붙여주는
화물로 타오르리

이 땅에 전쟁의 불이 터진다면
우리는 최고사령부의 종군작가가 되리
병사들의 총창과 함께
멸적의 퇴성을 울리는
땅크와 함께 대포와 함께
화선천리를 주름잡아 돌진해나가리니

만약 우리
단두대에 올라서는 때 있다면
웨치리라
나는 로동당시대에
신념과 량심으로 글을 썼다고
온 세상 향해 소리높이 웨치리라

아, 높이 든 우리의 붓
총대가 되여
번개가 되여
제국주의자들이 휘몰아오는 광풍을
산사이 짓부셔버리리

우리 당과 혼연일체로
영원할 우리의 붓
불속에도 타지 않으리
황색해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리

이 붓으로 우리는
장군님 휘날리시는 붉은기를 노래하노라
군인정신을 떨치며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노래하노라

장군님의 사상과 정치는
우리 문학의 영원한 종자
장군님의 말씀과 활동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주제

그렇다
장군님과 함께 있으면
작가와 문학은 살고
장군님과 한치라도 떨어지면
작가와 문학은
뿌리없는 갈대가 되고말리니

김정일 동지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명은
김정일 동지

격류되자
노도치자
새 세기
김정일시대를 위하여!

아, 창공에 높이 휘날리는 당기에
우리 수령님 새겨주신 마치고 낫과 함께
우리의 붓은 영원히
곧바로 서있으리라
우리 작가들은 영원히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하리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주체87. 10. 7)

한생과 견장

김홍익

리중홍은 사무실 벽가에 놓여있는 팔걸이의자에 앉아있었다. 책상앞 그가 늘 앉아 일을 보던 의자등받이에는 장령견장을 단 군복이 걸려있었다. 그의 군복이었다.

한시간전까지만 해도 장령견장을 단 그 군복에는 대좌의 견장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런 견장우에 큼직한 소장의 별이 박혀있다. 그리고 바로 한시간전까지만 해도 그자리에 달려져있던 대좌견장은 그의 책상우에 놓여있다.

몇시간전 리중홍은 당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고갔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당년 열다섯살에 총을메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던 전쟁로병, 그때로부터 예수살이 넘도록 군복과 더불어 한생을 살아오는 리중홍이었지만 당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게 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혹시?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여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달려간 그에게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인민군대의 여러 지휘관, 정치일군들에게 한급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할데 대하여 내리신 명령을 전달하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에 받아안게 되는 분에 넘치는 영광이여서 리중홍은 심장이 쿵쿵 뛰는것을 느꼈다.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고나서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 나기려는 리중홍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이 불러세우더니 군복상의를 벗으라고 하는 것이였다. 영문을 몰라 얼떨름해 서있는 그의 군복저고리를 손수 벗겨든 책임일군은 갈아단지 퍼그나 오래되어 색이 희벗하니 바랜 대좌견장을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대좌가 된지 얼마나 되었소?》하고 물었다.

《한 14년 되었습니다.》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리중홍이 대답했다.

《14년이라... 꽤 오래 달고있었구만.》

혼자말처럼 받아외우며 견장을 땀 책임일군은 진귀한 보물이라도 되는듯이 그것을 쓸어보더니 그의 손에다 지여주며 말했다.

《이걸... 잘 건사해두오.》

몸자세를 바로 가지며 대답하는 리중홍을 물끄러미 건너다보며 의미있는 미소를 머금던 책임일군은 금방 대좌견장을 땀 자리에다 새 장령견장을 달기 시작했다.

《아니, 돌아가서 제가... 제손으로 갈아달겠습니다.》

지중홍이 황황히 바느질을 뺏으려들자 책임 일

군은 웃으며 말했다.

《일없소.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배려로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장령이 된 동무를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러오.》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것을 느끼며 리중홍은 더는 어찌지 못한채 우두커니 서서 바느질에 여념이없는 책임일군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책임일군의 나이를 가늠해보니 자기와 동갑나 이쯤 되어보이는데 이렇게 견장을 직접 달아주곤 하는 경우가 드문한듯 바느질솜씨가 펍 손에 익어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오?》

한쪽 견장을 다 달고나서 다음 견장을 찾아쥐며 책임일군이 물었다.

생활에서 가끔 받곤하는 질문이였다.

그런데 어째선지 그런 질문을 받을적마다 곤대답하기가 힘들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하고 자기의 속생각을 제3자의 시점으로 들여다보는 레가 거의나 드물다. 그러다가 그런 질문을 받고서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던가 하고 자기의 속생각을 들여다보곤하는 것이다.

하여 리중홍은 질문을 받고 한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당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고 오던 때의 자기의 심정을 돌이켜보는중이라고 떠들떠들 대답했다.

《그래 부름을 받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소?》

책임일군은 호기심이 동하는듯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리중홍은 이리로 오던 때의 속생각을 숨김없이 그대로 이야기했다.

대답이 끝나자 책임일군은 얼굴에 알릴듯말듯한 미소를 짓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지나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는 걸음이 무거웠겠구만. 허허.》

그래 동무 보기엔 내가 지금 몇살쯤 된것 같소?》

《글쎄말입니다.》

《뭘해 더 넘기면 일흔이요.》

《?!》

리중홍은 퍼그나 놀랐다. 자기와 거의 동갑나 이로 보았는데 그렇게도 웃벌인가?

《해놓은 일 없이 그렇게 됐소. 하지만 여직 난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젊고 늙고 하는건 사실상 나이에만 관계되는것이 아닌가 보오. 보다는 그의 정신에관계되는것 같소. 아마 동문 열댓 소리를 들을 적에 조국해방전쟁을 맞이했겠지? 곧 군복을 입었고... 지금 우리 당엔 동무네 세대가 귀중하오. 십여년전까지만 해도 동무와 같은 로병들이 이토록 귀중하게 여겨지리라는것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거요.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동무네 로병들을 귀중히 여겨오셨소. 이제는 동무네와 같은 세대, 조국해방전쟁을 겪은 세대가 우리 혁명의 핵심이고 끝간인거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로 동무네와 같은 로병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동무들은 잊지 말아야 하오.》

...리중홍은 벗어놓은 자기의 군복, 싯누런 가령견장에다 눈길을 준채 하염없이 앉아 한시간전에들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의 말뜻을 되새겨 보았다.

우리 장군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항일혁명투사들과 더불어 귀중히 여기시며 극진히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전쟁로병!

리중홍은 움쭉 몸을 일으켜 의자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은채 장령견장을 어루만져보았다. 금실의 부드러운 촉감이 손바닥으로 해서 온몸으로 흘러드는것 같았다.

불현듯 마디와 굵고 거칠게 터질라진 손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손은 열다섯살 어린 병사의 새군복에다 전사견장을 달아주고있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리유로 세번째만엔가 네번째만엔가야 그토록 엄격한 군사동원부 문턱을 넘어서 그에게 첫 견장을 달아주던 초모생인솔분대장의 손이었다.

나이가 지숙한 사람이였다. 농사군출신인 모양으로 손이 험상궂게 터갈라지고 얼굴이 검실검실하였다. 난생 처음 손에다 바늘을 들고 견장을 다스려 깡깡 씨름을 하는 신입병사들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중 나이가 어린 리중홍의 군복을 뺏아들고 직접 달아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가 하였는데... 그 말마디들은 그의 기억에 없었다. 어렴풋이 남아있는것은 나이가 어린데다 전쟁판에 뛰어들었다는 생각으로 조금 흥분된 자기네들을 한바탕 웃겨놓았다는 희미한 기억뿐이였다.

그때로부터 45년 세월이 흘렀다.

그 40여년동안 제손으로 견장도 달아입지 못하던 애송이전사가 오늘은 장령이 되였다.

그때의 그 분대장에 대하여 리중홍은 여직 모르고있었다. 사단지휘부까지 자기네들을 데려다 주고는 곧 떠나갔는데 지금까지 다시 만나지 못

했다. 전쟁판에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살아있다면 자기에게 장령견장을 달아주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비슷한 년세에 이르렀을것이다. 살아있다면 그도 어떤 기회에 자기의 손으로 첫 견장을 달아준 고수머리전사(그는 심한 고수머리였다)를 회상할수도 있으리라. 아니, 리중홍은 그 분대장을 기억해도 그 분대장은 그와 같은 전사를 기억해낼리없다. 리중홍에게는 그 분대장이 첫 견장을 달아준 인상깊은 사람이지만 그 분대장에게 있어서 리중홍은 그해 여름 후방 각지에서 전선으로 인솔해온 술한 전사들중의 한사람인것이다.

그날따라 리중홍은 그 분대장이 무척 보고싶어졌다.

깊은 밤 조용히 저 군복을 입고 가서 그 분대장앞에 서고싶었다. 그러면 분대장은 뭐라고 말할것인가?

그는 분대장이 자기에게 해줄수 있는 말을 상상해보았다. 분대장도 당중앙위원회 그 책임일군처럼 자기의 어깨를 두드리주며 말할것이다.

《초중졸업생으로 열다섯살 나이에 전사견장을 달고 조국해방전쟁에 뛰어들었던 애송이전사를 이렇게 키워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은덕을 잊지 마오.》

리중홍 심혼에 젖어오는 그 목소리를 자자구구 새기며 몸을 일으켜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부대 앞마당끝에 심은 버드나무의 실실이 늘어진 가지에 파릇파릇 윤기가 돌고 그너머 길옆에 줄지어 심은 살구나무가지들은 금시라도 필듯이 잔뜩 부풀어오른 꽃망울로 불그레해보였다.

봄이였다. 이제 한주일이가량 흘러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이면 가지가 보이지 않으리만큼 살구꽃이 만발할것이다.

리중홍은 눈길을 쳐들었다. 연빛 하늘이 높이 쳐다보였다. 그 하늘아래 어딘가에 자기의 정치부중대장시절이 흘러간 잊지 못할 초소가 있을것이였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몸가까이 뵈옵군하던 초소...

리중홍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속에서 정치일군으로서의 안목을 터우고 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가던 그 나날들을 더듬어보았다. 그 언제 되새겨보아도 가슴속에 행복한 따듯한 물이 그득그득 차오르군하는 나날이였다.

솔직한 말로 리중홍은 그 시기 자기자신이 맞고 보내는 그 날과 날들이 자기의 한생에서 얼마나 귀중한 나날들로 될것인가를 당시에는 마치 깨닫지 못했다. 그 나날들이 정치일군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귀중한 밑천을 쌓아가는 금같은 시간이였다는것을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정치부중대장으로부터련합부대정치부 일군으로, 대련합부대 정치부 일군으로, 한개 부대의 책임정치일군으로 성장해온 그후의

나날들에 깨달았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맞닥드리거나 힘에 부치는 일거리에 부닥치거나 할 때마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가르치심들을 되새겨보며 올바른 길을 찾고 방도와 해결책을 모색하며 힘을 얻곤하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야 그는 자기에게 있어 그 정치부 중대장시절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추억은 항상 눈내리는 그밤으로부터 리중흥의 눈앞에 떠오르곤하였다.

20대의 젊으신 **김정일**동지를 처음 몸가까이 뵈옵고 씨원씨원하면서 우렁우렁하신 그의 음성, 패기에 넘치면서도 산갈은 무게가 느껴지는 그의 몸가짐, 정열에 불타고 예지로 빛나는 그의 눈빛, 자애로움과 근엄함이 조화되어 이룰 못할 숭엄하고도 친근한 감정을 자아내는 그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던 그밤을 리중흥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뒤에도 영영 잊지 못하고있었다.

그날밤, 새해벽두에 예견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해지구현지지도를 앞두고 멀리 밤길을 달리시여 현지지도로정을 먼저 밝아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돌아가시던 길에 몸소 리중흥의 중대에 들리시여 중대장과 그를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었다. 당시로 말하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당과 혁명에 대한 위대한 령도의 첫 사업을 개시하신지 얼마안되던 때였다. 이곳 정치지도원으로 배치되어온지 얼마 안되는 햇내기정치일군이었던 리중흥으로서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만도 너무나 아름이 차서 늘 혈땀거리고있었다.

사실 그때 리중흥은 자기보다 오히려 정치일군 경험이 더 풍부했던 중대장한테서 정치사업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일해가는 형편이었다. 중대장으로 말하면 그보다 십여년 웃사람으로서 정전직후 대대선동원을 한 경험도 있고 중대장으로 오기전에는 어느 정치부지도원 경력까지 가진 사람이었다.

중대장한테서 배우는것을 리중흥은 조금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라도 더많은 경험을 배우려고 은근히 원심을 썼다.

언젠가 중대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정치부중대장, 너무 마음쓰지 말라구. 이제 그 견장이 물이 날게 되느라 저절로 다 알게 될거요. 사업요령도 생길게구...》

그날밤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에 중대부 거울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기의 견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중대장의 말대로 아직 때 한점 묻지않은 말쑥한 새 견장이었다. 그는 재봉바늘구멍이 생생한 견장우에서 반짝반짝 불빛을 발산하는 별을 만져보며 중대장동무의 견장처럼 나의 견장도 색이 바래게 되면 자기도 유능한 정치일군이 될수 있을가 하고 막연한 생각을 풀어보며

허구픈 웃음을 짓고말았었다.

그처럼 햇내기정치일군에 불과했던 리중흥으로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당사업전반에 새로운 활력과 싱싱한 사업기풍을 안아오기 시작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뵈옵고 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된것은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영광이 아닐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 영광이 가지게 될 의의를 지금같이 크게 느끼지 못했다. 어찌보면 이처럼 크나큰 영광이 너무나도 조용히 그에게 와닿은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기다리고계시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만 눈이 부셨다. 그것은 기다렸다고 찌렁찌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마주걸어오시는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젊으신 활기와 온 방안이 환해지도록 만면에 짓고계시는 해빛같은 미소때문이었다.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시여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장과 그를 책상앞으로 이끌어가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얼마전 자기의 손으로 만든 첫 금축만년필을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올렸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만년필을 동무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이께서 마주하고계시는 책상 위에 무드기 쌓여있는 붉은색 바탕에 흰색 비닐 뚜껑을 해덮은 만년필과들을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중 두개를 집어 드시고 중대장과 리중흥의 손에 꼭 쥐여주시면서 처음보다는 좀 낮은 음성으로 마디마디 력점을 두시며 말씀하셨다.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말고 사업을 더 잘 하시오.》

중대장도 그도 제식대로 답례를 올리려고 했으나 목이 꼭 잠겨드는바람에 끝내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러는 그들을 다정한 눈매로 굽어보시며 먼저 중대장으로부터 중대의 군사사업실태와 훈련상태, 전투군수행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중흥에게 요즘 무엇을 주선에 놓고 중대 정치사업을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당황해졌다.

정치부중대장사업을 맡아 해오느라 처음으로 받아오는 질문이었던것이다. 질문으로도 처음이 거니와 그자신 중대정치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그것을 깊이 생각해본적이 아직 없었다.

인차 대답을 못드리고 머뭇거리는 그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이윽도록 그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그럼 중대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무엇을 기본으로 합니까?》하고 질문의 폭을 좁혀주시었다.

당황해진 마음을 미처 수습하지 못한채 리중흥

은 수령님의 은덕을 통한 교양사업도 하고 계급 교양자료를 통한 교양사업,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한 교양사업도 한다고 두서없이 말씀드리었다.

대답을 주의깊이 들어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눈가에 지으셨던 밝은 미소를 거두고 잠시 근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무장집단입니다. 그런것만큼 다른 교양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사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교양사업은 전사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근본을 잘 알고 자기들이 계승해야 할 사상과 정신, 성격과 임무, 도덕과 품모가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사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속에는 없는것이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 자기 계급, 자기 인민, 자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 혁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군민일치, 상하일치 등 전사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때문에 혁명전통교양만 실속있게 벌리면 다른 교양사업은 저절로 잘되게 마련입니다.

더우기 우리 혁명대오안에서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오늘 혁명전통교양문제는 인민군대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됩니다.》

계속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내용과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떠나가실 때에는 앞마당까지 따라나서는 그들의 등을 정답게 떠미시며 몸소 승용차를 몰아 밤길을 이어가셨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의 불빛이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 멀리 어둑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움직일줄을 몰랐다. 그리고 승용차의 불빛이 사라지자 저도 모르는 사이 두손을 꼭 잡고 중대로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들념을 못했다.

반아안은 행복이 너무도 크고 가슴에 차오르는 격정이 너무도 벽찬때문이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그 행복감, 그 격정을 안고 그들은 말없이 자기 책상앞에 앉아 깨끗한 학습장을 펴놓았다. 구리고 약속이나 한듯 자기들이 반아안은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되새겨보며 한자 한자 적어넣기 시작했다. 새겨볼수록 그 의미가 새롭고 음미해볼수록 그 뜻이 심원하여 한구절의 말씀을 옮겨놓고 때로는 한나절이나 그 뜻을 헤아려보기도 했다. 하다보니 그 일은 웅근 사흘밤 동안 계속되었다.

사흘째되는 날 아침, 중대장은 며칠동안 밤을 새워 피발이 선 눈길로 리중흥을 바라보며 말했

다.

《내 언젠가 정치부중대장동무에게 이제 그 새 견장의 색이 바뀔 때면 경험도 생기고 사업요령도 틀거라고 위안처럼 말했었지. 그러나 이제 보니아니요. 사업은 경험이나 요령으로 하는게 아니요. 그건... 강령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는지요. 그러니 서른살을 전후한 청춘시절에 이런 영광을 지닌 동문 마흔살을 넘어선 나이로 사흘전 그밤을 맞이한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지요.》

사실 그랬다. 리중흥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이후의 나날들에 그것은 더욱 똑똑히 느꼈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 때로는 장거리전화로, 때로는 바쁘신 시간을 내어 몸소 찾아오시여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시정해야 할 점들과 더욱 강화해야 할 점들을 따듯이 일깨워주곤 하시었다.

그 나날에 중대전사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 세대 혁명가들로 자랐고 그도 능력있는 정치일군으로 성장했다.

리중흥은 당보 《로동신문》과 군보 《조선인민군》 그리고 텔레비존 열성시청자들중의 한사람이다. 아침이면 아무리 바쁜 때에도 당보와 군보를 밑줄을 그어가며 다 읽고서야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야 전날에 삼거웃처럼 엷혀져보이던 일거리들이 주선과 부선, 중심고리와 편쇄고리, 선차적으로 해야 할 일과 주차로 해도 될 일들로 석연하게 갈라지곤했다.

저녁에도 관하구분대지도나 초소순찰로 방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텔레비존을 켜놓고 중요시사보도와 문화정서생활상식자료들을 거의 빠짐없이 보곤한다. 그러던 그날 하루사업에서 놓친 것들, 미진된 것들, 당의 요구와 현시대의 추세에 뒤떨어진 것들, 얼떨떨했던 것들이 거울에 비쳐진 것처럼 드러나면서 다음날 사업설계가 한결 혈해지곤한다.

하루사업의 설계와 총화를 당의 목소리에 비추어보고 보충할것은 보충하고 시정할것은 시정하곤하는 이 하루일과도 실은 그 나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생활화, 습성화해오는 과정에 이루어진것이다.

주체55(1966)년 2월 8일 저녁무렵,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다시 리중흥의 중대를 찾아주시었다.

전사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텔레비존을 보다가 막 달려나온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신 장군님께서는 급히 달려오느라 미처 채우지 못한 목단추를 손수 채워주시다가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신듯 환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아, 별이 하나 더 높아졌구만. 축하합니다.》

그러시고는 황송하여 몸둘바를 모르는 그에게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텔레비존을 병사들이 어떻게 보고있는가 알아보러 왔다시며 텔레비존이 잘 나오는가, 병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는가 등등 그들자신도 미처 관심하지 못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을 돌려주시다가 텔레비존 시청 날자와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보는가고 물으시었다.

텔레비존을 전사들이 아무리 봐도 싫지 않아하기 때문에 매일저녁 훈련이 끝나면 점검시간이 될 때까지 보인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말씀을 얹으신채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그렇게 되면 훈련이나 전사들의 일과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하고 안색을 흐리시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때까지 그에 큰 주의를 돌리지 못한것 또한 사실이어서 얼굴을 붉히며 인츰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리중홍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한결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텔레비존은 단순한 문화정서생활수단만이 아닙니다. 신문과 함께 전사들에 대한 힘있는 사상교양수단입니다.

그런것만큼 아침에는 군관들과 전사들에게 그날 신문을 읽어주는것으로 하루군무생활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나 이를 건너 한번씩 텔레비존시청시간을 정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소식도 듣고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도 보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령님께 말씀을 올리고 텔레비존초병시간 같은것도 따로 내올가 합니다. 그 시간에는 초병들의 고향소식도 신고 반대로 그들의 훈련모습도 내보내여 초소와 고향을 가깝게 이어주게 될것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한주일에 세번... 어느날로 정하는것이 맞출것일 갑습니까?

그걸 의논하자고 동무들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당, 국가, 군대에 대한 령도사업을 몸가까이 보좌해드리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사들의 텔레비존 시청 날자와 시간까지 넘려해주시는 그이의 세심한 정품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속하는 텔레비존방영 날자며 시간문제를 자기와 같이 평범한 전사들과 의논하시려 먼길을 달려오신 그이의 겸허하신 인품앞에 가슴이 뭉클 젖어드느것을 느끼며 리중홍은 생각되는바를 조심히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대답을 주의깊이 들으신 다음 토론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계획성있게 그리고 일관하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오랜 시간동안 세심하게 가르쳐주시고 그날도 밤이 껍 깊어서야 중대를 떠나가시었다.

정치일군으로서의 리중홍의 성장에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는 이에만 그

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한해반 남짓이 흘러간 그 이듬해(주체56년) 가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또다시 그의 중대로 찾아오셨다.

그날, 그리 넓지 않은 중대 앞마당을 지나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몇걸음 뒤에 따라서는 중대장을 돌아보시며 전사들이 공을 차고싶어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뜻밖의 물으심에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던 중대장이 중대적인 체육경기를 할 때면 주변농장의 학교마당을 빌려쓴다고 말씀올리자 수령님께서서는 앞에 서있는 리중홍을 바라보시며 혼자말씀처럼 위주시었다.

《그럼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을 주겠지...》

그것은 사실이어서 그는 고개를 숙일뿐 대답을 못드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금 흐려진 안색으로 마당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마당이 좁으면 전사들의 마음도 좁아지거던.》 하고 옆에 따라선 수행일군들에게 말씀하시며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병실로 들어가시었다.

그다음 한시간가까이 중대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살림살이 형편도 세심히 알아보시는 동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더는 마당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었다.

그날 저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리중홍과 중대장을 친히 부르시었다. 곧 달려가 인사를 올리는 그들에게 그이께서는 마당을 넓힐 방도를 좀 생각해봤는가 조심히 물으시는것이였다.

순간 그와 중대장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셨던 기쁨속에만 묻혀있다보니 그 생각은 감감 잊고있었던것이다.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처럼 한마디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새겨들고 그 말씀속에 담겨진 뜻과 요구를 헤아려볼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수령님의 그 말씀속에는 전사들에게 넓은 운동장 하나 만들어줄 생각을 못한 지휘관들에 대한 질책과 함께 전사들에게 하루빨리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주어 그들의 마음을 넓게 트워주고 싶어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습니다.》

타이르시듯 진실하게 올리는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은 마디마디 심장을 파고들었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는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받아안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놓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그들사이에는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것인가? 일을 쓰게 못하여 수령님께 그러한 심려를 끼쳐드린 당사자들인 그들은 받아안은 영광에 못

혀 수령님의 그 교시를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처럼 잊었는데 그이께서는 그 말씀속에 전혀 내비치지 않은 숨은 의미까지도 다 따져보시고 이렇듯 깊은 밤에 행복에 도취되어있는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었다.

자책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들을 이끄시고 마당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마당을 지나 얼마쯤 떨어져있는 공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공지로 말하면 오랜 세월 물이 고여있던 습지대로서 밭으로도 쓰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었다.

마침 배가 좀 고플사한 보름달이 휘영청한 때여서 달빛에 흰히 드러난 공지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을 드시여 앞으로 쪽 내미시며 말씀하시었다.

《여기다 운동장을 큼직하게 닦읍시다.》

《?!》

《?!》

리중홍도 중대장도 놀랐다.

무슨 힘으로 저 큰 물웅덩이를 다 메운단 말인가? 어지간한 호수같은 저 수령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신 듯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 좀 알아봤는데 수령이 그리 깊이 않습니다. 먼저 돌을 채워넣고 그우에다 흙을 덮고 모래를 깔면 훌륭한 운동장이 될것입니다. 돌은 요즘은 나라 협동농장들에서 밭의 돌을 다 추어낼 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밭머리에다 술한 돌무지를 쌓아놓고 그 처리때문에 머리를 앓고있는데니만큼 그것을 가져다 넣으면 썩먹고 알먹는 격으로 될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치부중대장동무?》

그들은 다시금 놀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벌써 이 수령기대의 지질상태도 다 알아보시고 돌원천까지 다 탐구하시고서야 그들을 찾으신 것이었다.

그다음날부터 그들은 운동장 만드는 전투에 달라붙었다. 전투지휘조를 편성하고 근무조직도 더 긴장하게 짜고들어 총돌격전을 벌렸다. 근무성원들도 근무가 끝나면 목고를 메고 전투장으로 달려나왔다. 작업장은 밤낮이 없이 활기를 띠었으나 워낙 큰 웅덩이인데다 돌을 날라오는 거리가 멀다보니 일자리는 생각처럼 폭폭 나질 않았다.

바로 이런 때 돌을 가득 실은 련차가 그들의 작업장 가까운곳까지 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보내주신 련차였다.

그들은 그 련차를 불안고 울었다. 울면서 그 돌을 부리워 수령을 메우고 흙으로 다지고 모래를 퍼는 전투를 련일 벌렸다.

드디어 예정했던 기한을 훨씬 앞당겨 공사를 끝내고 아버지수령님을 다시 모시던 그날 수령님께서도 너무도 기쁘고 만족하시여 환하게 웃으시

며 넓은 운동장을 몇번씩이나 거닐어보시더니 따라선 중대군관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이젠 됐소. 됐단말이요. 전사들의 마음도 이렇게 활짝 넓어질거요. 응, 수고했소 동무들! 고맙소.》

온 운동장을 찌렁찌렁 울리는 수령님의 그 음성을 심장으로 들으며 리중홍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말씀올렸다.

《아닙니다. 수령님!

우리 전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와 중대장동무의 가슴속에 수령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관찰을 위하여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린다는것이 어떻게 하는것인가를 깊이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전사들보다 먼저 마음이 넓어진것은 우리 지휘관들입니다.》

그날밤 한달가까이 공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다보니 퍼그나 넓어진 견장을 갈아달면서 리중홍은 언젠가 이제 새 견장이 색바랄 때가 되면 사업경험도 생길거라며 자기를 위안해주던 중대장의 말을 생각했다. 그리고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그날 자기더러 행운아라고 하던 그의 말도 생각하면서 새 견장들이 거둬거둬 넓어지도록 그이의 가르치심을 몸가까이 받으며 일하는 자기가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금 가슴 뻐근하게 느꼈다.

그는 때여낸 령장을 종이에 뽁뽁 싸서 깊숙이 보관해두었다.

그때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속에 새로운 직무로 조동될 때마다, 새 견장을 갈아달 적마다 색바랜 낡은 견장을 흰종이에 뽁뽁 싸서 정히 보관해두곤하였다. ...가슴 찢릿이 젖어오는 그 시절에 대한 생각에서 깨어난 리중홍은 방구석에 놓여있는 벽장을 바라보며 잠시 서있었다. 그속에 그 견장들이 보관되어있었던것이다.

문득 그것들을 보고싶어진 그는 벽장문을 열고 그것들을 찾아 책상위에 순서대로 나란히 퍼냈다. 대위, 소좌, 중좌, 상좌 그리고 당중앙위원회일군이 때여주던 대좌견장... 하나하나 더듬어보느라니 그 견장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속에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지울수 없는 자욱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렇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 일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며 살아오는 날과

날들에 갈아달고 또 갈아단 물날은 그 견장들은 행복한 그의 인생의 년륜이었다.

리중홍은 그날밤 잠잠이 자기의 속생각을 적어두는 수첩에 이렇게 써넣었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초중을 졸업하자 곧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

어나자 나이를 속이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으며 이날 이때껏 군복과 더불어 한생을 살아왔다. 군복을 입고서도 정치 및 군사대학들에 갈 기회들이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한해만 더>, <한해만 더>하는 사이에 그만 대학공부할 나이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서 그이를 항상 몸가까이에 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정치일군으로서의 첫걸음마를 익혀가던 정치부중대장시절을 나의 고등교육기간으로, 나의 대학기간으로 간주한다. 나는 그 나날에 어느 대학에서도 배울수 없는 참으로 많은것을 최고사령관동지한테서 배웠다. 정치일군으로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선과 부선, 힘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중심고리와 이여의 련쇄고리를 갈라보는 법, 하나의 사업을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며 다음 단계의 사업기틀을 마련하는 법, 책을 읽고 신문과 텔레비존을 보는 법, 지어는 정치일군으로서 중대와 부대의 예술소조활동을 주관하는 법 등...

참으로 최고사령관동지의 육친적인 세심한 보살피심과 귀중한 가르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 자신이 과연 있을수 있겠는가? 내가 예순살을 넘긴 나이에도 쇠락하지 않고 현대교육을 그뿐하게 받은 젊은 일군들한테 주눅이 들지 않으며 일해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해온 그<대학기간>이 나에게 있었기때문이다...》

내 마음의 해돋이

홍문수

침침 서린 정적속에
하늘도 불불고
땅도 불타는
백두산마루의 해돋이순간

장쾌하구나
불끈 솟는 저 불덩어리
열로 내 마음 태우는 불이어
빛으로 누리를 태우는 불이어

나는 이 시각을 맞으러 온 사람
저 장엄함을 다 안아주시고
저 아름다움 다 찾아 빛내주시며
러명의 이 산정에 서게시던
장군님을 그리며 이 가슴 뚫어나니

일만구름 거느리고
천리수해우에 해머리 쳐드는 네 모습
휘하에 천만대오를 이끄시고
주체의 불노을로 천하를 덮으시는
우리 장군님과 어이 그리 방불하나

불러 사회주의승리를 앞당기시려

혁명의 새벽
새 세기의 새벽을 서두르시며
21세기의 태양으로 솟아
세계를 향도하시는 거룩한 그 자욱

붉게 타는 저 노을은
추켜드신 그 붉은기의 기폭인가
이 아침의 눈부심은
그이 펼치시는 미래의 찬란함인가

신묘한 그 예지
장설도 녹이시는 그 열정
장군님생각으로
한가슴이 짝 차는 백두의 이 순간
아, 내 마음의 해돋이는 경애하는 장군님

나는 그 해돋이의 노을이 되련다
나는 그 해돋이의 불길이 되련다
혁명의 머나먼 길에서
그 해돋이의 넋을 물들인 사람은
절대로 심장을 팔지 않으리
그 박동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

수령형상창조와 감정조직문제

김해월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작품이 없는 작가를 생각할수 없듯이 사색을 떠난 작가를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동서고금의 유명한 작가들은 다 깊은 사색가였다는것을 우리는 다 알고있다.

작가에게는 사색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지 않다. 한계가 없이 풍부하며 끊임없이 심화되는 사색은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는 생활과 투쟁의 선도자로서의 작가의 존재방식이다. 때문에 작가의 사색은 그 깊이와 높이, 그 폭에 있어서 특출하고 비상하며 적극적이고 예리한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은 이때까지 인류문학이 대상하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확고히 받아들이고 온 사회가 위대한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하고있다.

더우기 이세기를 눈앞에 둔 90년대는 총포성이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한 치열한 격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승리의년대, 사회주의조선이 없는 세계는 있을수 없다는것을 움직일수 없는 법칙으로, 진리로 확증한 위대한 불멸의 년대였다.

위대한 력사가 있어 위대한 작품도 있는것이 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백보흠, 송상원),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리종렬), 《력사의 대하》(정기종)를 창작한 작가들은 위대한 사변, 위대한 생활로 충만된 이 시대를 안고 시대의 요구, 시대의 지향의 높이에 서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여 가장 어려운 력사의 시련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산악같은 담력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반영하였다.

위대한 현실, 위대한 극적사변을 장편소설에 시기성있게 반영한 작가의 대담성, 이는 위대한 력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이 매혹된 힘의 분출이며 그이의 령도품모와 감정정서까지 닮으려는 사색가, 탐구자의 강렬한 지향의 불길이며 그이께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가장 깨끗한 작가의 순결한 양심에서 분출된 애국적현신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3(1994)년 새해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보내신 가장 위대하고 비범한 력사의 한초한초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효성으로 이어지고 이어진 위대한 력사의 나날을 가장 진실하고 뜨겁게, 가장 생동하고 품위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영생》.

핵대결전을 세계적판도에서 폭넓게 보여주며 미제를 굴복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한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어 자본주의복귀의 길에 들어선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탁월한 령도력과 비범한 예지로 사회주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확증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모습을 무게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 이 장편소설들은 이처럼 간고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나온 뜻깊은 작품들인것으로 하여 더더욱 이채롭다. 학습당과 모든 열람실들에서 그 책을 찾는 독자들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 긴 속보판을 만들어놓고 신문련재소설처럼 글을 써서 붙이지 않을수없는 사실에서 이 소설들의 비상한 견인력과 인기정도를 너무나도 잘 알수 있지 않는가.

이 작품들의 비상한 견인력과 생명력은 작가들이 우리 당의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주체적문제론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고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심혈을 쏟아부은 탐구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이 고유한 생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일반적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문학의 일반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 고유한 생리를 특색있게 살리는데 작가의 재능이 있고 형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있다.》

수령형상창조에서 그 고유한 생리가 제기하는 요구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제기하는 일반적요구를 결합하여 특색있게 살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빛나게 구현한데 이 세 명작의 비상한 견인력과 생명력을 담보한 창작적요인이 있다.

여기에는 실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 글에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을수 없다.

이 글에서는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의 하나인 력사적 사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형상할데 대한 원칙과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일반적요구의 하나인 감정조직을 잘할데 대한 원칙을 통일적으로 결합하여 실천적으로 빛나게 구현한 성과

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한다.

수령형상창작품에서 성공의 비결은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 역사적사실과 불멸의 사적들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는 데 그 기본요인이 있다.

이 원칙적요구는 절대적인 것이다. 수령형상작품이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작가의 허구적인 산물이라면 누구도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역사적사실, 그 불멸의 사적과 업적을 인간학적으로,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살리는 데서 작가의 역할은 불멸의 사적과 업적, 원형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 데서 종자를 잘 잡는 것과 함께 더없이 중요한 것은 감정조직을 잘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령형상창작에서 감정조직은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비할바없이 중요한 창작상의 문제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감정조직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을 생활정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뜻깊고도 참신한 종자와 문제성을 틀어쥐고 감정조직을 해나가는데 있다.

또한 감정조직을 잘하자면 등장인물들의 형상과제가 뚜렷해야 하며 인물들 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문제성을 안고 있어야 한다.

문제성을 안고 있는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감정조직을 구체적으로 일관하게 끌고나갈 수 있으며 감정흐름을 전제와 발단, 축적과 상승, 폭발과 결속의 과정으로 엮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작품은 성격의 본질과 특성을 생활정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감정조직을 잘하는 것은 작품의 서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소설의 서정성은 무엇보다 먼저 이야기 자체가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소설에서 이야기의 서정성은 감정조직에 따라 좌우된다.

감정조직은 또한 생활세부묘사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장된다.

감정조직은 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극성은 원래 극문학의 고유한 속성이지만 일정한 이야기거리를 가진 소설작품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이 세편의 장편소설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된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감정조직을 깊이 있게 잘한 데 있다는 것을 실천적인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 《영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효성의 교감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인민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령님의 극적체험세계를 펼쳐보이는 것으로 감정조직은 능란하게 하고 있다.

소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기꺼이에서 수

령님과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성적인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효성으로 맺어진 눈물겨운 아름답고 숭고한 극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슴터질 듯한 격정의 세계, 커다란 극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가장 격동적인 극중의 극은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감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효성의 극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과 업적을 역사적사실 그대로 전개하면서 감정조직의 중심을 이 극성을 파는데 두고 작품의 총적인 흐름을 줄기차게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

두분의 위대하고 숭고한 극은 심리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심리극이 아니라 철학적인 심리극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께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산생되고 있는 극치의 극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화로 주체88(1994)년 새해 첫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설인사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소설은 첫시기부터 강한 극성을 띠면서 사람들을 극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새해 신년사를 다시 훑어보시며 5천년민족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도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가슴 아파하시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벌써 여든들이라고 하시며 조국과 혁명을 위해 견인불발의 의지로 심혼을 불태우시는 어버이수령님.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기에 언제나 자신을 어버이수령님의 전사로 생각하시며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위하여 온 심신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두분이 겪는 극은 강렬한 내부적충동, 뿜어넘치는 지향에서 분출한 것으로 하여 것처럼 숭고하고 강렬하며 격동적이고 뜨거운 것이다.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신년사를 하신 그 길로 농장을 찾으시고 급히 눈수술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간호원의 애타는 청도 마다하시고 단군릉건설장을 찾아가신 어버이수령님. 눈수술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밤새 모색해오시던 과업을 수행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몹시 안타까와하시면서 한생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혁명하는 사람은 시간과 동지를 아꼈는데 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되새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극적체험세계.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절절히 바라는 인민들의 편지를 록음한 카세트를 물으시며 인민을 위해 쉽없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 오히려 눈수술을 뒤로 미루게 된 자신의 심정을 리해해달라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의 세계는 인민을 위

해 자신을 깡그리 태가사시는 국성이 넘치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이다.

누구든 위대한 수령님께 매혹되는 위대성의 원천인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은 정녕 위대하고 강한것이다. 사랑한다는것은 곧 심장을 바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인민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깡그리 태우시는 이 사랑, 이 의지는 시련이 부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완강한 의지와 지칠줄 모르는 불변불휴의 정력을 바쳐가는 높은 희생성과 헌신성이다.

주체83(1994)년, 나라의 천만가지 중대사가 겹쳐든 그 복잡다단한 이 력사적인 해에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80고령의 년세에도 단 하루의 휴식도없이 지어 급한 눈수술과 수술후 치료까지도 뒤로 미루시며 불철주야로 밤마다 예나 다름없이 새벽 3시가 되도록 문건을 보시고는 정당, 사회단체 일군협의회, 전국농업대회, 국방위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였으며 소년단원들의 대회까지 몸소 참석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7월 5일과 6일에도 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친히 지도하시였다.

항일혁명렬사유자녀 랑귀동너로부터 꾸바너성 법률가 재미교포언론인 리영숙, 손원태와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수령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시여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 얼마인가. 이것은 다 력사적사실그대로이다. 작가의 허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심신의 고도의 연소를 요구하는 아버지수령님의 국사는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 실린 과중한 력사적과제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국사중의 국사였다.

그 력사적과제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녹여내는것만 같으시여 그이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다 말아안으시고 그이의 휴식을 보장하시려고 다 함없이 애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그 누구도 간파하지 못하였으나 신년사를 하시며 원고를 멀리 혹은 가까이로 옮기시며 초점을 맞추시느라 애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전에없는 모습을 마음조여가며 뵈게 된 순간부터 걱정을 놓지 못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빨리 눈치료를 받으시도록 청을 드리였으나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시자 수령님의 사업일정표를 직접 짜시여 휴식을 보장해드리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 .

차마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아버지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절절히 념원하는 편지를 록음한것을 올리는데로 수령님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했으나 오히려 눈수술을 뒤로 미루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시였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는 풀길없이 괴롭기만 하고 안타깝기만 한, 참다

운 수령의 후계자만이 체험할수 있는 효성의 세계이다. 이 괴로움과 안타까움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을 막을수 없는데서 산생되는 불가피한 아픔이다.

사랑이 불타면불탈수록 더 커가는 괴로움, 효성이 극진하면할수록 더 커가는 안타까움으로 더욱더 고조되어가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감세계는 참으로 극적이다.

이 숭고한 극은 극으로 이어져 소설의 감정흐름은 위대한 수령님의 카터접견장면을 통하여 더욱 승화되어 축적된다.

조국통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조그미한 가능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눈수술후 치료까지 뒤로 미루시고 가터방문요청에 응하시고 직접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희생성과 헌신성.

빛나는 예지와 담력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는 가장 현명한 대응단을 내리시여 세계적인 경탄을 자아내신 장군님께서 이 중대한 문제해결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눈치료를 받게 하실수 있게된것을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토록 진정에 넘치는 뜨거운 충효성.

아버이수령님의 휴식문제는 정치국회의에서 토의하고 합의본 문제이므로 자신께서도 어찌할수 없다고 원강히 거절하시였지만 끝내 이 청을 수령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색안경밑으로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은 오직 아버지수령님께서만이 수행하실수 있는 력사적업으로 해서 자신의 결심을 끝내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타까움의 눈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만이 흘릴수 있는 충효성의 눈물, 참으로 위대한 인간만이 흘릴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눈물이였다.

이 눈물에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이 비껴있고 우리 혁명의 력사가 어려있다.

이 눈물의 무게는 력사에 다시없는 위대한 수령과 후계자를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우리에게 되는 우리의 행복의 무게이다.

전인불발의 희생성과 헌신성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태우면태울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을 받아들일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괴로움의 세계, 충효성이 지극하면할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간절한 청을 막을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타까움의 세계.

이는 두분께서 《이민위천》의 리념과 사랑때문에 어쩔수 없이 풀길 없는 영원한 괴로움이요 아픔이였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감, 사랑과 충효성의 숭고한 극은 경제부문 일군협의회참가문제를 놓고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가 통일되고 인민들이 잘

살게 되는것을 보고야말겠다고, 이번 협의회만 지도하고 장군의 간청대로 휴식을 꼭 하겠다고, 기어이 협의회에 참가하시려고 걱정을 터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심장.

아버지수령님의 만수무강은 자기 개인의 소원만이 아닌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임을 절절히 말씀올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심정.

두분이 들으계시는 전화기에 흐르는 침묵, 그것은 위대한 력사적위업수행에 심장을 바쳐가는 그 폭파 깊이를 알수 없는 사랑과 효성의 무한대한 소용돌이였으며 쌓이고쌓여서 폭발직전에 이른 감정의 양양이었다.

이 거대한 축적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쩔수 없이 경제부문 일군협의회에 아버지수령님의 참가하는 문제에 동의하시자 드디어 폭발되었다.

이 걱정의 절정에 이르렀던 감정흐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애에 잠겼던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로 불러일으키시고 영결식날 위대한 태양상을 안겨주시는 력사적인 한쪽에 승화되어 금수산기념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빛나는데서 결속되고있다.

이처럼 소설이 위대한 수령님의 순직과 영생을 사상예술적으로 뜻깊게 보여줄수 있는것은 두분의 교감세계를 깊이 파고드는데 기본을 두고 감정의 흐름을 절로로는 고요하면서도 용용하게, 안으로는 격동이 소용돌이치게 감정조직을 하면서 이야기를 엮었기때문이다.

장편소설 《영생》의 감정조직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비결이 여기에 있다면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에서는 현대수정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의 반선을 직접 설정하지 않고 우리 일군들과의 관계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감정선을 주선으로 하면서도 기본은 깊은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적체험세계를 엮어가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의 인물관계조직과 감정조직을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적사회주의위업을 고수완성하시려는 의지적이며 헌신적인 지향으로 일관된 사색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중심을 두고 여기에 숭탄군당책임비서 차영진의 관계선, 그를 매개로 하는 송규태와의 관계선,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소부소장 류수진과의 관계선이 얹혀지게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부각하고있다.

국제공산주의재건운동의 보루와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재건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할 21세기의 위대한 령도자가 과연 누구인가. 작품의 이 사실주체적과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기 위해 사색하시는 사색과정, 내면적체험세계를 진실하고 풍부하게 개방할 때 생활적으로 실현될수 있었다.

제일주인공의 사색과정을 그린다고 하여 논리

의 세계만을 추구해서는 성공할수 없다. 작품에서 인물의 사색과정은 어디까지나 축적과 폭발의 형상 논리에 맞게 생활적인 체험과정으로 그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색과정을 추동하는 불타는 의지적인 지향세계가 대적체함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시대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체험시키는 인간들과의 생활적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작가는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인물들인 당일군 차영진과 행정일군 송규태의 인물선,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인 류수진의 인물선을 설정하였던것이다.

차영진선은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생활적으로 보여주는 선으로 설정하여야 했고 송규태의 인물선에는 인민에 대한 복무성문제, 관료화와 사리사욕의 철저한 극복문제를 체현시켜야 했고 류수진선에는 사대주의사교방식을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심각한 문제를 체현시켜야 했다.

위대한 장군님과 문제성있는 이 인물들과의 생활적인 련계는 사회주의운동의 비극적사태와 혼란상을 바로잡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용성같이 다지며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파시하는 생활정황으로 되고있다.

군당책임비서 차영진의 선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진면모를 축도적으로 보여주는 선이다. 이 선은 복잡한 사람을 민되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체현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주위에 사람들을 일심단결시키는 참된 당일군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력을 생활적으로 확인하는 선이다. 이 인물선과의 관계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적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체험적으로 감흥이 있게 그려보일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규태선은 일군들이 대중과 떨어져서 사무실에 들어박혀 관료화되면 중당에는 리기주의자로 떨어져 자신뿐아니라 아들까지도 변질시키는 부식작용을 하는 교훈적인 선이다. 이 인물선과의 관계에서 일군들이 관료화되고 리기주의에 빠지면 당과 인민의 리익을 저버리고 사회주의를 좀먹으며 망하게 하는 사태를 빚어낸다는것을 생활적으로 보여주는 체험조건으로 된다.

류수진선은 이전 쏘련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대주의적사교를 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는 신이며 세계적인 판도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드릴으로써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가면서 세계적인 정세분석

을 할수 있는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세워나아가게 하는 선이다.

류수진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생활국면은 심각한 문제성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과정을 심화시켜갈수 있는 하나의 계기적인 생활조건을 조성한다. 류수진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바지하는 교감과 체험조건을 조성하는 주요인물선으로 일괄하여 전개된다. 그것은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동유럽나라들은 다 망해도 소련이야 망하겠는가고 제나름으로 판단하다가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개혁》, 《개편》 바람의 소용돌이속에서 사람도 사회도 다 망해버린 소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서야 위대한 장군님의 예언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통감하는 류수진선은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확증하시는 장군님의 위대성,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의 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하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류수진의 운명선은 사상적과오를 범한 지식인을 버리는것이 아니라 한품에 안아 그 운명을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아버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체험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차영진, 송규태, 류수진선과 함께 사회정치적 문제의 심각성과 사상적과오의 엄중성으로 하여 자칫하면 잘못 평가되고 처리될수 있을변하였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꺾일없이 충성의 꽃을 피우는 리근무지배인선과 주상민선은 모두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끝없이 룡성변영하리라는 감흥을 자아내는 감정선으로 작용한다.

작품은 이 모든 인물관계선, 감정선과의 련계를 주체사상적내용에 맞게 잘 맺어가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도로 심오한 사색의 세계를 일관성있게 추구해나가며 감정조직의 형상론리에 맞게 뜻깊은 감정흐름으로 능숙하고 세련되게 그려보이고있다.

작품은 소설의 기본감정흐름을 이루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색의 세계를 어떻게 감동깊게 그리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적체험세계는 국제적관도에서 력사의 흐름을 천체적예지로 통찰하시고 그 어떤 력사적사변과 우여곡절속에서도 주저와 중요없이 위대한 주체의 진리대로 나아가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시시는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총복답게 일해가시려는 무한한 헌신성을 삶의 본분으로, 지향으로 굳히시는 위대한 혁명가의 세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적체험세계는 사회주의는 절대적진리이며 과학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새기시며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 싸워나가는 불굴의 의

지와 헌신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적미덕으로 간직한 백두산형의 위인, 장군형의 위인의 극적체험세계인것으로 하여 것처럼 뜨겁고 심원한것이다.

이른새벽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동강의 흐름을 보시며 크나큰 궁지에 넘치시여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체험세계는 사람들을 심원한 극의 세계로 이끌어가고있다.

소설의 감정흐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쏘련의 파국상을 직접 목격하고 《개혁》, 《개편》의 바람이 불어도 쏘련만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대주의를 해온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한 편지를 보내온 류수진박사를 접견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축적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류수진에게 쏘련이 망한것은 30여년간 수정주의로선과 《개편》의 정책으로 하여 변질할대로 변질되었기때문이지 과학적사회주의가 결코 망한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예측과 굴종. 자본의 노예가 아니라 세계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답게 살려는 인간이 단 한명만 있어도 사회주의는 죽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진리이며 과학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록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장쾌한 음악소리를 들으시며 깊은 명상에 잠겨계시는 감동깊은 화폭, 이 뜻깊은 화폭은 사회주의필승불패성이 력사발전과 시대변천의 필연임을 필승의 신념으로 더욱 굳게 새기시는 거룩한 위인의 극적체험세계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소설의 격동적인 감정흐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기천의 시를 읊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그이의 신념의 세계, 의지의 세계가 얼마나 심원한 세계에 바탕을 두고있는가를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더욱 깊이 축적되고있다.

이 감정흐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쏘련이 붕괴되는 참변이 일어났을 때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것을 다시금 론증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비상히 승화되고있다.

제국주의사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자본주의 제도의 영원성을 떠드는데 분격하시여 사색에 사색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회의장, 집무실, 응접실, 현지지도길, 그이께서 옮기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서 중형무진으로 빛발처간 사색과 사색의 거창한 세계.

장구한 세월 인류력사의 흐름을 거슬러 더듬어 보면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과 지향이 합쳐지고 합쳐져 하나의 도도하고 거세찬 력사적흐름을 이룬 인류발전, 력사!

그 대하속에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에로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로 발전한

인류사회력사를 더듬어보시며 사회주의는 장구한 인류사의 필연적귀결이며 사회주의는 절대적인 과학임을 확인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창한 사색이 얼마나 폭넓고 심원하면서도 구체적인 생활의 극으로 안겨오는것인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시대적본질, 력사의 필연성을 통찰하시고 사회주의재건운동이 일어날것이라는것을 확인하시며 사회주의가 좌절된 근본요인과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신념을 밝히고 되살려주기 위해 사색에 사색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적체험세계, 그 극적체험으로 일관한 사색의 장엄하고도 심원한 탐구의 세계를 거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공산주의운동의 진로를 밝힌 력사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시는 장면, 이 력사적인 장면은 현대공산주의운동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화폭으로 솟아오르게 된다.

끝없이 양양고조되어 축적된 소설의 감정흐름은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는 불멸의 화폭에서 폭발된다.

이 감정의 폭발은 하늘이 무너진대도 이 행성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이 살아있는 한 사회주의리념은 승승장구하며 세계의 중심은 조선이라는것을 세계에 선언하는것으로 높이높이 승화된다.

작가는 이 격동적으로 폭발된 감정흐름을 타고 승화된 상태에서 철학적여운이 조성되게 세계 5대륙의 2백수십개 나라 정당대표들이 《평양선언》에 서명하고 조선인민군창건 50돐행사에 참가하여 조선의 신념과 의지, 조선의 힘, 평양의 선언을 체험하는 대단원적인 장면으로 작품의 결속을 주는 숨씨를 발휘하였다.

이 감정흐름의 결속은 조선이 인류의 영결을 모시여 세계가 우러르는 존엄높은 나라, 력사의 방향타를 잡고 시대를 향도하는 나라로 그 위상을 떨치고있다는것을 깊은 여운속에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는 위대한 장군님과 클린톤과의 대결과정을 기본감정흐름으로 펼쳐나가면서 우리 군민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감정선을 결합시키는것으로 작품의 감정조직을 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는 조선의 운명, 조선의 존엄을 지켜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에 대한 서사시적송가이며 조선의 긍지에 대한 송가이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전기나 년대기에 흐르지 않고 력사 문헌적인 실화다운 비상한 감화력과 높고도 풍만한 예술적건인력을 조화롭게 밀착시킨 감정조직

에서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의 감정조직에서 특징적인것은 한편으로는 적들과의 적대적관계속에서 체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극적인 내면심리적체험세계와 다른편으로서는 인민군장병들과 외교부문 일군들과의 교감속에서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조화롭게 결합시켜나간것이다.

소설은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고 강요된 우리의 《핵의혹》으로 하여 빚어진 누가누구를 하는 대결전을 사실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예술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류의 공인된 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핵대결전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세계반동의 두목으로 전횡을 일삼는 미국대통령 빌 클린톤과의 대결을 정면으로 그려야 했다.

그래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도와 령도력을 구체적인 사색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 감정선을 감정조직의 형상론리에 맞게 뜻깊고 감동적으로 그릴수 있었던것이다. 《세계제패》를 위한 온갖 흥계를 꾸며내는 최고권력자, 백악관에 도사리고있는 클린톤을 등장인물로 설정하고 정면으로 그런데 이 작품의 인간관계와 감정조직의 특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소설에서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와 클린톤과의 내면적인 대결과 실천적인 행동의 대결은 직접적인 성격적충돌로 표현되지 않지만 군사행동과 외교실천활동에서 취해지는 공격적인 대응조치를 통하여 표현된다.

작품에 그려진바와 같이 클린톤은 시대를 떠난 위인이 없고 피어린 전쟁이 없는 영웅이 없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전쟁이라는 의미로 피를 물고서라도 달려가 기어코 이겨야 하는 마라손경기로 리해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개인리기주의자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전후 력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내려오면서 영웅조선앞에 도전했다가 혼썰나고 물러난 수치를 내가 만회하자, 그래야 사회주의를 중국적으로 없애고 자본주의영원성을 확증하며 세계제패실현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되는 주체조선을 없애치운 류레없는 위인, 영웅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한 대통령이 될것이 아닌가, 이런 참망에 불타는 클린톤은 백악관에 들어앉자마자 조선의 《핵문제》를 조작해내고 념변지구를 폭파해버리려는 《포커스작전》을 단행하려 하며 북조선전역을 점령하기 위한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2월관리리사회에서 《강제사찰》결의까지 채택케 한다.

은 세계와 진보적인류는 깊은 우려를 안고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을 주시하며 조선에 시선을 모으고있었다.

클린톤의 전쟁책동에 대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응책은 어떤것이겠는가. 초조감과 기대감

으로 하여 독자들의 시선은 그이만을 우러리 쏠리게 된다.

작가는 여기에 맞게 위대한 장군님의 주동적인 사색의 세계, 체험세계와 행동세계를 보여줄수 있도록 모든 인물선, 감정선을 그이의 선에 집중 시킴으로써 작품의 감정조직을 간명하고 박력있는 극조직으로 안받침할수 있었다. 그것으로 하여 극한점에 이른 조미대결전이 그대로 비긴 고도로 양양된 긴장한 극성, 조선과 세계의 자주적인 운명문제가 그대로 비긴 철학성이 안겨오게 작품의 이야기를 짜나갈수 있었다.

작품에 여러 측근인물들, 다수 인민군장병들과 외교일군들, 그들의 가족들이 등장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선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인물관계인들이 극히 간략하고 단출하면서도 매우 립체적으로 집중되고 집약되어있다. 이것이 이 작품의 형상적 성과를 보장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민군장령 오영범, 외교부제1부부장 문선규선만 다치면 경애하는 장군님께 친혈육처럼 엮혀있는 모든 인물선이 다 따라일어서게 되어있다.

이 집중적이며 집약적인 인물관계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근본원천을 밝히는 뜻깊은 교감적인 정황으로 작용한다.

인민군장병들과의 인간관계, 외교부, 일군들과의 인간관계, 인민들과의 인간관계는 모두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믿음, 사랑으로 주동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인물관계의 이러한 탐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이민위천》의 령도자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깊게 반영하기 위한 창조적인 탐구로 된다.

그이께서 오영범, 윤철, 림성산과 그들의 가족과 맺은 인간관계, 문선규와 그의 가족과 맺은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같이 그이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인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큰것이다. 그것은 이 인간관계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과 령도, 인품의 위대성, 신념과 의지의 필승불패성을 체험적으로 안겨오게 하는 감흥조성의 바탕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동시에 그것은 주체의 태양이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으로 평범한 근로자들과 그 아들딸들이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위력을 어떻게 마음껏 펼치는가를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정서적감흥조성의 생활적바탕으로 된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것이 이 작품의 인물관계와 감정조직에서 이룩한 탐구적성과를 담보한 중요한 창작적경험의 하나이다.

인물관계와 감정조직에서 오영범과 문선규의

관계선만 보면 그것이 미제와 사회주의조선과의 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세계사적승리를 가져온 요인을 생활적으로 극적감흥이 있게 그릴수 있게 한 담보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의 관계속에서 오영범, 문선규가 겪는 체험세계는 그이의 높은 뜻과 비범한 지략,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체현해나가는속에서 겪는 극적체험인것으로 하여 공지에 넘치고 감동적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영범과 인민군장령들이 기계화보병사단도하시범훈련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기뻐하고있을 때 훈련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실전이라면 막대한 희생이 기능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고, 우리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이 구현된 시작과 끝을 동시에 결속하는 전격적인 작전을 짚대 대하여 가르쳐주신다.

자기 과오를 높은 결단성을 가지고 극복해가면서 새 작전안을 짜는 과정에 비로소 승리의 열쇠, 이 세상에 사람이 열지 못하는 문은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반영된 시작과 끝을 동시에 결속하는 전격적인 새작전을 완성하는 오영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오영범은 《섬광》작전을 연구완성하는 과정에 그이의 주체적인 전법과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온몸으로 체현해간다.

소설은 오영범의 성장을 대견해하시며 군단장으로 《섬광》작전의 지휘를 맡겨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권총까지 수여해주시며

기쁨을 체험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외교부 제1부부장 문선규에게 무비의 담력과 배심으로 주동을 쥐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회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명철하게 밝혀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2월관리리사회에서 부당한 《결의》가 채택됐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있는 문선규에게 자신께서는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고 하시여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시고 적들의 《특별사찰》결의를 단호히 배격할 묘술과 담력을 키워주신다.

그이께서는 핵무기전과방지조약탈퇴성명에 바빠맞아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에 열을 올리며 적들이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을 때 강경한 자세로 미국과 회담준비를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적들이 협상을 제기해왔을 때에는 미국의 세계제패명줄을 끊어버리는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로숙한 외교관으로 자라난 문선규의 성장을 기뻐하신다.

오영진과 문선규와의 관계선에서 빛어지는 경

애하는 장군님과 전사들 사이의 교감세계의 묘사로 그 세계적인 대승리를 역사적사실그대로의 격동적인 화폭으로 진실하고 감흥깊이 그려보일수 있었던것이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심원하고 격동적인 체험세계와 내면적인 주정과 독백을 상기해보면 누구나 그것을 잘 알수 있을것이다.

당중앙위원회집무실에서 새벽 3시에 문선규를 내보내고나시여 조용히 흐르는 음악속에서 백두산 밀영집과 어머니의 자장과와 그 잊지 못할 미소를 눈앞에 그려보시며 조선이 없는 지구가 있을수 있겠는가! ...북반치는 극적인 내면독백을 토로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심리적모습.

오영범, 문선규를 능숙한 지휘관, 로숙한 외교관으로 키우시는 과정에 기쁨을 체험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심리적모습, 윤철, 림정산과의 관계속에서 오가는 교감세계 얼마나 감흥깊이 그려볼수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통찰력과 무비의 담력,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 이 모든것을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거룩한 인덕으로 관통된 정치적리념과 열화같은 인간애, 조국애로 뚫어넘치는 위대한 심장파 뚫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그 위대한 심장파 뚫어지는 인간관계, 교감세계의 조직을 떠나서 그 거대한 생활력을 감동깊이 그려보일수 없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외교부문 일군들과의 관계속에서 겪으시는 극적 체험세계를 중심으로 보여주면서도 적대적갈등을 이루는 클린톤과의 관계속에서 겪으시는 장군님의 체험세계를 기본으로 감정흐름을 짜나간데서 또한 세련된 기교를 보이고있다.

소설은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을 맹렬히 벌리려고 광분하고있는 놈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로 야기된 극적정황으로 하여 작품의 감정흐름은 고도로 팽팽한 긴장감, 초조감을 띠면서 고조되고있다.

날로 긴박해진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조선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며 조선에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명철한 판단을 내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적체험세계.

대형지도앞에 다가가시여 조국의 지도를 바라보시며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심중의 세계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세계이며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하지 않으시려는 무비의 담력과 의지의 세계인것으로 하여 그처럼 숭고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기상은 평화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령장의 높은 인간애의 발현이다.

적들의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재제로 첨예화된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조선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단호한 결심, 원쑤에 대한 무비

성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담력, 이 의지는 우리 공화국의 한치땅도 건드릴수 없다는 담대한 기상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서 단 한치도 물러설수 없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는 불굴의 의지이다.

소설의 감정흐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는 불멸의 화폭에서 깊이 축적되어 고조되고있다.

조선이 감히 세계 《장자》인 미국을 위협하고있다고 놀라와하며 불안해하면서도 냉변지구에 대한 기습을 노린 《포커스작전》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려고 발악하는 클린톤의 무모하고 무분별만 도전, 그에 대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의지, 두 나라 지도자들의 극도로 첨예하고 심각한 대결로 감정세계는 극도로 예리화되어 극적으로 고조된다.

극도로 첨예하고 심각한 극으로 이어진 소설의 감정흐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핵무기전과방치조약에서 탈퇴를 선포하는 장면에서 폭발한다.

이 단호하고 통쾌한 선언은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는 열렬한 조국애, 령장다운 무비의 담력과 멸적의 기상과 의지의 최고 극치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민의 운명은 수호하고 인류를 지키며 정의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할 무비의 담력과 의지, 필승의 지략과 령군술을 지닌 결출한 령장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결단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과방치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대응조치가 저들의 핵전략을 파탄시킬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선과 전쟁을 결심하고《포커스작전》은 계획한 날자에 수행하여 제놈들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려고 날뛰는 강경하고 오만한 클린톤의 도전.

이 횡포한 도전에 두차례의 드센 공격에 이어 군단규모의 대련합부대의 강력한 반공격훈련인 《섬광》작전으로 또 한차례의 섬멸적인 공격을 가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과시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의지.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극도로 첨예화된 폭발의 격렬성속에서 고조되던 감정흐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적들의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이 최고조에 이른 시각에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승리를 확신하시고 송도원국제야영소를 찾으시는 감격적인 장면에서 안도와 환희로 표미있게 역전된다.

이 감격적인 화폭에서 독자들은 핵대결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되새기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기상,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앞에 무릎을 꿇고 클린톤이 최고사령관동지께 협상을 정중히 제기한것으로 하여 감

정 흐름은 승리의 축포로 터져오르게 된다.

세계의 《유일초대국》, 세계의 《강자》로 자처하는 미국과의 핵대결전을 우리의 위대한 승리로 결속지으신 최고사령관동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 《나는 확신하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것ियो!》라고 대답하시는 이 숭고한 력사적인 화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화폭이며 인류인 미래를 확신케 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장군상의 일대 시위에 대한 경탄이고 감격이며 환호의 세찬 격량이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가 한편으로는 적대적 관계속에서 체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극적체협세계와 다른편으로는 우리 군민과의 직접적교감속에서 겪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정선을 펼친것은 매우 귀중한 창작적성으로 된다.

이 세편의 장편소설의 비상한 견인력과 감화력은 작품의 이야기조직에서의 감정조직과 함께 문화적인 이야기를 생활적으로 실현하는 생활세부화에서 감정조직을 잘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적감흥을 뜻깊게 조성한 성과와 경험에 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 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 때라야 작품에는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감정조직의 견지에서 생활세부화는 무엇보다먼저 등장인물들의 련계를 맺어나감으로써 이루어지고 축적되어나가는 문학적인 이야기의 감정바탕에 기초하여 그 흐름을 타고나가면서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세부화는 그 문학적인 이야기 전개 과정에 빛어진 정황적인 생활을 인물들의 교감과 감정교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분석적으로 그려야 한다.

세 작품의 생활세부화에서의 성과는 생활세부 묘사일반이 아니라 생활을 세부화하여 묘사함에 있어서 감정조직을 잘한 측면을 이야기하는것이다.

장편소설 《영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정선을 작품의 기본흐름의 주선으로 엮어나가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생활세부화하여 소설적인 화폭창조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83(1994)년 7월 5일 아침 정무원경제부문 일군협의회지도문제를 두고 두분사이에 오고간 전화장면, 이 빛나는 장면이 그처럼 감명깊이 그려질수 있는것은 생활세부화에서 감정조직을 아주 능숙하게 잘한것과 관련된다.

이 장면은 이 작품의 얼굴, 그 눈동자, 아니 작품의 심장부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보인 기념비적

응축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 장면의 생활세부적인 묘사가 작품전체를 묘사시키는 가장 빛나는 결정체로 될수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시작인 신년사장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카터접견장면에 이르기까지 두분사이에 오고간 교감과 감정교류가 쌓이고쌓인 축적을 타고 성숙될대로 성숙되어 한껏 무르익힌 폭발로써 그 장면의 생활세부묘사가 주어지기때문이며 감정론리에 맞게 치밀한 감정조직으로 안받침되어있기때문이다.

유명한 이 통화장면을 관통하는 두분의 감정론리, 그것은 계속 지속되어오기만 하고 해결할길 없는 심각한 모순적인것이다. 그러나 사실 본질에 있어서 일치한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휴식 문제를 두고 두분사이에 교감되는 감정교류에 실린 문제성은 주체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루하루 어쩔수 없이 미루어오시기만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휴식보장 문제는 국사중 국사로서 진정 더는 미룰수 없었다. 이것은 장군님께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였으며 필생의 의지였다. 이번만은 절대로 양보할수 없었다. 그것은 지난날 리성으로 양보할수 없는것이면서도 감성으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루하루 양보하지 않을수 없었던 가장 안타깝고 괴로운 모순적인것이였다. 이번에는 기어코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 장면에 관통되어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의지적인 지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80평생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하루의 휴식도 없이 헌신해온것처럼 언제 한번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휴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으시였다. 조국통일을 이룩해서 겨레와 인민에게 최대의 선물로 안겨주며 인민생활을 만족스럽게 높여주는 지상의 과제를 아직까지 이룩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80고령이고보니 새해벽두부터 모든 일을 서둘러 다그치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진정 이것이 내심의 불타는 의지적인 지향이였다. 여기에 것처럼 눈물겹도록 가슴뜨겁고 고마운 후계자의 끝없는 충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버이수령님의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것이 이 장면에 관통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타는 의지적인 지향이며 그로 하여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인간세계이다.

작가가 심각한 문제성을 안고있는 두분의 의지적인 지향과 그 운명적인 안타까움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틀어쥐고 감정조직을 일관성있게 해내갔기때문에 통화장면이 성공할수 있었다.

두분사이의 통화장면의 생활세부적인 묘사가 성공할수 있는것은 이 심각한 문제성을 전개함에 있어서 감정조직의 견지에서 묘사시점문제를 적중하게 설정한것과도 관련되어있다. 작가는 두분의 교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감정선을 기본으로

삼고 수령님의 시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장군님의 시점으로 혹은 작가의 시점으로 때로는 책임서기 리대천의 시점으로 분석을 주고있다. 이것은 제일주인공선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를 분석적으로 그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로 일관된 내면적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기 위한 적중한 방법이였다.

통화과정에 체험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감세계를 기본으로 생활세부화를 관통시킨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80평생을 더듬어볼수 있었을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생을 동시에 생활표상적으로 뚜렷이 그려보일수 있었다. 도중에 송수화기를 놓고 집무실안을 도시며 한생을 더듬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리를 그리면서 특히는 아버지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유언을 회고하시면서 아드님이신 장군님의 간청이 대조를 이루지만 따지고보면 별개의 모순된것이 아니고 인민을 위한 혁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공통된 하나의 출발점에 합치된다는 분석. 이것은 통화장면의 뛰어난 성과를 담보한 결정적인 발견으로 된다. 이 발견은 통화장면의 밑바닥에 흐르는 백두산일가의 《이민위천》의 철학세계와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가풍까지 정서적감흥으로 받아안게 하는 사상의 발견으로 된다. 이런 뜻깊은 사상을 심어놓음으로써 작품은 심원한 철학적인 감흥을 안겨줄수 있었다. 이 발견은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를 기본으로 파고 장군님과 교감세계를 깊이 추구했기때문에 얻어진것이다.

이 통화장면의 생활세부화가 이처럼 뛰어나게 성공할수 있는것은 통화과정을 총비서와 조직비서의 관계를 매우 정중하게 그리고 매우 간명하게 그리면서도 두분의 위대한 인간상을 깊이 드러내보인 인간학적탐구의 작가적인 투철성을 견지하고 과시한것과 관련된다.

다시말하여 그 간명한 대화물에 깔린 위대한 인간세계를 심리적인 사색과정으로 분석하여 안받침하며 때로는 양보할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송수화기를 놓기도 하시며 지어는 침묵으로 가슴넘치는 간청과 호소의 절절함을 전하기도 하시는 두분의 진정에 넘치는 주정세계가 더는 억제할수없는 내면독백으로 터져나오게 위인들의 깊은 내면세계를 극적으로 파고든 작가정신의 투철성과 관련된다.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시는 거룩한 심장의 박동과 심혈이 그대로 울려나오고 고도로 억제된 조용한 말쑥의 잔잔한 음조로 하여 웨침보다 더 강렬하게 안겨오는 절절한 호소, 말없는 말속의 말, 무언구적인 행동세계, 그자체가 위인의 내면적 절절함과 안타까움을 의미할뿐아니라 고도로 억제된 내면적주정과 독백을 전하는 극적인 언어로 되며 주정의 분출을 예고하는 극적인 언어로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가 통일되고 우리 인민들이 잘살게 되는것을 보고야말겠소. 기어이!》

불시에 걱정을 터치시는 수령님의 열렬한 갈망,

그 불타는 거룩한 심장이 의지적인 지향을 담은 호소를 어찌 막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그 《이민위천》의 불같은 헌신성과 불같은 열정의 분출을 막을수 있는 힘은 이세상에 없을것이며 아무리 강철같은 리성이라 한들 어찌 그것을 외면할수 있겠는가.

《수령님!... 수령님의 심정이 리해됩니다.》

《그러니 동의한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일동무, 정일이.》

《아버님!》

수령님께서서는 하마트면 송수화기를 떨굴번하시였다.

수십평생 그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이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던 장군이 지금 뜻밖에 《아버님!》이라고 불려온것이다.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수령의 전사라는 말없는 의사표시일것이지만 다시한번 아버지라는 부름을 듣고싶으시였다. 그러나 다시는 들으실수 없으시였다. (사실상 그것이 성장하시여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였다.)

《수령님!》 《조직비서동무!》로 직무상 호칭으로 시작되어 흘러오다가 드디어 《정일동무, 정일이!》, 《아버님!》의 출발로 극에 이른 이 통화, 교감이 절정에 이른 잊지 못할 이 생활화폭, 여기에는 소설의 첫시작인 신년사로부터 축적시키며 몰아온 두분의 교감세계가 깔려 있을뿐만아니라 수령님의 순직과 영생장면의 사상에예술적성과를 밑받침한 생활정서적바탕이 응축되어있다. 진정한 인민의 위대한 수령과 후계자의 거룩한 내면심리적유익함과 위대한 인간상이 격동적인 감흥속에 높이 부각되어있는 이 기념비적화폭은 우리 문학이 이룩한 불멸의 봉우리의 하나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장편소설 《영생》이 이처럼 주선을 부각하기 위한 중요장면들의 생활세부화에서 감정조직을 두분의 내심적인 교감과 심원하고 뜨거운 움직임의 섬세한 분석과 결합이 이루어지게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도 주요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맺어지는 생활에 대한 세부화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소설의 한장면에서 잠시 등장하는 삽화적인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 대한 세부화에서 인상깊은 성과를 달성하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삽화적인 인물과의 관계속에서 겪는 제일주인공의 내면생활은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이 자못 크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작품의 고유한 종자와 사상주제적과제와 요구로 하여 제일주인공의 사색과정을 폭넓게 깊이 추구하여야 할 요구가 제기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물론 주요인물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통해서 장군님의 사색,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시려는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가

다듬으시며 과학적사회주의의 진로를 밝히시는 그이의 위인상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것을 무심히 보아넘기시지 않으시며 깊은 사색에 몰두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정을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생활적으로 그려보이자면 현지지도의 길에서 목격하게 되는 군중의 움직임은 그대로 반영한 삽화적인 인물과의 교감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기시는 내면적모습을 그려보이는것이 또한 절실히 요구되었다. 작가는 소설의 내부적구조가 제기하는 요구를 절감하고 삽화적인 인물과의 관계속에서 겪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감세계와 사색의 세계를 인상깊게 그려보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적사회주의리념을 구현하는 운동을 세계적인 판도에서 현명하게 이끄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신 그이의 위대성에 대한 매혹적인 감흥에 잠기게 한다.

밤늦도록 대동강변에서 속삭이는 청춘남녀들이 탄광에 지원가기 앞서 마지막밤을 즐기는것이라 는것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엇이랴도 주고싶으시였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것을 못내 안타까와하시며 부관이 자기에게 있는 라이타와 담배를 가져다주겠다고 하자 어서 그거라도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 생활세부, 아 인상깊은 세부는 모두 정도자와 인민의혈연적인 교감세계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세계적인 정도자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에는 언제나 인민과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놓여있다는것을 얼마나 감명깊게 보여주는것인가.

이 삽화적인 세부는 정도자와 인민의 혈연으로 엮힌 교감세계를 뜻깊게 김홍이 있게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의 정도자를 형상하는 수령형상창조에서 작품의 철학적감정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더없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이것은 중요장면만 중시하면서 세부화하는데만 전심하지 말고 삽화적인 세부묘사와 그의 감정조직에도 웅당한 관심을 돌리고 심혈을 기울일 때 작품의 형상세계를 확대심화시키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에는 모든것이 추위에 얼어붙고 깊이 잠들어버린 이른새벽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이 모자라면 송탄유를 뿜아쓰고 소로 발을 갈고 달구지로 거름을 내서라도 농사일은 자기들이 다 맡겠으니 걱정마시라고 하던 로병분 조원들을 다 위해주고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장군님께서 차를 따라오며 인사를 올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을 느끼며 생각에 잠기시는 생활세부, 이른새벽 일군을 찾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속하는 1분간 깜박 잠드시었다가 깨어나시면서 사람이 24시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아주 간단한 일화적인 생활세부가 있다. 이 일화는 고도의 목적의식성으로 끊임없이 일하시며 사색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생활세부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의 깊은 감명을 뜻깊게 자아내고 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의 생활세부화에서 감

정조직을 잘한 성과는 생활세부를 전체와 축적이 이루어진 생활세부로 그림으로써 뜻깊은 감흥과 여운을 조성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핵전쟁도발에 광분하는 미제의 책동에 시종 공격적으로 대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드디어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는 극적인 내면세계를 그려보인 실례에서 뚜렷이 확인할수 있다.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류레없는 비상한 담력을 생활론리와 감정론리에 맞게 진실하고 심오하게 그리기 위하여 그것을 여러번 전체와 축적이 이루어지게 묘사하고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기상을 극성이 느껴지게 작품전과정에 그리기 위하여 작가는 세번에 걸쳐서 생활세부적으로 그려보이고있다.

문선규를 내보내고 새벽 4시에 홀로 명상에 잠기신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소집하신 정치국회의장면을 안받침하는 전체와 축적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 조선의 운명에 대한 깊은 명상에 잠기시여 백두산밀영의 깊은 밤 《반달》의 노래를 불러주시던 어머님과 교감속에서 조국의 귀중함을 되새기면서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찬 이 사상적충격, 불타는 내면의 주정을 인상깊게 그려보인 장면과 정치국회의에서 핵전과방지조약에서의 탈퇴로 적들에게 맞서야 한다고 말씀올리시는 그 놀라운 장면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통쾌하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는 생활적인 바탕으로 된다.

또한 정치국회의장면에서 최광동지가 얼마전에 진행된 전인민군정인 병중대회때 차수, 장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들이 핵무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물음에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고 말씀올리는 장면이 겹쳐들게 하였다.

정치국회의장면은 이러한 장면으로 안받침된것으로 하여 감정흐름은 전체와 축적을 타고 폭발적으로 앙양될수 있었다.

이 장면의 생활세부묘사가 고도로 양양된 사상적충격을 안겨준것은 선행장면이 생활적으로 안받침되어있는데 그 요인이 있을뿐만아니라 대형지구의를 세련되게 리용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적세계를 분석적으로 그린데 그 요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형지구의가 있는 앞락에 경애하는 장군님과 마주 앉아계시는 의미심장한 묘사로 시작하여 여러번 지구의를 돌리시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시며 말씀하시는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교감세계에 각광을 집중하여 그리다가 나중에 수령님께서 지구의를 돌리자 지구자체가 돈다는 시적인 묘사를 줄 때 폭발되면서 독자들은 깊은 감흥에 휩싸이게 된다.

인류운명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두분의 빛나는
 령도로 조선의 운명이 지구의 운명이고 조선의
 운명이 인류의 운명으로 된 오늘의 엄연한 현실
 과 진리는 핵몽둥이를 휘둘러 《세계제패》를 감
 행하고있는 미제와 치렬한 대결로 하여 더욱 엄
 연한 현실과 진리로 세계와 인류의 면전에 부상
 되었다.

조선과 지구, 조선과 인류의 운명을 맡으신 두
 분의 수령, 위대한 수령님과 똑같은 지략과 담력,
 인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21세
 기는 **김정일**시대로 빛날것이다! 이것이 최광동지
 를 비롯한 등장인물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 독자
 들이 체험하는 주정의 세계이다.

대형 지구의세부에 작가가 발견한 뜻깊은 상을
 체현시켜 극적인 감정의 양양과 시적인 정서의
 승화를 보장함으로써 생활세부묘사와 감정조직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였다.

장편소설 《영생》, 《력사의 대하》, 《평양은 선
 언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효성과 충성의
 열정으로 량심의 불꽃을 날리는 작가의 고심어린
 창작적사색의 필연적산물이다.

위대한 수령이 있어 위대한 인민이 탄생하는
 이 빛나는 시대,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이 울려퍼
 진 이 장엄한 현실은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
 한 종자를 얼마나 수많이 배태하고있으며 작가
 들을 깊은 사색에로 이끌어가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주체의 예지로 빛나는 우리 당의 사상
 과 철학으로 사색하고 탐구하며 위대한 수령, 위
 대한

인민을 가슴터질듯한 사랑으로 노래하는 우리
 작가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에 넘치는것인가.

백두산의 불타는 새벽

홍현양

푸릿한 새벽
 밀림의 오솔길을 밟으시며
 우리 장군님
 왜 이 산정에 오르셨을까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밟으시며
 새벽을 헤치시며
 우리 장군님
 왜 백두산에 오르셨을까

어버이수령님
 뵈고싶은 그 마음
 그리움이
 간절함이 더하실수록
 우리 장군님
 자주 오르시는 백두의 이 산성
 바라보시는 백두의 저 해돋이

기쁨이 있어도
 이 산정에 오르셨지
 어버이수령님께 아뢰고싶은
 천만가지 소원이 있어도
 불타는 백두의 태양앞에
 조용히 서계셨지

아마 깊은 밤에 문득
 어버이수령님을 찾아
 전화기를 드셨다가도
 눈물에 젖은
 교환수의 말을 들은 그런 날에도
 마음은 백두산정에 오르셨으리

아, 못잊을 그날처럼
 그날처럼 백두산정에 함께 오르시어
 《사향가》도 조용히 부르시며
 항일의 피어린 날을 들려주셨으면
 우리 장군님의 가슴타는 그 소원
 불길로 솟구치는가

밀림의 설레는 바다도
 붉은빛 대지
 가없는 하늘도
 붉은빛 창공
 안개도 불타며 굽이치는 밀림의 광야

붉은 천지우에 솟은 태양은
 정녕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 모습
 그렇듯 뵈고싶은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영상

정녕 백두의 해돋이순간은
 무거운 혁명의 중하를 놓고
 가야 할 시련의 천만고비를 두고
 우리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과 만나시는 새벽
 수령님의 혁명위업 끝까지 이어갈
 장군님의 맹세로 불타는 새벽

그래서 백두산의 새벽은
 장엄하다
 숭엄하다
 뜨거웁다

룡문대굴

박근원

축복

우리 장군님 걸으신 위대한 자옥우에
전사의 작은 자옥 없으며
내 지금 룡문대굴에 들어서노라

아, 이런 신비의 명승 세상에 있었더니
땅우의 천하절경 보아왔고
바다밑에 궁전 있다는 옛말 들어왔어도
땅아래 이런 절승은 처음 보는구나

위인을 기다려 꾸리고 다듬어왔느냐
우리 장군님 보시기전에야
여기 일만경치 펼쳤음을
그 누가 알거나 하였으랴

장군님 맞이한 그날
한껏 드러낸
천정의 《서리꽃》
《보석무리등》의 눈부신 빛발
신비경의 만물상...

세월의 언덕 넘고넘으며
더더욱 모시고싶던 위인을 맞아
기쁨의 환호를 올리던 그날의 영광을

황홀경 속에 영원히 간직하려
이토록 땅밑 깊은곳 태고의 자연속에
네 우아한 모습 은빛으로 펼쳤느냐

네 모습 하도 기기절묘하여
한번 만져보고싶구나
허나 아니할 생각
내 감히 너에게 손을 대다니...

우리 장군님 너를 만져보시며
현지지도길에서 쌓이고쌓인 로고
한순간이라도 푸시기를
너나 우리 그토록 바랬건만
위대한 그이께선
돌꽃잎 하나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뜨겁게 뜨겁게 타이르지 않으셨더니

아, 위인을 축복하여
네 화려한 절승 펼쳤건만
위인의 축복속에 영원히 아름다울
조선의 룡문대굴이어

위인의 성지 《백두밀영》

하얀 붓나무
이깎나무 《밀립》 속을 지나
《고슴도치부부쌍보초》를 거쳐 들어서니
눈앞에 펼쳐졌어라
위인의 성지 《백두밀영》이

거연히 솟은 《정일봉》
성지를 지켜선 《충성목》들
위인을 모시려고 앞발을 구부린 《준마》
흰눈덮인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

인류 백만년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제일위인
그분의 성지를 어찌 땅우에만 두랴싶어
이렇듯 땅아래 희한한 궁전에
《백두밀영》을 펼쳤구나

내 여기 숨엄히 섰노라니
백두의 숨결 폐부에 와닿고

백두의 붉은 피 심장에 흘러드는듯
백두의 넓이 온몸에 차넘쳐라

하늘땅 뒤흔들며
휘몰아치는 세찬 바람 없어도
나는 여기서 맞노라
백두의 눈보라를
피였다 지는 꽃은 없어도
나는 여기서 보노라
피고 또 피는 강성대국의 봄꽃을

영원한 태양의 별이 있어
불에도 타지 않고
폭우에도 스러지지 않을 강성대국의 꽃

그 태양의 별은
우리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
아, 이 가슴속 뚫는 피 태워
그 수만줄기 태양의 한 빛발이라도

더 뜨겁게만 해줄수 있다면
내 더 바랄게 없겠노라

아, 내 섰던 자옥우에
심장의 보증으로 새기노라

장군님 받들어 나가는 길에
끊어번지는 피와 열 통채로 바치며
내 마음은 언제나
여기 《백두밀영》앞에 서리
성지의 영원한 《호위병》으로

《풍년탑》

승리의 봉우리마냥
우뚝 솟은 《풍년탑》
《하늘》가에 치솟은 《로적거리》
흐뭇하게 바라보는 《농민》

무더위와 폭우를 이겨내며
《고난의 행군》 승리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
한없는 궁지와 자랑 안고
내 나라 가을을 네 여기 펼쳤구나

제국주의의 끈질긴 경제 《봉쇄》도
자연의 그 어떤 혹심한 피해도
우리가 가꾸는 열매 감히 못다친다는
조선의 그 신념, 그 배심이

《풍년탑》되어 높이 솟았는가

너는 말해주는듯싶구나
우리 수령님 한평생 눈비를 맞으시며
논두렁길우에 찍으신 자옥
우리 장군님 전선길 이어 걷고 또 걸으시며
포전길우에 찍으신 자옥
그 위대한 자옥자옥이 쌓이고쌓여
《풍년탑》이 되었다고

아, 그래서 내 그리도 굳건하고
내 조국의 영원한 《풍년탑》으로
자랑스럽게 높이 솟아있구나

승리의 메아리

아찔하게 높은 《하늘》가에서 내쫓는 폭포
그 어떤 물길의 도움도 없이
그 어느 바위에 부딪쳐 부서짐도 없이
장대같은 물줄기 곧추 내리쏟으며
끝없이 울려주어라
우렁찬 메아리, 메아리를...

백두의 기상안고 폭풍치는 천지의 푸른 물
천연지심 들부시며 내쫓는가
내 신통히도 닦았구나
붉은기높이 제국주의 짓부시며
단신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 내 나라
위대한 **김정일**조선을

통문대굴의 장엄한 폭포 너는

최후승리의 웃음안고
새 세기를 맞이한
강성대국 조선의 모습

끝간데없이 울려가는 폭포의 메아리, 너는
《광명성1》호의 발사 그 포성으로
온 지구, 온 우주를 들었다놓는
백승만세! 조선의 웨침

내 가슴가득 안노라
곧추만 내쫓는 폭포
너의 무쌍한 기질을
내 심장가득 간직하노라
영원한 승리의 함성
너의 우렁찬 메아리를

황홀경의 《나라》

통문대굴
들어서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았어도
또 보고싶은 너의 우아한 절경
내 너의 황홀경에 반하여
너를 두고 떠나자니
쉬이 발걸음 못떼겠구나
《신선할아버지》
《옥황상제》...

하늘나라에서 온 《손님》도 있고

《코끼리》
《사자》...
땅나라에서 온 《손님》도 있고

《문어》
《곰등어》...

바다나라에서 온 《손님》도 있고
세상 《손님》, 만물 여기 다 모였거니

하늘나라 《대왕》도
땅나라 《대왕》도
바다나라 《대왕》도
태양의 위인을 우러러
태양의 나라 여기로
《특사》들을 보내온게지

우리 장군님 만나뵙고는
제 나라 《대왕》도
제 나라 《친지》들도 다 잊었느냐
《특사손님》들이여
어이하여 이자리를 뜨지 못하느냐

태양의 빛받아
황홀경의 《나라》 세우고
명승의 《락원》을 펼쳤으니
그대들 어찌 여기를 프라만
떠나온 제 《나라》 걱정은
늘 마음 한구석에 안고있으리

《특사손님》들이여
아니할 걱정은 말고 마음 폭 놓으시라
우리 태양의 빛받아
그대모두의 《나라》 들에도 비쳐가리니

아, 온 세상모두가
마중오는 미래의 모두가
우리 장군님 해빛속에
영원히 빛나 무궁하리!

우사장의 밤이여

박호범

잘 있었느냐
나를 불러 수십년세월
이 몸을 시인으로 키워온 우산장이여
내 오늘은 장군님의 사랑을 안고
휴양의 몸으로 너를 찾아왔노라

걸음은 가벼워도 생각은 무거워라
사람마다 강행군의 땀을 흘리는 때에
이 가을을 푹 떼여
이 몸을 여기에 담아주신
장군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장군님의 체온이 스민 아늑한 방
우리 작가들을 찾아 밤길 수백리
장군님 그밤에 들리셨던 그 방에선
오늘도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구나

나는 여기서 시를 배웠노라
여기서 쓴 시를 장군님께 올리면
장군님 내 시를 다듬어주시기를
해해년년 그 몇십번이시던가
우리 시인들은 장군님 술하에서
시를 배우며 인생을 배웠노라

여기서 눈섭이 희여지도록

3대장군의 불멸의 총서를
더미더미 쌓아놓고간
총신들의 뉘는 어느 지붕아래 깃들어있느냐
여기서 동행자의 첫자욱을 땀
청년작가들은 또 얼마나 많으나

인간이 태를 묻은곳이 고향이라면
우산장은 주체문학이 태를 묻은 고향
어디에 갔다가도
조국땅 그 어디에 갔다가도
배낭에 가득 원고지를 메고 들어서는
너는 우리 작가들의 고향이여라

여기서 시가의 장점이 번개치여라
여기서 3대위인의 총서가 태어나라
붓으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해가는
아, 우산장 우산장
너는 우리 장군님 사랑의 품이여라

오는가, 밤이여
머리말에선 단풍잎 설레는 소리
살랑살랑 잠을 부르는 소리
꿈조차 장군님 그리는 꿈을 꾸는
아, 나의 밤, 우산장의 밤이여

(주체87. 11. 4)

세계를 굽어보는 거인적감정의 열렬한 분출

리주정

보람찬 새해에도 지구를 씹없이 돌고도는 우리
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남다른 공지와 자
부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발사와 더불어 한
껏 부풀어있다.

온 세계를 뒤덮고있는 이 열기는 시대의 가수
인 우리 시인들의 가슴에도 세계를 굽어보는 거
인적 감정이 용솟음치게 하고있다.

시 《우주는 우리의것이다》(류동호)는 얼마나 자
신심과 랑만에 넘치는 결정의 분출이고 세계를
굽어보며 우주를 향해 터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
성대국의 당당한 주인, 우리 인민의 거인적감정
의 세찬 퍼덕임인가.

돌이켜보면 망국의 설움에 울다울다 목메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계절의 봄마저
빼앗기고 몸부림치던 우리 시인들이다. 허나 오
늘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공지에 넘쳐 웨치고있
다.

우주는 우리의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수난의 그 세월 만국평화
회의장에서 독립을 구걸하다 거절당한 치욕을 씻
을길 없어 배를 가르고 피를 뿌려야 했던 민족이
오늘은 그 《렬강》들의 면전에서 우주는 우리의
것이라고 당당히 웨칠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난관을 겪고있지만
멀지 않아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습니
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주체의 강성대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려는 시대의 영웅이시고 새 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의 신념
과 의지, 불의 열정이 하늘땅에 퍼득이고 그것이
시인의 가슴을 짊 채우고있기때문이다.

시인의 가슴속에 솟구치고있는 그 거인적열화
는 정치적인것과 형상적인것의 능숙한 결합을 통
하여 절절히 노래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보리라
수령님식 자력경쟁의 위력이
그 발사대가 되고
장군님의 혼연일체의 한마음이

그 동체가 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리정표가

불변의 궤도가 된 인공지구 위성

김정일조선 위력을!

...

우주는 우리의것이다

천만년 장군님만을 따를

영원한 일심단결의 궤도를

조선은 저 하늘끝까지 이어놓았다

우주는 우리의것이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매혹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호모와 승
배, 충효심,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힘
의 원천,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절대적
인 락관 등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사삼감정이 집
약적으로 서정화되어있다.

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은

김일성민족의 힘과 지혜로

김정일조선이 우주에 안아올린

21세기 희망의 거성

시의 랑만적정서는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오
직 자체의 힘과 지혜, 우리의 기술과 자재, 설비
로 훌륭히 만들었다는것이며 그것은 우리 식 사
회주의 승리의 상징이고 사회주의조선이 21세기
를 대표하는 인류의 마음속에 간직된 유일한 회
망의 별이라고 노래한데서 질계 나타나고있다.

특히 《안아올린》이라는 표현에는 《고난의 행
군》에 이어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다그쳐나
간 우리의 현실이 있는그대로 의미깊게 반영되고
있다. 시의 서정구조적특성은 주체의 강성대국의
포성을 울린 인공지구위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
중적인 정서적체험을 감정발전의 주선으로 살리
면서 결구어로 승화시킨것이다.

시에서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위대한 승리
의 축포, 수령승배의 장엄한 퇴성, 붉은기의 위성,
사회주의 위성, 우리 장군님의 위성, 20세기 승리
의 별, 21세기 희망의 지성, 영원한 일심단결의
궤도를 하늘끝까지 이어놓은 조선의 위성이라는

표현들으로써 서정의 기승전결을 보장하면서 우주는 우리의것이라는 사상적핵을 걱정해 넘쳐 분출하고 있다.

실에서는 《우리》, 《나》와 같이 주관적정서가 짙은 대명사를 숨씨있게 활용함으로써 인공지구위성을 씌워진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인민의 높은 열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제목부터 《우주는 우리의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내 나라》, 《우리 희망처럼》, 《우리의 위성》, 《우리 인민》 등의 표현들을 11개련밖에 안되는 크지 않은 시에서 반복하여 적극 살려냄으로써 주체의 강성대국이 그 누구의 선사품이 아니라 바로 시인자신이, 우리모두가 해야 할 숭고한 혁명위업이라는것을 력점찍고있다.

시에서 노래된것처럼 그 누가 우리를 강성대국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으며 만들어줄수도 없다. 우리는 오직 자기의 신념과 의지, 자기 힘과 지혜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한다.

주체의 강성대국의 장엄한 포성은 시 《조국이여 인민이여 앞으로》(《조선문학》주체87(1998)년 9호 오영재)에서도 뜨겁게 메아리치고있다.

시는 강성대국건설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고있는 우리의 발걸음에 초점을 두고 서정의 나래를 자유분방하게 펼치고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드높은 신심과 희망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 나선 우리 인민의 걸음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고 심장의 숨결을 맞추어나가는 력사의 새 진군이라고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또한 시련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던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길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 길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걸음을 따랐기에 혁명의 붉은기, 승리의 붉은기를 총대로 휘날릴수 있었고 그 걸음을 따랐기에 한번 비칠거린적도, 헛디딘적도, 힘겹다고 쉬여간적도, 길이 험하다고 에든적이 없이 곧바로만 달려온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이였음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다.

어제도 따랐고 오늘도 따르며
천만년 미래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장군님만 우리러 따를

우리의 걸음이여

시의 후반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따를 우리의 걸음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면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길, 최후승리의 길로 더 힘차게 나아갈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으로 더욱 부강하게 하시기위해 혁명의 진두에서 승리의 열쇠만을 안아 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억센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야 한다.

현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걸음에 제일먼저 보폭을 맞추고 심장의 박동을 맞춘 사람들은 강계와 성강 사람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쏘아올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시대의 기수답게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앞장에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혁명적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대한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 군중시사상, 일심단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헌신적노력은 강성대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라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열의에 불타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 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시대의 높이에서 훌륭히 노래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때라야 우리는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참된 주인공이 되여 우주는 우리의것이라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선언한 시인처럼 우리의 벅찬 현실을

뜨겁게 안아올릴수 있으며 우리의 시단에서 강성대국의 포성이 련이어 울리게 될것이다.

주체의 강성대국의 장엄한 포성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에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인 우리 심장의 세찬 박동과 높은 숨결에서부터 울리게 하자. 하여 시인들모두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거인이 되자. 이것이 끝으로 하고싶은 말이다.

푸른 수첩

한인준

나는 지금 호젓한 방안에 푸른 수첩을 펼쳐놓고 망연히 앉아있다. 거기에는 안해 리금숙의 동글동글한 글씨가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있다.

《2소대동무들이 나올 때까지 일을 멈추지 말걸 그랬어요.》

(그러니 2소대가 안나오면 웅근 한교대라도 더 연장작업을 하라는거지.)

나는 훌쩍거리며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두번째 빈 곱셈이 글줄을 더듬었다.

지금 우리 공장 중형발전소건설공사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우람진 언젠가 웅자를 드러내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키돋음을 하고있다.

그럴수록 딸리는것이 막돌과 골재였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보름째 강을 따라 올라가며 자갈을 추고있는데 소대별로 낮에 밤을 이어 교대작업을 했다.

헌데 오늘은 어찌된셈인지 우리 소대가 낮교대작업을 끝낼 때까지 인제를 받아야 할 2소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동차는 연방 꿈무늬를 들이대는데 누가 막돌과 골재를 더 모으고 상차를 해준단 말인가.

우리가 시간을 늦추어가며 삽질을 다그쳤지만 2소대는 땅으로 잦아들거나 한듯 한사람도 얼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언제인가도 있었다. 그때도 그들은 웅근 한시간이나 늦어서 작업장에 당도했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소대별로 사회적과제로 준 철근 모으기를 하다가 그만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친구들이 재미가 났어. 사회적과제는 뭐 저희들만 하고 우리 소대는 남의 뒤바라질이나 하는줄 아는가. 가르쳐주어야지)

나는 단호하게 작업중지구령을 내렸다. 저쪽 굽인돌이에서 먼지를 말아올리며 골재실을 자동차가 올라오고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시간 가까이 연장작업을 했으면 됐지 해도 끝이 없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한단 말인가...

그래서 깨끗이 작업을 폐고 시원히 목욕까지 한다음 집에 돌아왔는데 이젠 뭐가.

일을 멈추지 말걸 그랬다구?...

나는 천천히 책장을 덮고 수첩의 뚜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푸른색이 눈을 시그럽게 한다.

푸른 수첩! 아마도 이런 수첩은 우리 가정밖에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그야말로 희귀하기

그지없는 이런 수첩이 어떻게 되어 우리 곁에 생겨났으며 어떻게 되어 나는 이 수첩앞에 넋을 잃고 앉아있게 되었는가.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스르시 두눈을 감았다.

그것은 서너달전.

우리가 신혼살림을 편지 보름이나 댔을가말가 한 어느 저녁이었다.

내가 책상위에 책을 펴놓고 밀린 공부를 좀 해볼가 하는데 설것이를 끝낸 안해가 파란 뚜껑을 한 바로 지금의 이 수첩을 들고 사뿐히 다가섰다.

《저...》

그는 공부를 방해하는것이 미안한지 잠시 머뭇거리었다.

《왜 그러우, 그건 뭐요?》

나는 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그 웃음으로 무슨 말이든지 주저없이 하라는 용기를 주었다. 금숙은 나의 옆에 쪽걸상을 가져다놓고 앉았다. 그리고는 뽀얀 두볼에 발그레홍조를 그리며 귀가 간지럽게 속살거리는것이였다.

《우린 이제부터 교부라진 평감로친이 돼서 머리가리 파뿌리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지요?》

《응? 생똥같이 그건 무슨 소리요?》

《글쎄 그렇지요?》

금숙을 애정이 남실남실 고인 아름다운 눈매로 나를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럼, 그야 그렇지.》

《그러느라면 지금처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짢은 일도 더러 생길지 모르지요?》

《응? 언짢은 일이 왜 생겨?》

나는 완전히 의자를 돌려놓고 앉았다.

《글쎄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한번도 없다고 하겠어요.》

나는 그 말에 불끈 열이 올랐다.

《아니, 없소. 수십년이 아니라 수백년을 산대도 우리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수 없소.》

《글쎄 그 생각은 나도 같아요. 그런걸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앞일을 다 알수야 없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경우를 보아도...》

《그럼 금숙인 미리부터 그따위 앞일을 걱정하는거요?》

《호호, 그런게 아니라 울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좀 깊이 해봐요.》

금숙은 쓰다듬는것 같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달래었다. 하긴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

복잡다단하기가 형언할수 없는것이 생활인데 높고낮은 그 언덕을 수없이 넘어가야 할 앞길에 어찌 쟁글쟁글 맑은 날만 있을수 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보다 먼저 가정을 이루고사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런 례가 없지 않는것이다.

내가 입을 다물고 덤덤해지자 금숙은 생긋 웃으며 들고있던 푸른 수첩을 책상우에 놓았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의를 다하느라고 하겠지만 만약 저의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는것이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이 수첩에 글로 적어주세요.》

그는 내옆에 더 바짝 다가앉았다.

《말로 하지 말고 여기에다 쓰라구? 그건 또 무슨 숨바꼭질이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껄껄 웃었다.

《글쎄 그렇게 해주세요.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약도 있지만 애초부터 병이 안생기게 예방하는 약도 있지 않나요.》

《예방약이라...》

나는 그 말을 음미해보았다. 시약을 바른듯 점차 그 뜻이 석연해왔다.

사실 다정하던 부부가 티각태각하고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까지 번져지는 일이 간혹 있는데 따져보면 그것은 주고받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얼굴뿔힐 일이 생겨도 서로 오손도손 풀어나가면 될것을 이쪽에서 《도》하면 저쪽에선 《레》로 받고 그것을 《미》로 치면 다시 《술》로 맞받아치면서 한음정 두음정올라가 치닫다가 극단한 경우 파열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것이다.

그런즉 금숙의 의도는 아무리 피아노를 쳐야 할 《행사》가 생겨도 애초에 《도》소리부터 내지 말자는것이다. 결국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반대로 동무가 써놓아야겠지?》

우리는 아직 여보, 당신하기가 어색해서 편애를 할 때처럼 동무라고 불렀다.

《그야 물론이지요.》

《중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약속했지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법>으로 눌러놓지요.》

금숙은 더 바짝 조여들었다.

《<법>으로 눌러놓다니?》

《협정이라고 할가 조약이라고 할가 어쨌든 규정이 있어야 할게 아니에요.》

《조약? 세상에 부부간 조약도 있소? 조약이라는거야 국가들간에 맺어지는건데.》

나는 웃음보를 터쳤다.

금숙이도 물앵두같이 도톰한 입술을 마디가 움

푹옴푹 패인 손등으로 가리며 호호 웃었다.

얼마후 웃음을 멈춘 그는 눈을 깜박거리며 골똥히 생각하더니 《그럼 협약이라고 하는게 어때요?》 하고 다른 안을 내놓았다.

《협약이라... 그건 비슷해. 중소. 협약을 체결합시다.》

나는 책들을 뺄 밀어치우고 푸른 수첩을 펼쳐놓았다. 그담에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 서로 조항을 내놓고 문구를 끌라가면서 《협약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가정의 화목에 관한 협약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속에서 하나의 세포를 이룬 우리-리금수와 박철호는 장군님의 아들딸로 충효일심 다바치는 길에서 신념도 하나, 지향도 하나임을 인정하면서,

오늘의 강행군을 웃으며 헤쳐나가는데서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조건으로, 기초로 된다고 확신하면서,

백년을 하루와 같이 다정한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체약쌍방은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먼저 생각하며 상대방을 위하여 바치는 땀을 신성한 의무로, 더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간주한다.

2. 쌍방은 어떤 문제앞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충분히 이해하며 얼굴을 붉히거나 언쟁을 하는 일을 절대 금한다.

3. 만약 상대방에 대하여 의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곰곰히 이성적으로 판단해가며 푸른 뚜껑을 한 이 수첩에 글로 적는다.

4. 의견을 받은측은 그것을 해명하자거나 반박하거나 변명할수 없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할수 없으며 오직 흔연히 접수하고 즉시에 시정해야 한다.

5. 협약을 어기는측은 도덕과 양심 앞에 책임지며 애당초 인간이기를 그만둔다.

6. 이 협약은 생을 바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체 x년 x월 x일

남편 박철호 안해 리금숙

그담에는 내가 먼저 멋지게 휘갈려 수표를 했다. 만년필을 넘겨받은 금숙은 정말 무슨 정부급 조약이나 수표를 하는듯이 정중한 자세로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새겨넣었다.

완성된 협약을 소리내어 읽은 우리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대며 방안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동서고금 인류력사에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협정과 조약이 체결되었겠지만 이런 가정의 화목에 관한 협약이라는것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허리가 끊어지는것 같은 웃음속에서도 이 협약을 절대 이길수 없는 《법전》으로 마음깊이 새기었다.

(사랑하는 금숙동무! 나는 동무가 이 수첩에 의견이 아니라 감사문을 적어놓도록 하겠소)

이것이 그때 나의 속마음이였다.

이 세상에서... 라고 한다면 표현이 너무 요란하지만 적어도 나는 우리 마을, 우리 동료들 속에서는 우리 집을 제일 행복한 가정으로, 리금숙을 가장 행복한 안해로 만들어줄 열화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그런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우지 못하고 수첩의 다음장을 번지였다.

《주체 x년 x월 x일

이들후에 무조건 돌아오세요...》

이것은 《조연식》이 있는지 불과 며칠 지난후에 안해가 적어놓은 첫 의견이였다.

그때 공사는 자재확보가 급선무였는데 레년에 없었던 장마를 겪었었다. 산골강물이 어찌나 무섭게 별창을 했던지 나무로 놓았던 다리들이 뜨고 길이 험상하게 패이였다. 당장 원목을 찍어다가 휘둘도 짜고 통나무언제든 쌓아야 하겠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였다.

중대장은 선전실이 툭 터지게 배겨앉은 사람들 앞에서 주먹을 흔들며 호소했다.

《그래서 말이요, 장평리에 올라가 산림보호원을 만나서 조건이 좋은곳에 림지도 확정받고 채벌허가증을 받아와야겠는데 누가 가겠소?》

장평리라면 여기서 70리다. 왕복 140리를 꼬박 걸어서 갔다와야 한다. 게다가 올라갈 때는 산림보호원이 부탁한 망치, 톱 등 소공구들을 지고가야 한다고 한다.

모두들 머리를 짓수긋하고 덤덤히 앉아있었다.

험한 그 산골길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던것이 다.

《자, 누가 중대의 돌파구를 열어보겠소. 자재지도원이 가야 하겠지만 아다실이 그 아바이는 지금 병원에 가있소.》

중대장이 다시금 재촉하는 말이였다.

《...》

(어쩔까, 갈가말가. 험한 길이 아닌데 그렇지만 20리 더 올라가면 향천리지. 내친걸음에... 그때, 갔다오자. 어차피 잘돼다. 일거랑득이지.)

나는 어힘! 헛기침을 하고 건방지게 천천히 일어서서 일부러 느릿느릿 말했다.

《제가 갔다오지요.》

《소대장동무가? 내 그럴줄 알았소.》

중대장은 활기를 띠며 흡족해하였다.

《날자가 급하오. 래일 일찍 떠났다가 하루 묵어서 돌아와야겠소.》

《그렇게 하지요.》

나는 선선히 대답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 안해는 어찌보면 궁지가 깃든것 같지도 하고 어찌보면 근심이 어린것 같기도 한 얼굴로 조용히 묻는것이였다.

《그렇게 다음날로 돌아서기 쉬울가요? 다리랑 뼉다는데 강물은 좀 줄었는지...》

《원 걱정도 팔자군. 이런 일을 어떻게 꼭 렬차 시간표처럼 맞추겠소. 사정이 따라서 하루이틀 늦을수도 있는거구. 그렇게 갔다와두 대단한거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치웠다.

《예? 그런데 중대장동지앞에서는 왜?!...》

금숙은 놀랍다는듯 부채살같은 속눈섭을 들었다. 《아 그럼 그 만장판에서 흥정을 할텐가. 참, 동무도 알겠지. 향천리에 우리 외삼촌이 있다는걸. 갔던길에 거기까지 하루 올라갔다 오겠소.》

금숙은 더욱 놀라운 눈길로 나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또 하려다가 입술을 추기며 사뿐히 일어서는것이였다. 그 어떤 알락달락한 설복을 온밤 붙들고 앉아서 들이댄대도 나는 절대 굽혀내지 못한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날밤 푸른 수첩에 《력사적인》 첫 의견이 기록되였다.

《이들후에 무조건 돌아오세요. 중소형발전소건설은 오늘의 경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당의 방략이 아니나요.》

나는 두눈을 쿡쿡 찌르는 그 또렷또렷한 글자들을 점도록 내려다보았다. 속에서 《도》음이 동동거리기 시작하였다.

(여보, 금숙동무. 이거야 어디 우리 두사람사이의 문제요? 글썽 그건 논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문 내 마음을 알기나 하고 이러우?

향천리에 있는 외삼촌이 언제부터 한번 오라고 했다는걸, 거기 가서 동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도라지를 듬뿍 가져다가 호리호리한 동무를 등실하게 해주자는걸. 그래 이 속마음을 알기나 하고 이러는가 말이요. 내가 하루이틀쯤 제불장을 본다고 해서 공사가 크게 늦어지는것도 아닌데.)

하지만 입은 얼어붙어있어야 했다. 안해의 충고사 원칙적으로 옳았기때문이다.

(아하, 조약이란 이런것이구나. 이렇게 움작 못하게 묶어놓는것이구나.)

나는 뼈곡소리 한마디 못하고 다음날 어뜩새벽에 집을 나섰다.

담배 한대도 변변히 태울새 없이 걸음을 재우쳐서 점심전에 장평에 가닿았고 오후엔 보호원과 같이 미끄러운 산판을 싸다녔다. 어두워서야 마을에 내려와서는 녹초가 돼서 곤드라졌다가 다음날 어뜩새벽 또 향천리로 향하였다.

오래간만에 힘들게 왔는데 며칠 놀면서 토끼도

잡아먹고 찰수수떡도 해먹고가라고 극성스레 불드는 외삼촌내외를 겨우 뿌리치고 도라지만 한배 낭지고 이어 돌파셨다. 그러니 결국 그날엔 무거운 짐을 지고 백리를나마 걸었다.

별이 총총한 때에야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다가 다음날 아침엔 정시에 출근해서 중대장에게 출장 보고를 하였다.

중대장은 너무 만족해서 내 어깨를 열번이나 더 두드려주었다.

《1소대장이 제일이야. 틀림이 없거든. 다 이 동무같으면야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케끼겠소.》

나는 뜨뜻해지는 얼굴을 슬그머니 외로 돌리었다. 하면서도 내가 정말 제날자에 돌아오길 잘했구나 하는 긍지감 비슷한것이 그들먹이 차오르는 것을 누를수 없었다...

나는 그때 지휘부에 앉아있던 일군들의 얼굴에 느슨히 피어났던 정겨운 미소를 되살려보면서 무심결 수첩의 다음장을 번지였다.

이번엔 외로 자빠지는 나의 글씨였다.

《다음주 토요일저녁 새 양복 입은 모습을 보여 줄것.》

나는 또 저절로 웃음이 피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것은 장평리 강행군을 하고 돌아온 사흘후에 내가 결단성있게 적어넣은것이였다.

안해의 덕분에 중대장한테서 굉장한 칭찬을 받기는 하였지만 은근히 아쉬움이 꿈틀거리는것은 묵새길수 없었다.

그 투실투실한 토끼를 한남비 삶아놓고 얼근히 한잔하면서 외삼촌과 하루밤만이라도 회포를 풀었다면 얼마나 즐거웠을텐가.

나는 어떻게해서든지 장판지에 쥐가 일도록 장담음을 놓게 한 금숙을 통쾌하게 《보복》해야겠다고 별렀지만 도무지 끈터구가 잡히지 않았다.

일터에 나가서나 집에 돌아와서나 그한테서는 결함이라고 잡아쥐고 의견을 말할것이 없었다.

사흘을 꿈꿈 감자르고있었는데 옳지! 멋진 생각이 피뚝 떠올랐다.

결혼식때 나의 친근한 벗이 양복지 한벌을 가져온것이 있었다. 그것은 진회색고급치이었는데 내양복감으로도 좋았지만 녀성들의 고상한 신식 옷감으로서도 나무랄데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마음에 들게 해입으라고 안해에게 주었다. 그런데 안해는 안해대로 봄가을 제긴양복을 해입어야 한다면 나한테 되밀어놓았다. 나도 완강하였지만 안해도 못지 않게 옹고집이였다.

네밀고 내밀고 하는것이 그때까지 락착을 짓지 못하고있었다. 계속 그 림장이라면 양복지는 어느 때 가서든지 장구석에서 나와보지 못할것이였다.

그래서 그것을 토요일까지 무조건 해입고 내앞

에 나타나야 한다고 쪼아박았던것이다.

《글쎄 이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왜 그러세요.》

여느때같으면 이렇게 무릎을 세우며 다가앉을 안해였지만 병어리가 된듯 굳말이 없이 보자기에 싸들고 양복점으로 가는것이였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허허 그참, 협약이라는데 좋긴 좋구나.)

나는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드디어 토요일 저녁.

안해가 내앞에 무대배우처럼 나타났다.

맵시나는 그 진회색고급치마에 우에는 날아갈듯 눈부신 샤쯔를 잘룩하게 받쳐입고...

안해는 보자기에서 또 새옷 한벌을 꺼냈는데 그것은 칼날같이 주름을 세운 나의 바지와 역시 눈이 부신 반소매샤쯔였다. 그러니 안해는 그 양복지로 우리 둘의 새옷을 똑같이 지었던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협약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병글썩해지는 입귀를 어찌지 못하며 그 옷을 다듬어입고 거울앞에 나란히 서니 오누이랄가 쌍둥이랄가!

다음날은 마침 일요일이여서 그 옷차림으로 공원을 거닐다가 사진까지 한장 척 찍으니 그 또한 형언 못할 멋이였다.

아, 나의 안해 리금숙.

나는 그를 언제부터 알게 되고 어떻게 되어 사랑하게 되었던가.

나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라이타를 켜대고 깊숙이 한모금 빨아들였다. 몽글몽글한 연기가 눈앞에서 가물거린다. 그 가물거리는 연기속에 이제는 어느덧 멀리로 흘러가버린 장난세차던 아이적때가 느물느물 피어오른다.

그것은 고등중학교 2학년때인가 3학년때인가 하여튼 세상일이 그저 유쾌하기만 하던 어느해 가을이였다.

그때 우리 대어섯명 패거리는 무슨 일로였던지 농촌길을 걸어가게 되였다. 거기에는 아릿아릿한 금숙이도 끼여있었다.

밀치고 탁치고 다리질하고, 멋지게 한대 권투를 먹이고는 땀다 달아나고...

이렇게 한동안 올라갔을 때였다. 길옆에 풍성한 무우밭이 나타났다. 대가리는 파르스름하고 중등은 허여멀쭙한것들이 우뚝우뚝 키돋음을 했는데 그것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프르 돌게 했다.

《야, 무 뽑아먹자.》

내가 먼저 선동을 했다. 다른 애들도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찬성이였다. 그런데 금숙이가 질색을 했다.

《농장 무우함부로 뽑아먹으면 되니?》

《별걱정을 다. 아 이런 가을철에 무우 한개 먹는다고 일나겠니?》

나는 주저없이 풀메뚜기처럼 후더덕 뛰어들어 굵직굵직한것을 두어개 낑낑 당겨 뽑아냈다. 용기를 얻은 다른 애들도 뛰어들었다.

나는 뽑아내온것중에서 제일 굵고 미끈하게 잘 생긴것을 골라 잎사귀를 뭉쳐 잘라낸진후 금숙에게 내밀었다.

《자, 먹어.》

《야, 이렇게 뽑아먹으면 되니?》

금숙은 울상이 되어버렸다.

《못나겐 군다. 자 어서.》

나는 억지로 그의 가슴에 무우를 안겨주었다. 그담에 우리들은 어석버석 맛나게 무우를 깎아 먹으며 으쓱으쓱 걸음을 옮기었다. 금숙이도 마지못해 한입두입 오물오물 깨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쯤 더 올라갔을 때였다. 뒤에서 짜르릉! 하는 소리가 귀따갑게 들리기에 뒤를 돌아다보니 자전거를 탄 웬사람이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었다. 가슴이 섬찟했으나 일이 될 때라 그때는 이미 입을 싹 씻은 뒤였다.

《무 뽑아먹은것 모른다고 해.》

나는 낮은 소리로 얼른 주의를 주었다.

아니나다를가 그 사람은 우리옆에서 훌쩍 자전거를 내리더니 부리부리한 눈길로 노려보았다.

얼굴이 검실검실한것이 보매 농장 분조장이나 작업반장쯤 되는것 같았다. 자전거짐틀엔 우리가 잘라던진 무우잎사귀가 동실하니 묶여져있었다.

《너희들 저, 아래밭에서 무 뽑아먹었지?》

다짜고짜 들이대는 그의 호령이었다. 우리가 뽑는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길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생생한 잎사귀와 껌데기가 그 《죄상》을 여지없이 증명한것이였다.

애들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했다. 하지만 나는 태연스레 내뱉었다.

《아니요. 우린 안뽑아먹었어요》

《이녀석, 길바닥에 무껌질이 한벌 깔렸는데도 안뽑아먹었어?》

《이 길로는 뭐 우리만 다니나요?》

하긴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아침부터 본다면 세일수가 없을것이다. 그들이라고 신밀건 무우가 맛이 있다는것을 모를리가 없는것이다. 나는 그 구멍을 보았던것이다.

그 사람은 잠시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럴수도 있는 일이기때문이었다. 그러자 애들이 저저마다 안뽑아먹었다고 발뻘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할짓이 너무나 명백했지만 일매지게 나자빠져 모르쇠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그럼못써.》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때였다.

아까부터 얼굴이 빨개져서 안절부절 못해하던 금숙이가 울음섞인 목소리로 그를 멈춰세웠다.

《아저씨, 우리가 뽑아먹었어요. 잘못했어요. 다

신 안그럴래요.》

(야, 요 땡퐁이.)

나는 속으로 이마를 탁 쳤다. 그것은 내 발밑에서 터지는 폭탄이었다. 《배신적인 발언》을 종알종알 쏟아놓는 얇은 입술을 콕 쥐여박고싶었다. 하지만 이미 잊지른 물사발이었다.

그 사람은 두뼉두뼉 나한테 다가오더니 귀바퀴를 잡아들었다.

《이녀석, 아직도 안뽑아먹었어?》

《안뽑아먹었어요.》

《이애가 금방 실토를 했는데도, 그래도 아니야?》

《글쎄 이애 뽑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안그랬어요.》

한번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우기는것이 날 때부터 생겨먹은 내 성미였다.

《허허 이놈 봐라. 다 뽑아먹었는데 너만 안먹었어?》

귀바퀴가 점점 더 빠근해왔지만 나는 어금이를 콕 깨물고 서서 한장대기로 뺄치였다.

《글쎄 난 안뽑아먹었어요.》

《허 이녀석이 보통이 아니군. 왕고집이야 왕고집.》

그 사람은 꺾꺾 웃으며 내 더벅머리를 두어번 흔들어주고는 씹-자전거에 올라 가버리고말았다. 그때부터 내 별명은 《왕고집》이 되였다.

그 사람이 내 별명을 아주 정확하게 지어주었다. 왜냐하면 그 성미는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기때문이었다.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즐거운 학창시절을 마치고 나는 공장에 들어와 선반공이 되였다. 그로부터 두해후에 금숙이도 공장에 들어와 우리 직장 담당제품검사원이 되였다.

5~6년을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맺어온 우정을 더 두터이했고 그것은 점차 사랑이라고 하는 무지개같은 감정으로 승화되어갔다. 짧지않은 로동생활의 나날 금숙은 언제나 나의 둘도없는 방조자였고 인도자였다. 우리는 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청년돌격대를 조직할 때 저기에도 함께 나왔다. 돌격대소대장을 임명된 나는 소대원들앞에서 엄숙히 언명하였었다.

《200프로, 300프로! 나는 이렇게 허공중에 뜬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사지휘부가 최대한 긴장하게, 가장 과학성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한테 지령하는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드팀없이 집행하면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지휘부가 명령한 그날계획은 조건없이 그날로! 이것이 내 결심입니다.》

모두가 그 말이 옳다고 호응했다.

공사 첫 시작으로 기초파기를 할 때였다.

오후작업을 시작해서 두어시간 땀들을 뺐었을

때인데 난데없이 먹장구름이 밀려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비발은 점점 더 굵어져 잠간 사이에 억수로 변했다. 별수없이 작업을 떼고 휴게실에 쫓겨들어갔다. 비가 몇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사이 어느새 어스름이 깃들고 퇴근시간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비물에 손들을 씻고 합숙으로 돌아왔다. 우리 소대뿐 아니라 모든 소대, 중대가 다 그렇게 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하늘의 탓인것이다.

저녁밥을 먹고 비도 멎어서 나는 낮에 판것이 혹시 무너지지나 않았을가 하는 걱정애 슬금슬금 작업장에 나갔다. 그런데 우렷한 달빛아래 누군지

달각달각 돌궂히는 소리를 내며 삽질을 하고 있는것이 보였다.

(누굴가?...)

급히 다가가보니 그는 금속이었다.

《아니, 이밤중에 왜 혼자 나와서?...》

얼떠름해하는 나에게 금속은 웅당 나타나리라고 기다리고있은듯이 웃으며 범상히 대꾸했다.

《그날 밤은 계획은 드림없이 그날로 하자고 하잖았나요.》

(아차!)나는 뒤통수를 쳤다.

(내가 바로 그렇게 말했지. 하마트면 한입으로 두말하는 헛가다쟁이가 될뻔했구나!)

나는 군말없이 돌파서서 소대를 비상소집했다.

달은 휘영청 밝고 밤바람이 선들선들 부는데 밥까지 금방 먹은뒤라 기운쓰기엔 그저 제격이었다. 우리는 그날밤 계획과제를 끝냈을뿐 아니라 손을 댄바엔 위력을 보이자고 모두들 욱욱 기세를 울리는바람에 오히려 훨씬 넘쳐하였다.

다음날 중대장은 작업총화를 지으면서 어휘가 모자라 우리 소대 칭찬을 더 못했다.

《1소대장이 제일이야. 틀림이 없거든. 중대가 1소대같으면 무슨 일인들 못제끼겠소. 200프로 300프로씩 넘쳐하겠다고 청산류수로 결의토론을 잘하던 소대장동무들, 일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걸 알아야겠소. 1소대장처럼 말이요.》

나는 뜨뜻해지는 얼굴을 또 외로 돌리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었다.

(금속이, 고맙소. 이젠 내가 아니라 동무가 받아야 할 평가요. 동무가 받아야 할 표창이란 말이요.)

그러니 이런 금속을 내가 왜 사랑하지 않겠는가. 왜 뜨거운 심장속에 고이고이 간직하지 않겠는가. 하루라도 금속이가 곁에 없으면 공허하고 허전하였다. 한시간이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화창한 봄날도 지꽃은 가을밤처럼 생각되었다.

사랑의 수위는 점점 차오르고 또 차올라 이제는 폭을 터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드디어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왔는데 그 고백

또한 우리한테서는 유별한것이였다.

두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상사건》은 전혀 예상치도 않았다가 그것도 기초콩크리트 마감치기로 눈알이 펑펑 돌아가던 제일 드바쁜 밤에 일어났다.

세멘트가 굳어지기전에 마감까지 올려쳐야했기에 그날 온 중대가 밤을 패며 다과대게 되어있었는데 저녁에 점검을 해보니 금속이가 없었다. 처녀들이 근심스레 보고하기를 몸이 몹시 아파 호실에 누웠다는것이였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허우룩해졌다.

(어떻게 아파 그럴가. 웬만해서는 누워있을 금속이가 아닌데.)

눈에 알리게 불편에 살이 빠지고 입술에 조갈이 일던 금속의 얼굴이 떠오르며 런던의 정이 옥치밀었다. 일이고 뭐고 당장 달려가 손맥도 눌러보고 이마도 짚어보고싶었다. 등에 들쳐업고 백리고 이백리고 병원으로 달려가고싶었다. 피면 피, 뻘면 뻘 무엇이든 다 바치고픈 걱정이 불타올랐다.

하면서도 다른 알곳은 감정이 동시에 치받쳤다.

사실 나는 금속이가 곁에 있기에 목소리도 더 우렁우렁했고 행동에서 날파람이 있었다. 무슨 일에서나 힘이 들지 않았었다.

그런데 금속이가 없다니...

몸이 아파 일은 못해도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가.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혀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나의 입에서는 나로서도 놀라운 말마디들이 튀어나왔다.

《낮에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아프다니. 지금이야말로 고양이발이라도 빌려야 할 때인데 선옥이, 당장 가서 웬만하면 나오라고 하오.》

《어마나!》 처녀들의 가벼운 비명소리!

하지만 나는 그 반응을 듣지도 않았다.

그답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세멘트, 모래, 자갈, 한무지씩 쌓아놓고는 불이 일게 비비대고, 퍼담아서는 맞들고 달려가고 재봉바늘 오르내리듯 다지고...

한참 삽질을 해대다가 얼핏 머리를 들어보니 영?! 저게 누군가?

환한 외등아래 보라빛머리수건을 동여매고 세멘트를 떠넘기는 처녀, 다른 처녀들은 줄곧 웃으며 재잘거리는데 유독 입을 꼭 다문채 뺨방울을 번뜩이며 걸싸게 두팔만 놀리는 처녀는?...

틀림없었다. 금속이였다.

(금속이, 동무가 나왔소? 아프다면서 왜?...)

순식간에 머리속이 혼탕이 되어버렸다. 가슴이 쿵쿵 울리며 만가지 생각이 일시에 덮쳐들었다.

선옥이, 정말 가서 데려내왔어? 앞뒤가 꼭 막힌 땀뿔이같으니라구. 소대장 말도 들을걸 들어

야지. 저 참새무리들이 금숙이 귀에 대고 무슨 말인들 재잘거리지 않았을가.

소대장이 언니 일시키지 못해 지랄이라느니, 인정사정이란 티끌만큼도 없는 못된놈이라느니, 꼭 해보라느니...

하긴 그보다 더한 험구를 했대도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지금 금숙인 날 얼마나 패씹하게 생각할까. 몰 인정하고 썩썩한 사람, 박철호의 인간됨비 고작 그제 단가.

아, 금숙이, 그런게 아니야. 실지 내 마음은 그런데 아니란 말이야.

《아, 소대장동무, 몰탈을 왜 땅바닥에 퍼놓소?》
누군지 놀란 소리를 한다.

그래? 아, 안되겠어, 사실대로 속마음을 톡 빼개보여야지, 금숙이가 날 아주 걸레짝처럼 여길 거란 말이야, 하참, 이놈의 혀바닥이 경을 치는 군,

자정이 넘어서 작업이 끝난후에 나는 금숙을 따로 남게 했다. 동무들이 저쯤 멀어져가고 단들이 어둠속에 들었을 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선옥이가 데리러 갔습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그래 금숙인 그 말을 그대로 믿소?》

《...》

《그대로 믿는가 말이요. 내 마음은 그제 아닌데. 응? 절대 그제 아닌데.》

《알아요. 그 마음 다 알아요.》

흐느끼듯 신음하듯 금숙의 낮은 목소리.

《뭘 안단 말이요. 동무가 곁에 없으면 난 아주 죽을맛이라는걸... 그걸 안단 말이요?》

《...그래요. 그 마음은... 나도 같은거예요.》

《뭐라구?!》

순간에 심장이 쩡! 울리었다. 호흡이 아주 멎어 버리는것 같았다.

《금숙이!》

나는 어당곁에 금숙의 어깨를 꼭 부여잡았다가 힘껏 당겨안았다.

이것이 내 사랑의 고백이었다.

금숙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비누냄새 향긋하게 풍기는 함츄르르한 머리칼로 나의 볼을 간지럽혀주었다. 이것이 나의 고백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다.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파, 많이 아파?》

《뭐... 괜찮아요.》

《괜찮다는게 뭐요. 이마가 이렇게 불덩인데. 그런데도 무작정 나오라고했으니... 내 정말 미옥한놈이지.》

《나오라고 했다니요?》

《선옥이가 말 안해?》

《...》

《찾으러 갔댔다면서?》

《...아깐 건성 대답했는데 선옥이가 찾아온건 아니구 약을 먹고 조금 늦어나오니 소대장동무가 그저 성났댔다고 하더군요.》

《그-으-래?》

심장이 불타는 너자, 수정처럼 맑은 너자, 아름다운 너자...

뜨거운 정이 다시금 밀물처럼 멀기쳐올랐다.

그밤이 지난후에 나는 부모들을 독촉해서 한달 만에 제격 잔치를 했다.

부부가 된후에도 계속 한소대에서 일하기가 거북해서 금숙은 얼마전 보장부서로 자리를 옮기었다.

보장부서로 옮기던 날, 그날은 우리 소대가 2 단계경쟁에서 또 1등을 한 날이기도 했다.

총화를 마치고 우리는 왁자 떠들며 수양버들 휘늘어진 강반으로 나갔다.

갓가지 음식보자기들이 펼쳐지고 부그그 뚫어오르는 맥주병도 나왔다.

이때 금숙은 빨간 실고추로 문양을 돋친 새하얀 도라지채를 한남비나 듬뿍이 내놓았다.

《야, 도라지채.》

《산삼의 사촌동생.》

《소대장동무 부인의 도라지료리 만세!》

소대원들은 또 강반이 떠나가게 웃으며 팔을 흔들어댔다.

(금숙이.)

나는 뿌듯해지는 가슴을 꼭 부둥켜안고 가분가분 식탁을 차리며 돌아가는 안해를 점도록 지켜보았다...

그렇게 소대를 떠나간 금숙인데 오늘 일을 어떻게 알고 푸른 수첩에 이런 글을 적어놓았던 말인가. ...

나는 천천히 담배를 비벼졌다.

(금숙이 내가 그렇게 맘 안놓ियो? 도대체 남의 일까지 해줄 까닭이 뭐요?)

하지만 별재간이 없었다.

《노랭이》들같은 2소대가 패씹한 생각같아서는 벼락이 친대도 움쩍하지 않겠지만 이 수첩의 요구앞에서는 일어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길, 협약에서 인간이기를 그만둔다는 표현은 삼가했어야 하는건데.)

나는 두덜거리며 웃웃을 벗겨입었다.

작업장으로 다시 나가자고 불러대는 나를 보고 소대원들은 이 복더위에 웬 눈보라냐 하는 기색이었다.

《아니, 우리 소대장동무가 이럴 때도 있소?》

《이건 참 특기할 사변인걸.》

누구나 한마디씩이었다.

하긴 지배인도 꺾지 못한다던 《왕고집》이 원

인모르게 휘여든것이다.

《무슨 말들이 그리 많아?》

나는 눈을 찔 흘리며 그들을 다물아댔다.

작업장에 올라가니 2소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너댓명 우리 소대원들이 땀을 철철 흘리며 상처를 하고있었다. 거기엔 안해 금숙이도 섞여있었다.

(그럼 저 친구들도 금숙이가?...)

나를 본 금숙은 허리를 펴고 손수건을 꺼내서 빨갛게 익은 얼굴을 닦았다. 그 얼굴에 방긋 웃음이 피어올랐다.

나는 일부러 그것을 못본척하면서 통명스레 소리쳤다.

《자, 와닥닥 실어보내기요.》

2소대는 그때로부터도 좋지 한시간이나 더 있다가 나타났다. 끝재 실을 자동차에 잔뜩 얹아 올라 왔는데 운전칸에서는 소대장이 아니라 거쿨진 중대장이 훌쩍 뛰어내렸다.

그는 뒤따라 내리는 산뜻한 양복차림의 젊은 여성에게 범이나 잡아놓은 포수처럼 호기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 보시우, 기사선생, 내가 뭐랍디까. 1소대장을 만나자면 작업장으로 가야 한다구. 난 이미 이럴줄 알았던 말ियो.》

중대장은 런닝그바람인 내 땀뻘 잔등을 철썩철썩 두드렸다.

《1소대장이 제일이야. 틀림이 없거든.》

들어보니 2소대는 예상외로 갑자기 화물역에 세멘트방통이 들이닥쳐서 그것을 하차하려 긴급출동했다고 한다. 1소대에 사연을 알려야 하지 안하겠는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대장은

《일없소. 1소대장은 연락 안해도 다 알아서 할거요.》하고 밀막으며 마음 폭 놓고 2소대를 끌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이렇게도 철석같이 믿고있는 중대장에게 실망을 던져줄번했다고 생각하니 등골로 식은땀이 죽- 흘러내렸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 순간에 내가 이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 소대원들모두가 일손을 놓지 않고있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열적은 생각에 괜히 뒤통수를 긁적긁적하였다.

이런 속심을 알리 없는 중대장은 빙글빙글 웃으며 더 난처한 곤경으로 나를 몰아갔다.

《자, 기사선생, 해가 지기전에 우선 사진부터 찍읍시다. 지금까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1소대장이 바로 이 동무요. 이 동무부터 크게 찍어주시우. 온 나라에 좀 떠들썩 자랑해주시우.》

여성기자는 그러지 않아도 다 안다는듯 벌써 사진기의 렌즈를 조절하며 어서 옷을 입고 나서라는 것이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사진찍을 자격이...없습니다.》

나는 황급히 두손을 내저으며 뒤걸음질쳤다.

내가 어떻게 사진을 찍는단 말인가. 어떻게 온 나라 사람들앞에 얼굴을 버젓이 내놓을수 있단 말인가. 중대장은 나를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믿는다 하자. 하지만 어떻게 눈길을 들고 저 투명한 렌즈를 뚫뚫이 마주볼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깊이 숨겼던것들이 한순간에 창끝처럼 량심을 찔러대기 시작하였다. 장평리 행군, 비오던 날 굴착작업, 오늘의 연장작업...

어디 그뿐인가.

돌격대에 탄원할 때부터 내 본심은 순결한 것이 못되었다.

그때 우리 직장장은 절대 나를 내보낼수 없다고 막았었다. 동무는 고급기능공이기에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리롭지 공사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공사장에는 무기능공들이 나가도 되지만 내가 빠지면 직장생산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금숙이도 근심스럽게 한마디 했었다.

《직장에 남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모든것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렸다.

《어렵고 힘든 일에 우리같은 청년들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 역시 사실이였다.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공장에서는 전등이나 켜고 국수기계같은 것이나 돌리는 작은 것이 아니라 공장의 중요공정들은 다 가동시킬수 있는 덩어리 우람진 발전소를 일떠세울 대작전을 펼치였다. 이런 중대사에 피끓는 청년이 빠져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당당한 내 주장이였다.

허나 속심은... 고백하건대 속심은 다른데 있었다.

공장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전투인데 건설이 끝나면 그대 총화사업이 간단할텐가. 기껏해야 한두해안락이겠는데 그 기간 여봐란듯 위훈을 떨칠수 없겠는가. 직장에 꼭 박혀 선반이나 돌려서야 차례질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한장대기로 내뺐치였다. 누구도 나의 《왕고집》은 꺾을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얼굴을 온 나라 사람들앞에 내놓다니. 흐린 속심을 가리운 이 두터운 얼굴을... 안돼. 량심이 허락 못해!

나는 강변으로 자꾸 달아났다.

《1소대장, 왜 이래, 왜 못나게 굴어요?》

중대장이 쫓아와 팔을 붙들었다.

《중대장동지, 전 사실 중대장동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범이 못됩니다. 신문에 날 자격이 없습니다.》

중대장은 그 말을 믿으려고는커녕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무가 신문에 못나면 어떤 사람이 난단 말이요. 사람이 너무 겸손해도 좋게 안보여, 자 빨리.》

그는 막무가내로 나의 동을 떠밀었다.

떠밀려오다가 보니 한옆에 금숙이가 삼을 짚고 서있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애뒤틀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분명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뭘 그러세요. 찍으세요.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보았으면 됐지 꼭 내놓고 밝혀야만 하나요? 동무가 흠있는 사람으로 알려지는건 싫어요. 싫어요.》
어쩔수 없이 나는 사진기앞에 섰다.

너성기자는 머리를 드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하고 군소리를 해가며 평뚫! 셔타를 눌렀다.

아 사진!

잘생겼니 못생겼니 외형만 드러내고 진심이나 거짓이나 속심은 밝혀내지 못하는 너,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아니...

이제 세상사람들은 나의 등실한 얼굴을 보고 일잘하는 청년이라고 칭찬을 하겠지. 하지만 그 웃음지은 얼굴뒤에 숨은 내심을 안다면?...

나는 마음속으로 거듭기 거듭 자신을 질책하였다.

어스름이 깃들어 금숙이와 나는 어깨나란히 집으로 향하였다. 부드러운 안해의 숨결이 나의 온몸을 휩싼다. 후더움이 그들먹이 차오른다.

금숙이, 귀중한 내 사람!

웅달샘처럼 정갈하고 곁으로 봐도 안으로 봐도 비단같이 아름다운 너성, 어느 구석에라도 티를 두고서는 참아내지 못하는 너성!

그러니 앞뒤가 다른 나, 무지막지한 《왕고집》을 두고 얼마나 남모르는 속을 태웠을텐가...

부지중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났다.

푸른 수첩의 둥글둥글한 글자들이 눈앞에 삼삼 어리오기때문이었다.

그러니 결국 그 푸른 수첩이 오늘의 나를 만들 어낸것이 아닌가. 묻고 또 묻었던 오물을 시원히 걸어내고 형언 못할 청신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안해를 정겹게 돌아보았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신통한 생각을 해서 나를 움작 못하게 했소. 응? 그 협약체결이라는것말이요.》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금숙을 여보라고 불렀다.

안해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숙이였다. 그한테서도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말이 수줍게 흘러나왔다.

《그건 당신이 늘 사람들의 믿음속에서 살도록 하는데 내 책임이 제일 크기때문이에요요. 한평생 어디서나 한모습으로 말이에요.》

어디서나 한모습으로! 당을 받드는 충성심엔 안팎이 없어야 한다는 철리로구나!

(어디서나 한모습으로!) 나는 그 말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하다면 푸른 수첩!

그 푸른 수첩이야말로 우리 충효심이 신념으로, 량심으로, 도덕으로 굳어지고 생활로 련련히 이어지고 생활로 련련히 이어지는가를 매일 매 시각 비쳐보게 하는 거울이 아닌가! 그러니 안해는 사랑으로써, 안해의 사랑이라는 비길데 없이 강력하고 열화같은 힘으로써 나를 정바른 한길에 세워주었구나. 고맙소. 금숙이!

나는 안해의 손을 꼭 더듬어잡았다.

《여보, 앞으로도 그 푸른 수첩에 의견을 자주 적어주요.》

《당신도 그래주세요. 하지만 뭐 꼭 거기에 적어야만 하겠나요. 마음속에 적으면 되지요.》

여전히 조용한 안해의 대답이었다.

《하긴 그래! 하긴 그래!》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활기있게 걸음을 옮기였다. 행복한 요람- 우리 집이 점점 가까와오고 있었다.

먼저 찾는 병사로 내 살리라

염애란

영예의 수훈장에

나를 찾지 않아도 좋아라

하나 가장 어려운 순간

당이어 그대 나를 먼저 찾는다면

기쁠 땐 나를 뒤에 세워도

힘겨울 땐 먼저 나를 찾게 되는

그럴 전사로 살지 못한다면

내 어찌 당의 아들이라 하라

나는 살리

한목숨 내대야 하는 준엄한 언덕에서

당이 먼저 찾는 전사로

하여 정말로 그 순간이 오면

총알처럼 용맹하게 나는 나가리

밀림속의 병기창

최주원

밀림속의 병기창
그것은 공장도 아니었다
현대적인 무기보급기지도 아니었다

가도가도 끝없는 밀림속
허리치는 눈속에 통나무로 쌓아올린
자그마한 귀틀집
유격대의 병기창

다만 거기엔
있었다
수수한 화로와 쇠집게
모지라진 줄칼과 망치

허나 있었다
거기에는
자기의 힘을 강철같이 틀어쥔
큰 심장과 억센 주먹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항일전을 선포한
이 나라 혁명의 위대한 힘이
칼이 되고 총이 되고 폭탄이 된
유격대의 병기창이여!

거기서 버려지고 태어난것은
총칼만이 아니었다
작탄과 연길폭탄만이 아니었다

위세를 뽐내는 신식무기도
한갓 몽둥이로 비웃는
기개높은 정의의 녀이,
자기의 진리와 힘을 깨달은
자력갱생의 높은 정신이
불패의 위력으로 태어났거니

그 힘은
부러진 총가목을 다시 잇고

끊어진 격침도 두드려 만들며
원췌에게 보복의 불벼락 들썩운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 힘은
두눈을 잃고 두귀가 멀면서도
끝끝내 연길폭탄을 만들어
《무적황군》을 전률케 한
조선의 우렁찬 함성이었다

아, 항일의 그 나날
수령님 심어주신 혁명의 진리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것은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을 해방한
이 나라 빨찌산들의 불사의 힘이었고
조선을 구원한 기적의 원천이었나니

항일의 녀를 이은 이 땅에
불패의 보루로 굳건한 사회주의
그 신념의 성새우에 우리는 새겼다
상의 철학, 승리의 진리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력사상 류레없는 시련의 눈보라를
진두에서 헤치시는 우리 장군님
제국주의 봉쇄와 압살의 장벽을
모래성같이 날려버리시며
백두의 병기창을
온 나라에 넓혀가시나니

아, 백두의 이름없는 밀림속
남모르게 솟아있던 그날의 병기창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을 키우며
강제와 성강... 그 어데나 솟았어라!
자력갱생의 성새로 온 나라에 솟았어라!

지향

석유균

화가 이정구는 국가미술전람회개관을 앞둔 이 즈음에 와서 야릇한 흥분과 초조감에 휩싸였다.

그가 이번에 출품한 수력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조선화작품은 전시하기전부터 술한 전문가들의 이목을 모으며 자못 찬탄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지 10년밖에 안되는 사이에 공장과 농촌, 건설장 등 다양한 생활을 담은 여러편의 작품을 창작하여 미술계의 중진으로 부지런히 뿔아오르던 그가 근래에 와서는 창작에서 여러채 공백을 남기었다. 그러던 그가 고심끝에 오늘에 와서 세상에 대고 크게 소리칠 무게있는 작품을 내놓았으니 동료들은 물론 선배들까지도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작품의 주제가 생신한데다가 언제건설자들의 담찬 기백을 화폭에 총화시켰으니 화가의 재능보다도 그정열이 더 부럽다느니, 힘있는 몰골법으로 조선화의 기법을 살려 성격형상을 부각시킨 화가의 진지한 탐구와 모색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줄수 있다느니 하는 격찬속에 정구는 벌써부터 성공의 기쁨을 감득하였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무조하게 내리누르는 초조감을 피할수 없어 안정을 찾기 힘들었다. 대학시절의 은사인 한정택의 평가가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었기때문이다.

졸업작품창작을 위해 서부탄전에 나간 학생들을 지도하려 달포전에 떠난 그가 국가적으로 크게 열리는 미전을 앞두고 필시 평양에 올라왔으련만 작품전시를 끝내고 개관이 막두한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으니 성구로서는 은근히 안타까운 마음을 혼자서 바재이게 되었다.

일단 작품을 대하면 높은 요구성을 내세우고 예리하면서도 정확한 3분석과 판단으로 형상의 우단점을 적라라하게 해부해가면서 작품의 가치는 물론 화가가 기울인 정력과 사색의 무게까지도 서슴지 않고 가늠해보는 그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값싼 동정이나 위안을 모르는 그의 엄격한 평가는 정구에게 있어서 언제나 소중한 조언으로 새겨졌다. 그 충고와 조언은 이미 80여년간 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한정택의 졸업작품이 오늘까지도 대하의 자랑으로 전해오면서 학생들의 선망을 자아내고있는것으로 하여 배가의 가치를 지니었다. 더우기 첫 작품에서 인기를 모은 화가라면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일류급창작단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내려왔으련만 한정택은 스스로 교단에 남아 흥안의 시절부터 창작의 황혼기라고 할수 있는 예순살나이까지도 후대교육에 고스란히 열정을 바치는 한편

틈틈히 짬을 내어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마를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으로 하여 제자들만이 아닌 미술계의 존경을 받았다.

더우기 엄격한 요구성과 사심없는 충고로 고무해준 한정택의 진지한 노력이 이번 작품창작에서 얼마나 귀중하였는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된 정구로서는 그의 견해를 듣기전에는 작품의 가치를 판결할수 없다고 스스로 속단하게 되었던것이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앞두고 크게 진행될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할 작 창작을 위해 미술가들이 서둘러 헌지로 떠나던 지난해 봄이었다. 창작생활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야심》작을 창작하라는 현선생의 권고를 기꺼이 받아들인 정구는 생각끝에 ㄷ발전소건설장에 려장을 풀었다.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새로운 형의 수력발전소건설이지만 거창한 건축물에 비긴 주인공들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어렵게 나선것으로 하여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저어하였다. 그래도 정구만은, 어려운 고비를 대담하게 개척하는 과정에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리라 만만한 절기를 앞세웠다. 허나 헌지에서 몇달동안 모태기면서 그린 초안이 분과 합평회에서 두번씩이나 기각되었을 때에야 그는 자신의 실책을 아프게 깨달았다. 창작기일도 무한정한것이 아니며 또 아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형상과제를 놓고 혼자서 맴돌이친대야 신통한 묘책이 생길것 같지도 않아 합평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작하여 수정한 세번째 초안을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했으나 현선생만은 그의 소극적인 창작태도를 단호히 반대했다.

《난 이번에 자네가 ㄷ발전소건설장으로 간다기에 마음속으로 격려를 보냈네. 힘들지만 누구든 화쪽에 담아야 할 거창한 생활이 아닌가. 헌데 벌써 쉬운 값을 찾다니 설혹 자신은 속일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작품만은 속일수 없네. 정력과 사색을 게을리한다면 병신자식밖에 태어나질 않아. 그걸 사회앞에 내놓을텐가. 내가 다 부끄럽네.》

점점 신랄해지는 스승의 경고에 정구는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달음으로 다시 헌지에 내려왔으나 선뜻 화가를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던 정구는 뜻밖에 발전소건설장까지 찾아온 스승을 보고놀랐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그럽게 웃으며 학생들의 실습지도차로 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다고 하던 한정택은 사흘동안이나 머물러있었다.

우람차게 일떠서는 언제를 올라다보며 거창한 건축물에 현혹되기전에 그것을 일떠세우는 건설자들의 거센 숨결과 뜨거운 열정을 심장으로 안

아야 화폭에 생활을 진실하게 구가할수 있다고 답답한어조로 이야기하던 그는 차츰 흥분에 들떴다.

《자네도 알겠지만 석회암지층우에 언제를 일떠세운다는게 처음이 아닌가. 어제 책임기사한테서 들으니 언제건설력사가 오랜 선진국들에서도 공법을 해결하지 못해 엄두를 못내면서 만약 우리가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다던데. 그런가하면 어떤 큰 나라에서는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들여 십년동안에 언제를 세웠으나 동공으로 물이 다 새어나가 결국은 그것이 물을 막아내지 못하는 세멘트산으로 되고말았다는것도 사실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네들이 보란듯이 우리 식 공법으로 언제를 일떠세우지 않나. 과연 이 벽찬 생활을 화폭에 담지 못한다면 시대와 함께 숨쉬는 화가라고 감히 말할수 있겠나.》

《저두 지금까지 여러모로 모색해왔지만 벽찬 생활을 담을 신통한 방도가 서지 않아서...》

《아니 이건 형상 방도나 수법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생활에 대한 화가의 립장과 자세라고 보네.》

현정택은 고개를 저으며 진중한 눈길로 정구를 지켜보았다.

《자기의 진정을 주기전에는 생활의 진면모를 알았다고 말하지 말게. 생활의 소용돌이속에 뛰어들어 시대의 맥박을 심장으로 체득할 때에라야 비로소 붓을 들수 있네. 아픈 말 같네만 자네가 지금까지 여러편의 작품을 내놓았지만 화폭에 반영된 생활영역이 서로 다를뿐 그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다. 우리 생활의 전진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가늠해보게.》

량심의 아픈 상처를 정통으로 찌르는 그 말에 정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었다.

《전진만을 아는 우리 시대는 예술가에게 한시도 자족할 권리를 주지 않네. 자네가 이번에 고심어린 노력으로 자신을 시대의 높이에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뼈아픈 후회가 뒤따를걸세.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일에 가서라도 반드시 고심참담한 노력으로 도약해야만 예술가의 본분을 다할수있다는걸 명심하게.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정력을 잃어버리게 되니 무엇으로 그 공백을 메꾸겠나.》

정구는 스승을 바래온후에도 그의 말을 곱씹어보며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직 어설픈 재능만을 믿고 무난하게 통과된 작품에 스스로 만족해하던 그는 자신의 진면모를 뽐내듯 타매하던 스승앞에 수치나 부끄러움보다도 가슴허비는 자책을 앞세웠다. 이그러진 자신을 속일수도 변명할수도 없다는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정구는 스승이 남기고간 마지막말을 몇번이고 되새겨보았다.

《난 자네의 재능을 의심치 않아. 거기에 열정의 거센 나래를 달아준다면 얼마나 높이 솟구쳐

오르겠나. 하지만 사색과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약삭빠른 길을 모색하려 한다면 다시는 내앞에 나타날 생각을 하지 말게.》

모질게 채찍질하는 스승의 말이 가슴아프게 허비면서도 뜨겁게 안겨왔다. 하여 생활의 번두리에서 맴돌지 말고 소용돌이치는 와중속에 뛰어들라고 일깨워주던 스승의 충고대로 살리라는 결심이 정구의 마음속에 굳어졌다.

그는 때이르게 세우려던 화가를 거두고 아예 언제건설자들과 침식을 같이하였다. 때없이 솟구치는 동공을 막으려 그들과 같이 통나무를 메고 사뭇치는 강물에 뛰어들어 고락을 나누었다. 하루종일 강물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려 동공을 막고난뒤면 온몸이 숨처럼 노그라졌으나 곤란과 실패 속에서도 두려움 모르는 언제건설자들의 담찬 기백과 횡포한 자연을 길들이는 담담한 용맹이 가슴후덥게 안겨왔다. 그럴 때면 정구는 끝없이 내려치는 창작적환상에 사로잡혀 온밤을 지새우며 붓을 달렸다. 날을 따라 그 생활에 익숙되어갔다. 아니 달이 가고 절기가 바뀔수록 그곳을 떠나서는 청춘의 보람도 랑만도 느낄수 없을것처럼 그 생활을 뜨겁게 받아안게 되었다. 세밀에 가서는 수십장의 초안이 그려졌다. 허나 그중에서 어느것을 택해야할지? 땀과 노력이 스민 그 한장한장이 다 귀중한 생활의 한부분이었다. 그중에도 살얼음치는 찬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동공을 막는 일이 가장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고 또 진정을 쏟아주는 그 생활을 놓칠수 없었다.련정을 쏟아붓는 처녀에게처럼 마음이 끌리는 생활속에 몸을 잠근 정구는 사색을 한몫으로 이어나가며 초안구성을 완성시켜나갔다. 폭풍처럼 격렬해진 창작적흥분에 휩싸인 정구는 자신의 형상능력이 심장의 호소에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럴수록 더욱 분발하게 되는 자신을 지켜보며 정구는 스승이 준 충고의 진가를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현지에 나온 기일에 비하면 초안구성과 원화완성은 시일이 짧았다. 작품이 완성되어갈수록 언제건설자들속에서 인기가 자자하였으나 정구는 스승의 높은 요구에 비추어보던 어딘가 아직도 형상이 미흡한것만 같았다. 지금도 그는 화랑에 전시한 자기의 작품앞에서 형상의 부족점을 찾아보려는 생각으로 좀처럼 눈길을 땔수 없었다. 스승의 평가가 기대되면서도 한편 두려워지기도 하는 정구였다. 스승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한채 그는 넓은 화랑을 지나 3층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림을 익혀가던 학창시절에는 물론 근래에 와서도 미술박물관을 찾을 때마다 오래동안 걸음을 땔수 없는 스승의 첫 작품인 《푸른 상호등》앞에 다가선 정구는 시선을 모았다.

폭탄이 작렬하는 불비속에서 불붙는 차량을 안간힘으로 밀어제끼면서도 타드는 불길은 아랑곳

없이 푸른 상호등으로 야음을 바쳐가는 철도일군, 일순간에 온몸을 휘감을듯 타래치는 불길속에서도 추호의 두려움없이 거인의 힘으로 불타는 차량에 몸을 실은채 적기를 유인하면서 상호등의 푸른 불빛으로 전신수송을 보장하는 주인공의 불사조와 같은 형상은 강렬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0여년 변함없는 자세로 사람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불굴의 형상을 음미해보는 정구의 생각은 한뼘으로 이어졌다.

작품에 그려진 형상의 열도가 화가의 심장에 높뛰는 맥박이라면 저렇듯 강렬한 형상을 그리던 때 화가의 녀아야말로 불보다 더 뜨거운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면 화가를 이처럼 강렬한 형상으로 이끈 충격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그것도 대학교자를 쓴 홍안위 그 시절에...

이번 작품창작을 통하여 화가의 심장의 열도가 화폭에 재현된다는 철리를 깊이 체험하게 된 정구로서는 스승의 젊은 가슴을 그토록 격동시켰던 그생활을 때늦게나마 알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새삼스레 파고드는 사색을 미처 정리해보지도 못한 정구였지만 스승의 작품에 비추어 자기 작품에서 형성의 미흡한 점을 다시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만은 앞섰다.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 급히 계단을 내려와 2층화랑에 들어서던 그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 작품앞에 못박힌듯 서있는 스승의 근엄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것이다. 300호가 넘는 작품을 투시해보는 현정택은 한동안 그런듯서있었다.

...멀리 원경에 우람차게 일떠서는 언제가 안개속에 반나마 가리워졌는데 분수처럼 높이 솟구쳐 오르는 동공의 세찬 물줄기에 통나무를 박으며 굴함없이 싸워가는 청년건설자들. ...광포하게 용을쓰는 거치른 자연을 길들이려 산악처럼 일떠선 청년건설자들의 억센 기상을 가늠해보던 현정택은 안경을 벗어두고 몇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림의 세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있었다.

마음속으로 고대하던 스승이었지만 정작 그앞에 나서자니 온몸이 졸아드는것만 같아 정구는 숨소리마저 죽이었다. 한동안 지나 화기띤 얼굴로 돌아서던 현정택은 그제야 말없이 서있는 정구를 알아보고는 한달음에 다가와 두손을 덥석 잡았다.

《수고했네.》

×

멀리 물새들이 날아에는 푸르른 대동강반우에 저녁노을이 붉게 어리었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강반의 수려한 풍경을 이윽히 둘러보던 현정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 강줄기를 막은 사나이들의 억센 모습을 자

네의 그림에서 보고나니 이 대동강의 아름다움도 새롭게 느껴지네...여하튼 듣던 말그대로 성공작이네. 좋은 작품을 내놓았다는것도 기쁘지만 앞으로 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그 만족을 모르는 가능성이 더 기대되네.》

《선생님이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공작이라고는 하지만 전 오늘도<푸른 상호등>을 보면서 선생님이 20대에 올라선 높이가 아직도 아득히 울려다보입니다.》

무등 기뻐하는 스승앞에 정구도 마음이 허심해졌다.

《지나친 겸손이네. 사실 그 그림을 그린지 켜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 재능이 미력해서인지 그때의 욕망을 화폭에 다 옮겨놓지 못한 안타까움이 지금도 가셔지지 않네. 어떻게 말했으면 리해할런지 원.》 다감한 미소를 그리며 그를 지켜보던 정구는 《저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작품이 성공작이라고는 하지만 저로서는 아직 벽찬 생활을 화폭에 다 담지 못한 안타까웁습니다.》하고 말하고싶었다. 그 뜻을 눈치챈 현정택은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이건 예술가의 단순한 창작적욕망만이 아니네.》

《선생님이 초년기에 어떻게 그린 생활을 목격할수 있었는지 가늠이 안갑니다. 혹시 친지분들중에...》

《아니, 나를 오늘에로 내세워준 그런 은사가 있었네.》

《네?》 청구는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홍분을 녹갯히려는듯 담배를 몇모금 빨고난 현정택은 추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는 자책감이 앞서네. 누구에게도 선뜻 말하기 저어하던 일이네만... 말없이 나를 떠밀어준 은사의 숨은 노력에 비해볼 때 나에겐 아직도 많은것이 과제로 남아있네.》

스스럼없이 흥금을 터놓는 그 말에 정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허나 그 사연을 묻기에는 너무도 엄숙해진 스승앞에서 그는 말없이 걸음을 멈추었다. 회억의 오솔길을 더듬듯 멀리 흘러간 산발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현정택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어느덧 청류벽을 따라 휘우두름하게 뻗어간 유보도로 내려서던 현정택은 말없이 지켜보는 정구의 간절한 눈길을 일별하자 그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자네의 성공을 빌어 즐거움을 나누는 내 마음이 넓어져 오늘에야 비로소 흥금을 터놓고싶네 그러. 그 은사에 대한 사연을 말이네.》

미술계의 명망있던 화기들의 이름을 새겨보며 정구는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이 그토록 못잊어하는분은 누구입니까?》

《아무리해도 짐작이 안갈걸세. 벌써 30여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편히 앉은 현정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한것만은 사실이 네만 화가가 되리라고는 미처생각도 못했네. 혼자힘으로 농사를 지어 나를 애써 공부시키던 어머니조차도 나를 착실한 실농군으로 키우는것이 소원이었네. 허나 초중을 졸업하면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으려던 나의 소박한 꿈마저 깨여지고말았네.

전쟁이 두해째 계속되던 해 가을, 나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네. 동네어른들을 따라 현물세를 싣고 도에 올라갔다오니 놈들의 야간폭격에 방공호가 직란을 맞아 어머니와 열세살난 누이동생을 한시에 잃었네. 집도 다 불타고... 눈물마저 메달라버린 어린 내 가슴속에는 사무친 원한을 안은채 원썩을 갚고야말겠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었네. 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군대에 받아주지 않아 日시에 사는 외삼촌네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하면서 초중졸업만을 기다리었네. 그때면 나도 충을 뿔수 있으리라는 하나의 기대가 있었으니까. 허나 이듬해 초봄 외삼촌마저 북쪽으로 공장이 소개되어 거기를 뜨게 되었지. 이미 진학을 포기한 나로서는 안전한곳에 함께 가서 공부를 계속하라는 외삼촌의 말을 들을리 없었지. 짐을 다 꾸려놓고 저녁에 공장에 나갔던 외삼촌이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네. 군잠이든 나를 깨워왔힌 외삼촌내외는 함께 소개되어 가자고 간곡하게 설복하더군. 내가 종시 응하지 않자 외삼촌은 깊은 한숨속에 혼자말처럼보이었는데.

<내 누님한테 두벌죄를 짓지나 않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네 마음이 여북하면 그렇게도 모질겠다. 미국놈이 원썩지>

외삼촌은 나를 군사동원부에서 내가 만났던 중위에게 데려갔네. 처음에는 외삼촌의 말조차 탐탁하게 들으려 하지 않던 그 중위는 결국 끝끝한 농촌태생의 초모생들과 함께 나를 차에 태우고 하루밤하고 반나절을 향방도 모를곳으로 가던중 자그마한 간이역인 청송역의 전철수 박덕삼에게 각근히 인계하더군.

<자, 아바이가 물색하던 보조원을 내가 데려왔수다. 일선병사가 되겠다는 욕망이 불갈으니 당당한 전선군인감이시오.>

첫인상이 엄엄한데다가 나를 탐탁지 않게 보아오던 중위였지만 그때에만은 너스레까지 피우면서 마치 제 동생처럼 다정히 등을 두드리며 추세워주더군.

<고맙네.> 어디서 알았는지 내 성품이며 취미 기질까지 일일이 설명하는 중위의 말을 듣고나서 거울진 사나이가 히죽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는데. 어깨가 굽을사한 중키에 뼈마디가 굽고 관골이 불거진 얼굴에 거뭇한 수염을 깎지 않아 곱슬

어보일뿐이지 실상 아바이소리를 듣기에는 아직 때 이른 서른너덧밖에 되지 않는 장대한 사나이였지. 첫눈에도 웅글은 음성처럼 무뚝뚝해보였지 성품이 퍼그나 너그러워보이었는데. 부러 흠이라면 걸을 때 오른다리를 저는것이었는데. 알고보니 굴간에서 오리 떨어진 크지 않은 청송역에서 1년나마 전철수로 일해온 평범한 철도일군이었는데. 나와 헤어지면서 여기도 전선못지 않는곳이니 잘 싸우면 소원대로 영웅이 될수 있다고 한 그 중위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네. 산굽이를 휘우듬히 감고 뻗어간 두줄기 철길밖에는 인종이 미치었다고 믿어지지 않는 한적한곳이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것 같지 않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네. 사실 철없는 나이에 사람도 고장도 낯선데서 정을 붙인다는게 용이한 일이 아니지. 원체 무뚝뚝하리만치 말수적은 덕삼아저씨와 하루종일 단둘이 지내면서도 주고받는 말이랴 몇마디밖에 안되어 나로서는

따분할 지경이었네. 전차도 처음에 한두마디 말로 일깨워주는것이 고작이었으니까. 사실 말보다 실지 행동으로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반복해가면서 끈덕지게 가르쳐주기가 일쑤였지. 침묵에 고정못을 박는 일도 내가 서둘어 몇번 빗맞히면 <아직 멀었어.> 하고는 마치를 앗아주고 한시간이건 두시간이건 등골이 땀에 화락하니 젖을 때까지 혼자 일을 했지. 그래서 나도 그가 대준대로 두발끝을 직선이 되게 자세를 바로세우면서 앞발끝에서 두뿔가량 떨어진곳에 있는 침목고정못에 눈총을 집중해서 마치를 힘껏 내려치려고 무등 애를 썼네. 빗맞히면 말없이 또 마치를 때우군하니까 빈손으로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것이 나로서는 차라리 말로 꾸짖거나 매로 다스리는것보다 더 마음이 괴로와 강심을 먹고 일묘리를 터득하려고 손바닥에 물집이 터질 때까지 열심히 마치질을 하군했네. 달포가 지나 나도 퍼그나 일에 익숙되자 덕삼아저씨도 나를 퍼그나 대견하게 여겼지만 일단 기차가 역구내에만 들어서면 얼씬도 못하게 신칙하군했네. 그러니 내 혼자서 하는 일이라야 놈들의 폭격에 자주 전화선이 끊어져 시오리나마 떨어진 다음 신성역에 연락가는 일과 직맹반장의 요구대로 전지크기만한 게시판에 공시나 속보를 써붙이는 일뿐이었네. 사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내가 비쳐준 푸른 상호등 불빛을 따라 기차를 전선으로 보내는것이였지만 그나마도 별치 않는 일로 해서 이그러지고말았네.

봄별이 무르녹던 어느날, 신성역에 연락을 갔다가 돌아오던 나는 내가에서 천렵하는 아이들한테 마음이 쏠리어 발을 벗고 들어갔네. 어느새 아이가 부풀어난 나는 시간지느줄 모르고 고기를 잡아내는데 정신이 팔려있었지. 멀리서 나를 찾는 소리에 화닥닥 놀라 신발을 쥔채 철쭉길을 달려가보니 덕삼아저씨가 마주오더군. 입귀가 실룩거리는 품이 당장 귀찮이라도 후려칠 기상이었

네.

<덜된 자식! 기차가 온다는데 고기잡이를 해. 그러면서두 기차를 안내하겠다고. 말썽을 부리겠으면 썩 사라져.>

처음 듣게 되는 벽력같은 소리에 나는 그만 고개를 푹 떨구었네. 죽으라는 소리보다 가리는 소리가 더 싫다더니 그게 나를 두고 한말 같았네. 생각할수록 야속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네.

(신성역에 알렸으면 댔지 큰일이나 난것처럼... 기차두 제손으로 안내하지 못하구 남의 심부름이나 할바에는 차라리 떠나고말아야지.) 마음은 점점 더 웅쳐져서 차라리 북행열차가 지나가면 잡아타고 외삼촌한테 당장 찾아갈 생각까지 들었네. 홀어머니 품에서 큰소리 한번 듣지 않고 자라난 나로서는 믿음데없이 외로운 나의 가공한 처지가 싫어서 북받치는 설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었네.

<사내자식이 그만한 일에 올긴? 그래가지구두 원썬을 갚겠다고. 썩 일어서.>

절뚝거리면서 앞서간줄 알았던 아저씨는 어느새 되돌아왔더군. 갈린 목소리는 퍼그나 누그러워졌으나 분김을 삭이지 못한 나는 쪼그리고 앉은채 입술을 앙다물었네. 더는 속보이고싶지 않아서말이네. 내가 웅고집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아저씨는 하는수 없이 혼자 터벌터벌 무겁게 걸어가더군. 저녁 어스름이 깃들 때까지 혼자 철뚝길에 앉아 속좁은 궁냥을 바재이고있는 나를 아저씨가 찾아와 무작정 손목을 이끌더군.

<빨리 저녁을 먹구 기차를 맛을 준비를 해야지 이게 뭐냐. 또 애를 먹일테냐.>

내가 손목을 빼려했으나 집게같이 틀어진 손탁에 이끌려 하는수 없이 합숙방에 들어서지 않을수없었네. 당콩이 드문드문 박힌 조밥이 무독히 담긴 밥그릇을 보자 나는 심한 시장기를 느꼈으나 비뚤어진 마음처럼 밥상을 모로하고 앉았네. 아저씨는 나를 돌려앉히며 술자락을 쥐여주더군.

<정맥아, 나두너처럼 미국놈의 폭격에 식솔을 다 잃고 혈혈단신이 된 몸이야. 우리 서로 마음을 의지하구 살아야 할게 아니냐. 너를 막내동생처럼 민구 꾸짖었으니 노여움을 샀으면 풀거라.>

거쿨진 사나이답지 않게 다심하게 달래이는 그 진정에 나도 그만 코마루가 매워지며 눈앞이 흐려졌네. 허나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

<그만해라. 네가 자꾸 그러면 내 속도 좋지 않아.> 아저씨의 목소리도 퍼그나 젖어있었네. 측은한 눈길로 밥을 먹는 나를 지켜보던 아저씨는 목이 메서인지 물사발만 찾더니 밥그릇을 절반도 비우지 못한채 자리에서 일어섰네.

자정이 지나서야 기차를 떠나보내고 돌아오던 길에 아저씨는 상호등으로 내가 계시관우에 붓글로 규률은 생명이라고 쓴 구호를 비쳐보이더군.<상호등을 들려면 저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 기

차가 가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가지만 그걸 위해서 때로 목숨도 바쳐야 한다. 그러니 언제나 성실한 노력을 바쳐야 한다.>

차분하게 일깨워주는 말이었으나 나에겐 아직도 기차를 안내할 길이 멀었다는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아 손맥이 풀렸네. 하지만 아저씨는 내가 맥을 놓을 틈을 주지 않았네. 그후부터는 신성역에 연락을 갔다 돌아올 때면 내가 못미더워서인지 마중나오곤했으니까... 싸움끝에 정이 든다고 나는 다리를 절며 멀리까지 마중오는 아저씨의 수고를 덜자고 부지런히 뛰어다녔네.

구질게 내리던 보리장마가 걷혀 오래간만에 해별이 쏟아져내리던 날이었네. 신성역까지 단숨에 갔던 내가 미끄러운 길을 부지런히 되돌아서 오는데 어느새 굽인돌이쪽에서 아저씨가 마주 오더군. 나는 손을 저으며 마주 달려갔네. 내 얼굴의 땀을 씻어주며 아저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삶은 햇감자를 구렁에서 꺼내주더군. 불이 메이게 먹으며 나는 감자그릇을 아저씨앞으로 밀어놓았네.

<난 먹구 왔다. 배가 출출할텐데 다 먹어라.>

<이젠 마중나오지 말아요. 시간을 지킬테니.>

<놈들의 공습이 잦아지는데 감시구역을 넓혀야지.>

<선로반아저씨들두 있구 또 내가 오가면서 보면 되잖나요.>

히죽이 웃는 아저씨는 못내 만족해하는 기분이었네.

<허-정맥이가 제법인걸. 크면 조역감이야.>

그 말에 나는 바싹 달라붙어 졸랐네. 나를 민구 열차안내를 시켜달라구 말이네. 하지만 그 청탁에는 고개를 젓는 아저씨의 안색이 저으기 굳어지더군.

<기차만 나타나면 놈들이 꼬리를 무는데 그건 안돼. 그러지 않아두 네가 걱정인데.?>

시통해진 나는 하는수 없이 아저씨가 메고 온 마치를 들고 일어섰네. 굽인돌이쪽을 돌아보던 아저씨는 내 팔소매를 나꾸쳐며 다급히 물었네.

<가만... 저게 보이지? 시한탄이 아니냐?>

집관목이 들성들성난 철뚝옆에 정말 시한탄 두개가 비죽이 보이었네. (저게 터지면 철길이 뭉텅 갈릴텐데.)하는 생각이 들자 내 등골에는 소름이 오싹 돋치었네.

<저리 가서라.> 아저씨는 성큼 한걸음 나서는 것이었네.

<안돼요, 아저씨, 위험해요.>

<썩 물러서라는데두.>내가 막아나서자 그는 뿌리치듯 옆으로 나를 밀어제꼈네. 그바람에 나는 몇걸음 뒤걸음치다가 철길에 걸려 털썩 주저앉았으나 다시 뒤쫓아나서 달렸네. 아저씨는 불길이 황황 이는듯한 눈길로 돌아보았으나 당장 일을 칠걸 같아 나는 한사코 막아나섰네.

<혼자선 안돼요. 정 그러면 나두 따라가겠어

요.>

<이녀석, 그게 어디라구 네가 나서. 썩 몰려서.>

노기편 음성으로 으름장을 놓았으나 그래도 내가 두팔을 벌리고 막아나서자 솔뚜껑같은 손으로 <절썩>하고 내 뺨을 후려칠듯 쳐들더군.

가면 죽는다고, 죽어도 같이 가자고 말하고싶었으나 입만 벌리면 울음이 터져나올것만 같아. 이를 사려물고 나는 고개를 흔들며 기어코 막아나섰네. 쳐들었던 손을 어깨우에 얹으며 나를 일떠세운 아저씨는 물기가 그렇해진 눈길로 내려다보고는 할수 없는지 말없이 돌아섰네. 무거운 걸음으로 한마장도 못가서 아저씨는 지쳤는지 무너지듯 그자리에 덜썩 주저앉았네. 담배쌈지를 꺼내어 속이 타는지 두툼하게 한대 말아 피우던 아저씨는 뒤통에 쪼그리고 앉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통명스레 내쏘더군.

<날이 어두워지면 렬차가 오겠는데 이러구만 있을테냐. 빨리 역에 알려야지, 어서.>

아직도 노기를 삭이지 못했는지 다시금 또 한대 담배를 천천히 마는것을 보고서야 나는 자리를 떴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과 아저씨의 신상에 미칠 불길한 예감때문에 나는 미끄러운 산길로 질러갔네. 몇번이고 어푸러지었다가는 다시 뛰면서...역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린 나는 마음이 다급해져 그달음으로 되돌아섰네. 고개마루를 다시넘어서 내려다보니 철길엔 아저씨가 없지 않겠나. 일시에 가슴이 졸아드는것만 같아 나는 무작정 덤불을 헤치며 시한탄이 있던쪽으로 내달렸네. 달려가보니 아닐세라 옷동을 벗어던진 아저씨는 속내의가 땀에 화락하니 젖은채 담배를 맛스럽게 피우고있더군. 그새 시한탄을 다 해제하고말이네.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린 나는 아저씨의 넓은 가슴에 고개를 묻은채 좁은 마음에 맴돌이치던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네.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날 버리고 혼자서...>

<그만해라, 사람들이 오는데.>

아저씨는 나를 일켜세우며 거치른 손으로 두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조심히 닦아주었네. 내가 못미더운가고, 날 따돌리고 혼자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꾸념을 하였지.

<널 못믿다니. 하지만 네가 곁에 있으면 손이 떨려서 못해. 자, 모든 일이 다 잘되지 않았니.>

아저씨는 마지 어리광치는 막내동생을 너그럽게 달래듯 내 등을 다독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네. 그손길을 타고 나의 가슴속에는 이름할수 없는 련민의 정이 따뜻이 흘러들었네.》

×

잠시 이야기를 마친 현정택은 안경을 벗어 손

수건우로 간간히 닦으며 생각을 더높였다. 정구는 재촉하듯 그를 지켜보았으나 긴 한숨을 내쉴 뿐 말이 없었다. 어느새 마음이 초조해난 정구는 호기심을 금치못해 다그쳐물었다.

《그 덕삼아저씨가 그림도 좋아했습니까?》

《글쎄... 남다른 취미를 가진것 같지는 않았네. 그때 난 직맹반장의 요구대로 속보만이 아니라 뗏을 부려 인물소묘까지 해서 같이 붙이면 서투르긴해도 그것대로 인기였지.

<허, 선로반장 조개턱을 보게, 신통하게 그랬네 그러.>

<덕삼인 그림재간에 홀려서 일은 안시키고 정택이한테 그림공부만 시키는가베, 허허.>

속보관앞에 모여선 사람들이 한마디씩 아저씨르 시까슬렀으나 그는 나를 돌아보며 히죽이 웃을뿐이었지. 설참에 그림을 그릴 때면 슬그머니 뒤통에 서서 지켜보는 아저씨에게 내가 한장 그리자고 청할 때면 <그만뒀라. 내야 뭐 잘났다고, 그리겠냐.>하고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군하는 바람에 종시 그릴수 없었네.》

정구의 아쉬운 마음을 눈치챈 현정택은 감회깊은 어조로 말꼬리를 끌었다.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참 알수 없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만 그해 7월 열하루날이었네. 방금렬차편성을 끝내고 출발시키려는데 적기가 불시에 날아들었네. 미처 손쓸새도 없이 꼬리를 물고 연방 내려쫓히며 로켓포까지 쏘아대는바람에 방탄차량에 이어 그 앞차량까지 불이 달렸지. 불이번져가는 차량으로 마주 달려가는 아저씨의 뒤를 따라 나도 뛰었네. 피륙 나를 돌아보며 뭐라고 웨치더군. 허나 그 고함소리마저 연방터지는 폭음때문에 가려들우수 없었네. 다만 <전철기>하는 소리에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버쩍 들어 반대쪽으로 달려갔네. 불붙는 차량에 기적적으로 올라탄 아저씨는 련결부를 메고는 타래치는 불길도 아랑곳없이 상호등을 흔들며 통과신호를 보냈네. 렬차가 통과한 뒤로 불과 7~8미터 거리로 따라오는 불붙는 차량앞에서 나는 전철기를 힘껏 제졌네. 계선으로 빠져나가는 불붙는 차량에 대고 적기가 연방폭탄을 퍼부었지만 아저씨가 뛰어내리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네. 멀리까지 뒤따라간 선로반장이 아저씨를 업고온것은 공습이 멎은 뒤였네. 폭풍에 날려 철독아래 떨어진 아저씨는 심한 타박상을 받고 정신을 잃었던것이네. 준의가 와서 주사를 놔서야 정신이 든 아저씨는 걱정이 가득해서 지켜보는 나를 손더듬으로 쓸어보더군.

<난 일없다. 네가 제때에 전철기를 제졌게망정이지 큰일날번 하지 않았니...>

그는 대견스레 나를 쳐다보며 만족한 웃음을 그리더군. 약을 먹고 혼곤히 잠이 든 아저씨를 지켜보느라니 늙들에게 혈육을 잃은 나에게 그가 마음의 기둥처럼 의지가 된다는 느낌이 새삼스러

워졌네. 그의 신상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지새우던 그 여름밤이 왜 그리도 길던지...때없이 갈마드는 불안한 생각을 쫓으며 나는 아저씨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네. 상호등불빛이 조명되어 얼굴의 굴곡이 뚜렷하여 대뜸 특징을 잡아쥐고 그리었으나 왜서인지 마음에 들지 않아 세번째만에야 먹펜으로 정성스레 완성했네. 속보와 함께 게시판에 붙인 그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나 아저씨는 볼수 없었지.

새벽에 군병원으로 후송되어갔으니까. 나도 따라나섰으나 <너까지 자리를 비면 여기일은 어떻게 하겠나. 내 돌아올 때까지 전철기를 맡아봐라.>하면서 아저씨가 만류하는 바람에 서운한 마음으로 눌러앉고말았네. 혼자 철길에 나서니 아저씨의 지청구가 그리워지더군. 그럴수록 그가 내뒤에서 지켜보는것만 같아 하루종일 일손을 놓을수 없었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술을 놓기 바쁘게 밤차발을 준비때문에 역구내로 나가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했네. 어둠이 깃든 게시판앞에 상호등 불빛으로 속보판을 비쳐보는 아저씨를 보았으니까 나는 반가움이 앞서 한달음에 달려갔네.

<아저씨, 몸은 어때요.>

<응, 다 나왔다. 그새 별일 없었니?>

그도 무척 반가와하며 내손을 잡아쥐는것이였네. 나는 그가 불편하게 움직이는것을 보고서야 오늘밤 렬차안때문에 앞질러왔다는걸 눈치챘네.

<오늘밤엔 직맹반장아저씨하고 안내하려 했는데...>

<우리 정택이가 어린할려구. 자, 그럼 오늘은 네가 렬차를 안내해라.>

뜻밖에도 그는 나에게 상호등을 쥐여주는것이였네. 몇달동안 마음속으로 고대하던것이 이렇게 문득 차례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 나로서는 처음 어안이 빙빙했지. 상호등을 쥔 나의 작은 가슴은 기쁨으로 그들먹이 고여올랐네. 더구나 아저씨가 곁에서 믿음직하게 지켜주는것으로 하여 어린마음속에도 자부심과 욕망은 배가로 커졌네. 아저씨가 며칠사이 내가 정리해놓은 철길을 보고 자못 대견하게 여기었으니까...허지만 내손으로 렬차를 무사히 전선으로 떠나보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로 되리란것을 나는 미처 몰랐네.

여느때처럼 렬차를 떠나보낸 뒤 굴어귀까지 철길감시를 하고나서 되돌아서던 길에 우리는 평퍼짐한 바위우에 나란히 앉았네. 담배쌈지를 꺼내던 아저씨가 문득 물었네.

<정택이가 여기 온게 언제드라?>

<삼월 초이튿날이예요.>

<그래 반년두 못되는 사이에 제손으로 렬차를 다 안내해서 떠나보내구, 정말 몸두 마음두 컸어.

여기서처럼 애쓰면 어디가서두 성실한 사람이 될거야. 이때, 이젠 공부하고싶지 않니?>

푸르스름한 달빛에 비친 아저씨의 진중한 안색을 지켜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네.

<잘 생각해봐라. 나두 처음엔 너를 착실한 일군으로만 키우려구 했지만 가만보니 네 재간이 아까와서 그런다.>

군에 올라갔던 기회에 대학생모집요강을 본 아저씨는 군교육부에까지 찾아가서 미술대학 수험절차를 알아봤던것이였네. 나도 처음엔 대학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었으나 그 역시 막연한 희망처럼 거물거릴뿐 정든 여기를 떠나고싶질 않았네.

<대학엘 간데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겠어요.>

<여기 걱정은 말래두. 내가 다 어련히 하지 않을라구.> 역정을 부리듯 부러 어성을 높이던 아저씨는 잠시 말없이 나를 지켜보더니 차분히 일깨워주었네.

<나두 정이 들어서 정작 너와 헤어지자니 마음이 알찌근해진다. 하지만 이 전쟁통에도 나라에선 인재를 아껴키우는데 제 생각만 하다나면 네 앞일을 그르칠수 있잖니.>

어린 나를 놓고 자기의 진정을 헌헌하게 털어놓는 아저씨의 깊은 마음을 나는 알수 없었네. 그날밤 잠자리에 누웠으나 회오리바람처럼 순식간에

숫구쳐오르던 대학에 대한 욕망이 막연한 불안으로 일시에 잦아들었네. (이름조차 생소한 미술대학에서 어떤 시험을 치는지? 또 소문만 내고 갔다가 떨어지면 무슨 뚫으로 오랴.) 더구나 아저씨의 몸도 추서기전에 훌쩍 떠난다는것이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위구가 막아서는 등 맥락없이 뒤펅키는 착잡한 생각때문에 나는 온밤 뒤채기였네. 아저씨도 잠을 설치였는지 피발이 진 눈으로 점심곽을 싸들고 나서는 나를 멈춰세웠네.

<내 역장동무하고도 의논이 있었으니 오늘부터는 떠날 준비나 해라. 내가 그만 늦게 알아보다니 시험날자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둘러야지.>

<좀더 생각해보겠어요. 아저씨 혼자서 어떻게...>

<일없대두. 너와 함께 일하면 의지가 되구 힘이 되는건 사실이야. 하지만 불안한 때가 있을것도 사실이지. 네가 갈길을 안이상 이제 더 붙잡아둔다면 그건 나라앞에도 죄를 짓는게다. 너두 크면 그걸 알게 돼.>

아저씨는 야리한 내 손목을 꼭 틀어쥐고나서 더는 어찌는수 없이 나를 되돌려세웠네. 이틀사이에 아저씨의 주선으로 입학원서며 추천서 등 문건수속을 다급히 끝낸 나는 복행렬차에 올랐네. 지금도 나를 바라워주면서 하던 아저씨의 말이 잊혀지지 않네.

<사람이 성실한 노력으로 못해낼 일이란 없어. 하지만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거라.

너를 위하는 일이 내겐 보람이구 기쁨이다.>

서운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배낭을 지워주는 아저씨의 눈가에도 물기가 젖어있었네. 지금도 역구내를 벗어나 점차 속력을 높이는 기차를 따라오며 푸른 상호등을 흔들던 아저씨의 모습이 눈앞에 정겹게 그려지네.

대학에 입학한후 몇번 편지를 보냈으나 회답이 없었는데 세월에 가서 봉합엽서가 왔네. 그안에는 이제는 몸도 완쾌되었으니 자기 걱정은 말고 학업에 전심하라는 짙막한 편지와 함께 송금쪽지가 들어있었네. 그 이후에는 또 소식이 없어 방학때 한번 찾아가볼 의향을 비쳐 편지를 썼더니 인차 회답이 왔더군. 편지를 읽는 나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떨렸네. ...나를 위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는 하다마는 여기 걱정은 말고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성공하기를 바랄뿐이다. 사내란 사사일에 쫓리면 큰일을 못한다는걸 명심하고 학업에만 전심하거라. 너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네 뉘까지 남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으니 너도 성공하기전에는 만나볼 생각을 하지 말거라...

아저씨의 강직한 마음이 그대로 비친 글줄마다 나를 호되게 후려치는것만 같았네. 하기야 나도 그때부터 더 강심을 먹고 공부에 열중한건 사실이네. 그 이후에도 여러번 편지를 보냈지만 통화답이 없었네. 다만 절기가 바뀔 때마다 날자도 어기지 않고 송금을 보내와서 그걸 아저씨의 안부처럼 여기는데 습관됐지. 하긴 그 덕분에 그때만해도 귀했던 화구도 제일 좋은것으로 쓰며 남부럽지 않게 공부했지.

전쟁이 끝나자 인차 아저씨를 찾아가보려고 했지만 결국 학부에 올라간 이듬해 여름에야 떠나게 됐네. 실습작품창작을 구실로 해서 말이네. 무덤고 비좁은 남행열차에 몸을 실었지만 내 마음은 정다운 고향집을 찾아가는 아이처럼 한껏 부풀어올랐네. 굳이 성공하고서야 찾아오라는 아저씨의 엄한 당부에는 미처 가닿지 못했어도 이제는 어엿한 학부 학생이 된 나를 보면 그도 촉망되는 나의 앞길을 두고 기뻐하리라는걸 믿어의심치 않았네. 실혹 성공하지 못한 아들을 보고 그 날밤으로 되돌려보낸 옛날의 한석봉어머니처럼 랭혹하게 나를 대해준다 해도 웅심깊은 사랑이 비낀 그 모습을 얼마만이라도 정겹게 바라보고싶은것이 간절한 내 심정이 었네. 청송역이 가까와질수록 설레이는 마음을 다잡지 못해 나는 차창가에서 떠날수 없었네. 아직 철길주변에 난 폭탄구덩이가 듬성듬성한것이 전쟁의 상처가 미처 가시여지지 못했어도 그마저 다감한 추억을 불러주었네. 이 철길을 따라 아저씨와 함께 땀을 흘리며 어린 내 넋을 키워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것이 정겹게 안겨왔네. 그럴수록 한시바빠 아저씨를 만나 밤새도록 회포를 나누고싶은 심정이 간절해졌다. 역두에서 붉은 모자를 쓴 직맹반장이(그는 지난해에 관리국으로 소환되어 간조역의 후임이

였다.) 나를 보자 두팔을 벌리고 다가와 와락 안더군.

<이게 누군가, 정말 끝끝한 대학생이 됐구나. ...우린 ...정택이가 이렇게 찾아올줄 믿었지.>

눈곱이 벌거우리하게 상기된 그의 안색은 왜서인지 한줄기 우수가 질게 어리었네. 내가 덕삼아저씨의 안부를 묻자 머뭇머뭇 대답을 피하던 그는 어서 들어가자고 역사로 나를 이끌었네. 내가 다그쳐물자 직맹반장은 정전이 되기 달포전에 군용열차를 구원하다가 아저씨가 장렬하게 희생되었다고 말하지 않겠나.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땅속으로 흘러드는 허탈감에 휩싸였네. 직맹반장은 전시수송을 하다가 희생된 철도일꾼들의 사진이 게시된 역장실앞으로 나를 데려갔네. 거기에는 세명의 사진과 함께 내가 먹펜으로 그렸던 아저씨의 소묘가 그대로 나붙어있지 않겠나. 그제야 나는 솟구치는 설음을 금할수 없었지.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는가고 다그쳐물었지. 한동안 나를 말없이 위무하던 직맹반장은 퍼그나 젖은 목소리로 더듬거렸네.

<네가 자꾸 이러면 우리가 죄스럽구나. 사실 너에게 비보를 알리지 않은건 그의 뜻이기도 했다.> 그말에 나는 끝내 직맹반장의 품에 얼굴을 묻고말았네. 직맹반장을 따라 덕삼아저씨의 분묘를 찾은것은 한낮이 기울무렵이였네. 차굴 맞은편 등성이에 자리잡은 분묘 주변에는 소박하고 강직한 그의 넋처럼 들꽃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었네.

내가 1년만 더 아저씨와 함께 일했더라면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라는 뼈아픈 후회가 가슴앓이처럼 울컥 치밀어올라 나는 저도 모르게 땅을 치며 통곡했네. 나를 달래던 직맹반장은 상돌우에 놓인 아저씨의 모색에 눈길을 돌리며 잘린 음성으로 말하더군.

<사실 우리도 덕삼동무가 혼자 일하는게 힘들어하는것 같아 보조원을 물색했지. 그 사연을 알게된 그는 나를 찾아와서 대뜸 성을 내지 않았네.>

<내 판 사람을 받아쓸것 같으면 아예 정택이를 보내지부터 않았겠수다. 이젠 일두 손에 익구 정까지 들어서 떠나보내자니 빠곤합디다. 그렇다구 늘결에 두고 일을 시키다가 뜻밖에 불행이라든 당하면 어찌겠수. 아직 나이두 어리구 또 남다른 재간까지 있는 앤데....>

<그러길래 맛감한 후임을 데려오자는게 아닌가.>

<참 딱하게두 하웨다. 정택이가 그걸 알면 제먼저 오겠다고 할거웨다. 힘이 좀 들어두 내가 그애뉘까지 말아 해야 정택이가 돌아올 땐 나도 땀땀하게 아니우. 생각이 짧다구야, 찌쯔.>

그래두 몸이 불편한데 고쳐생각해보라고 여러모로 설복하자 그도 한결 누그러워지더군.

<생각은 고맙세다. 하지만 이걸. 보시우.>

품속에서 네 편지를 꺼내놓으며 그답지 않게 애원하듯 사정하더군.

<정택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올날이 꼭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잠도 다 안와요. 우리가 그의 재간을 소중히 지켜준다면 그게 자랑이구 힘이 아니겠수. 그러길래 난 지금두 늘 정택이와 같이 일하는 심정이예요.>

웅심깊은 그의 진정에 나는 그만 가슴이 몽클 해졌네. 인정보다 더 큰 기대와 믿음을 안고 말없이 일해가는 그에게 우리는 더는 권고할수 없었지.>

초연히 앉아 묘비에 눈을 주던 직맹반장이 측은한 눈길로 나를 돌아보았네.

<사실 그가 기총탄에 복부를 맞고 만신창이 되어 림종이 가까와온다는걸 자각했는지 마지막 모두숨을 쉬며 너를 찾더구나. 그를 지켜보느라니 가슴이 찢히는것만 같아서 견딜수가 있어야지. 그때 선로반장이 정택이한테도 빨리 알려야 하겠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머리말에 있는 사품보따리를 가리키더구나.

<정택이한테 알리지 말아주. ...그가 오면 이걸 전해주... 꼭 올텐데.>

사후에 보따리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증산경쟁에서 상품으로 탄 곤색양복지갑피속에 이 그림이 간직되어있지 않겠니. 그래서 우린 그와 영결할때에도 이 그림을 놓구 제를 지냈지. 그의 뜻대로 비보를 전하는걸 미루면서두... 그가 소중히 간직했던 그림을 사진대신 집어넣구 네차 찾아오기를 기다렸지...>

폐부를 찌르는 그 말마디는 슬픔만이 아닌 나의 심신속에 강렬한 힘이 소용돌이치게 하였다. 덕삼아저씨의 령전에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부어올리는 나의 두어깨에는 그네들의 곡진한 기원이 무겁게 실리었네...>

후광으로 붉게 물든 먼 하늘가를 오래동안 응시하던 현정택은 혼자말처럼 뇌이었다.

《난 그네들의 기원을 안구 첫 작품을 그렸구 또 졸업후엔 오늘까지 교단에 서있네. 하지만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덕삼아저씨는 땅속에서도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아 나는 덕삼아저씨가 언제나 빨리 서두르라고 인생의 먼길을 걸어오면서 나를 항상 채찍질한다고만 생각되네.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는 그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그의 뜻을 이어주자고 한생을 애써왔지.》

스승의 숭엄한 모습을 지켜보는 정구의 눈길에도 사색의 빛발이 번뜩이었다. 그를 이윽히 돌아보던 현정택은 허심하게 진정을 털어놓았다.

《내가 교단에서나 자네들에게나 요구성을 높인것도 그네들의 기원을 착실하게 이어주자는것이였지. 하기가 그게 시대가 바라는것이기도 하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음, 실패한자에게 매를 들기는 쉬워도 성공한자에게 채찍질을 하기는 어려운거네. 하지만 내 오늘 그 어려운 일도 했노boy.》

현정택은 정구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정구는 두손으로 어깨에 드리운 스승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우리 혁명의 1세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2세, 3세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래일을 위해 피와 땀과 정력뿐아니라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쳐오지 않았는가. 정구는 두줄기 궤도처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창창히 이어진 그 길을 끝없이 이어가야 하겠다는것을 새롭게 감득하였다. 그 길을 그들과 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지름을 써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의 가슴을 쳤다.

그들과 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바로 여기에 참된 인간의 삶을 영위할수 있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었다. 정구는 저녁노을의 후광을 받아 우렁이 안겨오는 스승의 거인같은 모습에 눈을 주며 그를 따라나섰다.

그 순간에

리영

한생을 다 말해야 할
그러한 순간이 올수 있으리
준엄한 결전장에
원췌의 총구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죽어 충신으로 영생하자는
평범한날의 이 맹세

정령 추호도 흔들림 없어야 하리
그런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사나이 한번 태어나
굴욕의 목숨 백번 얻느니
한목숨 던져 내 일으리라
장군님 전사로 영생하는 삶을

군공으로 빛나는 땅에서 외 2 편

김명익

언제였던가
내 어려서
전사한 아버지의 군공메달을
장식품처럼 달고 놀다
그만 잃어버렸다
후날 아버지가 피흘린
이 땅에서 자라
나도 군복을 입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천초선에서
군공메달을 수여받았을 때
문득 잃었던 아버지의
군공메달을 다시 찾은 날

나를 꾸짖던 어머니가 생각키웠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킨
이 땅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는 땅은 군공으로
빛나는 땅이란다...
오늘도 내 그 목소리 들노니
나의 아들이 자라
그 시절의 나처럼
잃지 말아야 하리
인민군렬사묘가 많은
이 땅을...

귀항의 날

두둥실-
해쫂는 수평선 위로
하나들
마스트가 보인다
어뢰정들이 떠오른다

-수고했어요!...

바다가로 달려나온 녀인들
치마자락을 적시며
바다물에 뛰어들며
귀항의 인사를 보낸다
해군군관의 젊은 안해들이

오늘은 령해를 지키고
어뢰정대가 귀항하는 날
설눈이 내리던 그 저녁에
조국의 바다가 끝나는 해역으로
해상전투근무를 떠났던 해병들
아, 봄이 되어 돌아오누나

얼마나 그리웠으랴

작별이 많은
해군군관의 안해들
이렇게 맞고 보내며
바다가 진정할 날 없듯
한가슴 진정할 날 없어

그대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있으려니
그 마음까지도 안고 사는
녀인들이 보내는 인사여

한뉘
대양의 사나이들을 기다리며
그네들에게
사랑의 뜻을 내리고
해당화처럼 바다기슭에 불타는
군항녀인들!

그 녀인들의 목소리
대양이 받아 메아리친다
-수고했어요!
...

주소없는 편지

사람들은
녀인의 주소를 몰랐다네
이름도 몰랐다네
하건만 우편으로들 부쳤지
그런데 그 편지들
다 가닿았더라네
묘향산줄기의
작은 마을에 사는 녀인에게
그 녀인

영웅소대장의 어머니
최고사령관이 잘 아시는 녀인이었네

×

-김광철영웅의 어머니앞
이 주소없는 편지를
이 나라 사람들, 병사들
많이도 하였지

한발을 들고 글을 쓴 헤밍웨이

장편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무기여 안녕!》 등의 작가로 명성이 높은 헤밍웨이(1899~1961)는 자기의 독특한 사상에 예술적 특성으로 하여 세계문학사에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주체43(1954)년에 그가 받은 어느 상증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현대소설문학, 특히 문학예술을 정통한것으로 하여 노벨상을 수여함.》

헤밍웨이는 《억센 사나이 성격》 창조로써 또 소설문학에서 《전보식문제》의 창조로써 문학사에 자기의 흔적을 남겼다.

하여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창작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작품에 《헤밍웨이식》의 흔적을 남겼다.

여기에 그의 문학창작의 일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가 사망한지 1년이 되는 날 그의 집 응접실에서는 두사람이 대화를 나누고있었다.

한사람은 헤밍웨이가, 한때 기자생활을 했던 《별》 신문의 신진기자였고 다른 사람은 헤밍웨이의 제자였다.

제자: 자네는 헤밍웨이선생이 한쪽발을 들고 글을 쓴다는 소릴 들었나?

기자: 아니 그럼 그 두려운 장편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무기여 안녕!》 같은 글들을 다 한쪽발로 서서 썼단말인가?

제자: 그럼 자네 선생의 소설들에서 특히 문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보게나.

기자: 문장의 간결성, 생동성, 함축성이라고 말할수 있네.

기자: 옳네. 선생이 장편소설 《무기여 안녕!》을 썼을 때 평론가들이 쓴 글이 생각나누만.

《심리와 환경이 융합된 묘사, 순수한 동작과 표정으로 정서의 표현, 전보문식의 대화, 간단하고 적중한 독백, 능청스러운 야유,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다듬고 또 다듬은 일상용어 등은 독특한 풍격을 이룩하였다.》

기자: 그때부터 아마 《헤밍웨이식》이라는 말이 돌아갔나보네.

제자: 선생은 또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의 언어생활부터 독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언어생활에서부터 그 모범을 보였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네.

1944년에 선생은 빠리해방사가전에 직접 무기를 들고 참가하였네. 그런데 제네바협정위반으로 감옥에 감금당했다네. 기자는 취재만 해야지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누만.

얼마후 재판을 받고 무죄로 석방되었는데 그가 감방문을 나올 때 가슴에 동메달이 달려있었다네.

재판정에서 어찌나 연설을 사리정연하고 실감있게 하였던지 감옥당국에서 기념으로 표창했다더군.

선생은 늘 말했다네. 작가는 얼음산을 그리듯 글을 써야 한다고. 《얼음산은 수면에 삐죽삐죽 옷끝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밑에 그보다 수십배 더큰 몸뚱이를 잠고있지. 작가는 내놓인 부분을 그리지만 독자들이 스스로 물속에 잠긴 엄청난게 큰 몸뚱이를 느낄수 있게 써야 하네.》 그 말을 들은 다음에야 나는 선생이 왜 수십년동안이나 벽에 얼음산그림을 걸고있는가를 알게 되었네.

한번은 점심식사할 때 이런 일도 있었다네.

《선생님, 싱겁지 않습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가져오랍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며 일어나려 하는데 선생은 말하는것이였네.

《소금을 가져올가요? 이 몇마디면 될걸 왜 그리 번잡스레 말하나. 나머지는 군더더기요.

그러니까 자네 작품에는... 선생님, 싱겁지 않습니다. 싱거우면... 따위의 말이 많네. 정말 싱거운 말들이지. 한번 자네 한쪽발을 들고 서서 글을 써보게나. 그러면 짭막한 말만 고를걸세. 왜냐구? 아버지들이 자식들 혼계할 때나 선생님들이 학생을 깨우쳐줄 때 일깨워세워놓고 말하는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거지.

다리가 아픈데 언제 싱거운 말을 쓸 짬이 있어야지...》 하더군.

밤은 깊어가는데 응접실에서의 이야기는 그칠줄 몰랐다.

최병환

평양의 10 장사

임진조국전쟁(1592~1598)시기 일본군에 의해 강점된 평양성을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운 평양의병들중에는 《평양의 10장사》로 그 이름이 오늘까지 전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 10장사인즉 전주복, 돈정신, 법근, 고충경, 김자택, 현수문, 장이덕, 박억, 김응서, 립기동등이다.

이들 평양 10장사는 처음부터 열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세사람뿐이었다.

전주복, 돈정신, 법근 세사람이 처음에 결의형제를 무어 세 장사가 되었었다.

전주복은 주먹으로 능히 돌을 쳐서 깨뜨리므로 그의 별명은 《최주먹》이었다. 돈정신은 소금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지붕에도 훌쩍 뛰어오를수 있을만큼 몸이 날래여 《돈비신》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법근이는 중이었는데 검술에 능하여 《승검술》이라 불렸다.

이들 세 장사가 후에 8장사로, 또 다음에는 9장사로 마침내는 10장사로 되었던것이다.

이들 세 장사는 모두 미진한 천민출신이었지만 의협심이 강하고 남을 잘 도와주어 평양일판에서 이름을 날리었다.

전주복, 돈정신, 법근이 세 장사로 이름을 날린지 얼마후 여기에 고충경, 장이덕, 김자택, 현수복, 박억 등 다섯사람이 참가해서 8장사가 되었다.

고충경은 평양 덕부 일리의 출생인데 한창나이의 청년으로서 힘이 장사이고 효용한데다 글도 잘하는 선비로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장이덕은 이전에 관관벼슬을 지낸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시 문무를 겸비한 장사였다.

김자택은 활을 잘 쏘아 《김궁수》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현수백은 누구든지 사리와 경우에 틀리는자면 제아무리 세력이 있다 해도 그앞에 굽히지 않는 강직한 품성을 지녀 사람들은 그를 《현당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박억은 지혜가 많아 《박다지》라 불리웠다. 그는 임진왜란때 군량으로 자기 곡식을 4천석이나 나라에 바친 사람이었다.

이들 8장사는 주먹으로 돌을 부시고 검술에 능하고 활을 잘 쏘는 등 각각 한가지씩의 특기를 지녔을뿐아니라 이외에 또 풍류방면에서도 각기 특기를 가지고있었다.

돈정신은 단소를 잘 불고 장이덕은 거문고를 잘라고 고충경은 생황을 잘 불고 박억은 소리를 잘했으며 김자택과 현수백은 춤을 잘 추고 중 법근이는 손가락으로 가락을 맞추는 입주라를 잘

불었다.

이들 8장사에 또하나의 장사가 나타나 9장사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통강의 김응서였다.

김응서는 처음 이들 8장사에게 자기도 한몫 끼워달라고 청했다가 그가 평양출신이 아니라는 리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나 김응서는 거절을 당하고 아주 쫓겨간것이 아니라 8장사들앞에 돼지 아홉마리와 술 세항아리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김응서가 자기도 장사들속에 끼우기 위한 《추참례》였다.

이렇게 9장사가 된후에 립기동이가 더 끼워 10장사가 되었다.

립기동은 영승전 참봉으로서 문무가 겸비된 사람이었는데 《립번패》라는 별명이 있었다.

이처럼 이들 10장사는 출신부터가 서로 다른 형형색색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중에는 천민중에서도 가장 천한 소금장사와 중이 있는가 하면 그리 높은 관직은 아니였지만 벼슬아치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상 차이같은것은 안중에 두지 않고 사내대장부로 사귀었으며 그 과정에 자기가 사는 평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다.

임진(1592)년 4월 13일 20여만의 대군을 내몰아 불의의 침공을 시작한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북으로 밀고올라와 평양을 위협하였다.

부패무능한 봉건왕과 봉건관료배들은 제 한몫숨이 아까와 달아났지만 10장사를 비롯한 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 떨쳐나섰다.

일본군이 대동강 맞은켠에 나타나자 평양성인민들은 의병을 못하고 대동강의 여울목인 왕성탄을 지켜 왜적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이 싸움에서 박억은 과연 《박다지》답게 훌륭한 지혜를 내었다. 적은 수의 의병부대를 데리고 먼저 왕성탄으로 간 박억은 여울의 열은목을 비켜놓고 그아래의 깊은목을 지키고있었다. 후에 그와 합세하러 올 김자택, 고충경, 현수백은 박억을 나무랐다. 그러나 박억은 이제 두고보라며 웃었다. 우리 군사가 지키는곳은 능히 건널수 있는데라고 적들이 생각할것이라는것이였다. 과연 그랬다.

우리 군사들이 적은 수로 지키고있는것을 본 일본군은 거기가 여울목인줄 알고 군사를 내몰아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열은줄만 알고 텅빈텅빈 뛰어들었던 적들은 그우의 여울목에서 내리쏘는듯하는 빠른 물살에 휩쓸려 물살하고말았다.

그러나 그후 여울목을 알아낸 적들의 공격에 평양성은 강점당하고말았다.

평양 10장사들은 평양성밖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들이 평양이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며 적들과 싸웠다.

김응서는 룡강, 강서, 증산 등지에서 사람들을 초모하여 훈련을 주었으며 후에 조방장으로 되어 순안에 그 주력부대를 둔 평양주변의 관군을 지휘하였다. 또한 고충경은 대성산 광법동에, 림기동, 전주복, 돈정신, 법근 네사람은 가루개에, 박억, 현수백, 김자택 세사람은 동촌에, 장이덕은 화원촌에 의병부대를 집결시켰다.

이렇게 사면으로 평양성안의 적들을 포위한 의병부대는 이듬해 정초 평양성을 해방할 때까지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였다.

1593년 1월 7일 평양성해방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서 10장사가 거느린 의병부대는 칠성문을 공격하는데 참가하였다. 자기들이 나서자란 평양의 지형을 잘 알고 평양을 더없이 사랑하는 10장사는 이 싸움에서 결사적으로 싸웠다.

1월 8일 평양성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 전투에서 전주복, 림기동, 돈정신, 법근, 현수백, 김자택이 전사했다. 10장사중 여섯사람이 전사한것이다. 이 사실은 10장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가를 보여준다.

평양성이 해방된후에도 10장사중 나머지 사람들은 왜적들을 끝까지 몰아내기 위한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이처럼 평양 10장사는 모두 한사람같이 고향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렬사들이었다. 그들은 대개 평민출신으로서 미천한 천민들도 많았지만 모두 조국과 고향, 향토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성실성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평시에는 민간의 의협남자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큰 국난을 당한 시기에는 의병으로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친 애국렬사로서 오늘까지도 우리 후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신천이여, 나와 함께 가자

박철

격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심지에 불을 달아 꺼안은 폭탄인가
내 가슴에 무겁도록
너를 안고 가려니
피의 신천이여, 나와 함께 가자

저기 어린 생명들이 불타죽은 화약창고
술한 목숨들이 처참히 살해된 석당교
나를 붙잡고 복수를 당부하는 분노의 땅아
나의 집, 나의 초소가 있는
평양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 나와 살자
이른아침 출근길도 같이 걷고
날마다 마주하는 원고지우에도 펼쳐놓고
깊은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너를 이 가슴에 안고 들려니

내 생활의 기쁨에
행복의 웃음 웃어도
너의 하늘아래서 웃으리라
아침저녁 더운 밥술을 떠도

내 너의 하늘아래서 프리라
순간이나마
나의 삶에서
신천을 떼여놓는다면
무서워라, 그것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겨냥한 총에서
탄창을 뽑는것이기예

이 가슴에 살며
이 가슴 끝없이 허비고허빌
102어린이들의 울음소리
400어머니들의 피의 웨침
나의 걸음에서 안일을 영영 불사르리라
언제나 이 몸 병사로 살게 하리라

오, 천백배 복수하고야말 미제
그 원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주리다
나는 함께 간다
이 원한의 신천을
아니, 수만수억톤의 화약으로 장약된
거대한 폭탄을 안고 간다!

흰눈덮인 대지는 잠들었어도

박해출

온 한해

오곡을 위해

단즙을 다 바치고

너는 잠에 들었구나

하얀 이불을 포근히 덮고

새싹이 움틀 봄을 기다려

잠을 잔다 흰눈덮인 대지여

사람들은 흔히 말하더라

농촌의 겨울은 한가한 때라고

허나 그것은 아니여라

잘 썩은 거름우에서 물물 나는 하얀 김

거리대를 폭 박고 서있는 저 총각

이마에 흐르는 땀을 보아라

아침 전야로 나올 땐

누구나 털모자를 썼건만

누구의 머리에 털모자가 있느냐

목수건을 벗어던진 처녀들의 고운 볼은

빨강게 피여 하얀 김이 오르니

아름답기 그지없다 처녀들의 얼굴

벌써 아지랑이 피는 봄을 간직했구나

어허! 눈썹리 아득한 흰눈우로

프락또르발동소리 드세차게 울리니

벌 한가운데로 두엄들이 나간다

온 한해 잘 썩은 풀거름

하얀 이불우를 점점이 수놓는다

그러던 들리는듯하여라

대지가 단즙을 빠는 소리

엄마품에서 추운줄도 모르고 아기가 자듯

쿨쿨 잠을 자는 대지의 숨결소리

아, 이 좋은 계절이 없다면

우린 너를 살찌우지 못하리

이 벅찬 겨울이 없다면

우리 어찌 환희로운 봄을 맞으랴

기쁨에 푸르른 여름을 맞으랴

우리 어찌 고난과 행복이 엇갈리는

풍년가을을 맞을수 있으랴

온 한해

오곡을 위해

성실한 땀을 다 비치고도

장군님 이끄시는 우리의 강성대국

쌀로 받들 한마음 불타올라

우리는 하얀 이불을 남먼저 걷어찬다

너를 살찌우며 흰눈덮인 대지에 서있다

겨울이여 겨울이여

너는 우리에게

굴할줄 모르는 신심과 투지를 주는 계절

기름기가 번들거릴

우리의 대지를 마련해주는 계절

너는 우리의 첫 계절

농장의 사계절은 여기서 시작되여